

최종보고

러시아 극동개발 확대 전략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효율적 진출 지원 방안 연구
- 기업 진출 수요 조사 및 산업단지 조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

2015. 12

제 출 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러시아 극동개발 확대 전략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효율적 진출 지원 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산업연구원 원장 김도훈

<연 구 진>

<연구 책임자>

김학기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위원)

<연구 참여자>

김선배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지역산업팀 연구위원)

김민지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위원)

<목 차>

제 I 장.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5
(1) 연구 목적	5
(2) 주요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7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 기대 효과	10
제 II 장. 러시아의 산업정책과 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	12
1. 최근 러시아의 경제 동향	12
(1) 최근 주요 경제 지표 추이	12
(2) 주요 경제 지표별 추이	13
2. 러시아의 산업정책과 지역경제정책	16
(1) 러시아의 산업정책	16
(2) 러시아의 지역경제정책	22
3. 러시아의 경제특구 운영과 성과	29
(1) 경제특구의 종류	29
(2) 경제특구의 성과와 운영 방식의 변화	31
4. 생산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33
(1) 수입대체와 현지생산 확대 정책	33
(2) 러시아의 산업단지 개발	35

제III장. 최근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정책과 시사점 41

- 1. 최근 러시아 극동 개발 전략 41**
 - (1) 선도 사회·경제 발전 구역(TOR) 42
 - (2)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52
 - (3) 극동 관련 기타 개발 전략 61
 - 1) 우선 투자 프로젝트 61
 - 2) 극동발전기금에 의한 사업 용자 64
 - 3) 경제 특구 65
 - 4) 극동의 토지 무상 제공 67
 - (4) 극동 국경지역 새로운 개발 콘셉트 69

- 2. 한·중·일 및 북한의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 동향 71**
 - (1) 한·중·일 3국의 대극동 무역 및 투자 71
 - (2) 최근 극동지역에서의 중-러 협력 동향 76
 - (3) 일본의 극동 진출 동향 86
 - (4) 북한과 러시아 협력 87
 - (5) 북극개발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관심 89

- 3.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정책의 시사점 90**

제IV장. 한국 기업들의 극동 진출에 대한 관심과 문제점 95

- 1. 설문조사 결과 95**
 - (1) 설문조사 개요 95
 - (2) 관심 대상 지역과 협력 방식 96
 - (3) 진출 관심 분야와 범위 101
 - (4) 극동 진출 방식 및 진출 시기 104
 - (5) 극동 투자 진출의 문제점 107
 - (6) 극동 투자 진출 관련 정책 방향 108

- 2.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113**

제 V 장.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 유망 분야와 진출 전략	117
1.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 가능성과 유망 분야	117
2.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의 기본 방향	120
3.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의 단계별 정책	128
4.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133
(1) 극동지역 산업별 한-러 공동연구 사업 시행	133
(2) 극동 한국산업단지 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135
1) 한-러 극동 공동 연구소 건립 및 지원 센터 구축	135
2) 수산 가공 및 수리 조선 분야 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	138
3) 미하일롭스키 농공단지 진출 시범사업 추진	140
4) 투자 프로젝트와 연계한 인프라 건설 협력	142
5.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타 지원 정책	144
(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144
(2) ‘한-러 극동 산업협력 플랫폼’ 구축과 운영	145
(3) 투자유치 포럼을 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	147
(4) 학생, 조기 퇴직자, 창업자의 극동지역 진출 지원 확대	148
<부록>	151
<부록 1> 설문 조사 항목	151
<부록 2> 서술형 질문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161
<부록 3> 러시아의 산업단지 현황	167

<표 차례>

<표 I-1> 러시아 극동 진출 기업대상 조사 방법과 내용	8
<표 II-1> 러시아 주요 경제 지표	13
<표 II-2> 광공업 분야 우선적 육성 산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19
<표 II-3> ‘광공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시행의 예상 성과	20
<표 II-4> 국가 프로그램 ‘광공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의 유형별 리스크	21
<표 II-5> 경제특구 기능에 관한 정량적 절대평가(1)	32
<표 II-6> 경제특구 기능에 관한 정량적 절대평가(2)	33
<표 II-7> 러시아 정부의 수입대체 대상 분야와 추진 수단	34
<표 II-8> 수입대체 정책의 지원 대상과 혜택	34
<표 II-9> 러시아 정부의 주요 산업별 수입 의존도 감축 목표	35
<표 II-10> 러시아 산업단지 협회 개요	36
<표 II-11> 러시아연방 산업단지 개요	37
<표 II-12> 운영형태별 산업단지의 개요	37
<표 II-13> 러시아 산업단지의 투자 활동 개요	38
<표 II-14> 러시아 산업단지 개요	38
<표 II-15> 하바롭스크 산업단지 현황	38
<표 III-1> 선도개발구역 현황 및 지정 예비 지역	44
<표 III-2> 선도개발구역 유형별 육성 분야	47
<표 III-3> 선도개발구역의 우대 세제 내용	48
<표 III-4> 선도개발구역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내용	48
<표 III-5> 선도개발구역의 입주 절차와 자격	49
<표 III-6>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개요	54
<표 III-7>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주요 우대 조치	56
<표 III-8>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58
<표 III-9>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60
<표 III-10>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 기업	61

<표 III-11> 극동지역 우선 투자 프로젝트 목록(1)	62
<표 III-12> 극동지역 우선 투자 프로젝트 목록(2)	63
<표 III-13> 극동바이칼 발전기금을 통한 프로젝트 용자 목록	65
<표 III-14> 한·중·일의 러시아 극동지역별 수출입(2014년)	72
<표 III-15> 한국, 중국, 일본의 대러시아 투자(2013년 말 누계 기준)	74
<표 III-16> 한국, 중국, 일본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	75
<표 III-17> 한국, 중국, 일본의 극동지역에 대한 업종별 투자 비중	76
<표 III-18> 박람회를 활용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사업 제안	80
<표 IV-1> 설문조사 개요	95
<표 IV-2>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중 진출을 고려하는 프로젝트 및 협력 형태 ..	98
<표 V-1> 극동 한국산업단지 형성의 단계별 추진 전략	129
<부표 1> 러시아 산업단지 협회가 승인한 산업단지	166
<부표 2> 러시아 산업단지 협회에 가입 예정인 산업 단지	167

<그림 차례>

<그림 II-1> 러시아 주요 경제 지표의 추이	12
<그림 II-2> 석유 가격 동향(1998~2015.9)	13
<그림 II-3> 니켈 가격 동향(2008~2015.9)	14
<그림 II-4> 아연 가격 동향(2008~2015.9)	14
<그림 II-5> 알루미늄 가격 동향(2008~2015.9)	15
<그림 II-6> 루블화 가치 추이(1998~2015. 9)	15
<그림 II-7> 최근 루블화 가치 동향(2014. 9~2015. 9)	16
<그림 II-8> 러시아연방 산업단지 위치도(1)	39
<그림 II-9> 러시아연방 산업단지 위치도(2)	40
<그림 III-1> 러시아 극동 선도개발구역 위치도	46
<그림 III-2>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대상 지역	53
<그림 III-3>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수출 추이	71
<그림 III-4>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수입 추이	72
<그림 III-5> 한국, 중국,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연도별 투자(직접투자)	74
<그림 III-6> 한국, 중국, 일본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연도별 직접투자	75
<그림 III-7> 아무르강 횡단 교량 건설	83
<그림 IV-1> 응답 기업의 주력 업종(제조업 내)	96
<그림 IV-2> 응답 기업의 주력 업종(비제조업)	96
<그림 IV-3> 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중 투자 진출 관심 대상 지역	97
<그림 IV-4>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정 대상 지역 중 진출을 고려하는 지역	99
<그림 IV-5> 러시아 극동 진출 대상 지역 선정의 주요 기준	100
<그림 IV-6> 극동 진출 관심 분야(제조업)	102
<그림 IV-7> 극동 진출 관심 분야(비제조업)	102
<그림 IV-8>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주요 과제 중 관심 분야	103
<그림 IV-9>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과 관련한 시장 범위	103
<그림 IV-10>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적절한 진출 방식	104
<그림 IV-11> 극동지역에 진출할 경우의 지원 대책	105

<그림 IV-12>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진출 시기	105
<그림 IV-13>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교류 시작·확대 시점으로 고려하는 요소	106
<그림 IV-14>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	107
<그림 IV-15>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 관련 우리 정부의 중점 정책 방향	109
<그림 IV-16> 한-러 양국 정부 간 협력에 의한 극동지역 내 시범적 산업단지 조성 시 우선적 관심 대상 분야	110
<그림 IV-17> 한-러 양국 정부 간 협력에 의한 시범적인 소규모 ‘한국 전용 산업 단지’ 조성 선호 지역	111
<그림 IV-18> 극동지역 내 중·장기적 ‘한-러 협력 산업단지’ 조성 형태	112
<그림 V-1> 블라디보스톡 및 루스키섬	136
<그림 V-2> 한국-캄차카지방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사례)	146
<그림 V-3> 한국-캄차카지방 산업협력 네트워크(사례)	147

제 I 장. 서론

1. 연구 배경

○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의 극동진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체계적인 극동 진출 전략이 필요함.

□ 러시아 푸틴 정부의 본격적인 극동개발 정책

○ 러시아 정부는 과거와 다른 속도와 규모로 극동개발에 박차

○ 최근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의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투자유치를 통한 가공산업 및 제조업 육성

② 빠른 시일 내에 수출 상품을 생산하여 아·태지역에 대한 수출 확대

③ 극동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수 증대

○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BAM 철도 개보수 등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 및 가공산업 육성, 농림수산업 분야 개발 등임.

- 주요 세부 과제로는 제조업 및 자원 가공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극동 주요 농산물인 콩 가공을 위한 콩 클러스터, 수산물 가공 등을 위한 수산 클러스터 조성, 인력 양성 및 R&D 강화,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인 수송망과 전력 시스템 구축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주민복지와 관련된 각종 공공시설 건설 등이 제시되고 있음.

- 빠른 시일 내에 수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는 분야로 에너지 자원과 더불어 농수산업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극동지역은 물론 러시아 전역의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2018년까지 세계 20위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각종 규제 철폐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에 적극적임.
- ‘선도개발구역’(TOR) 지정을 통한 전략적 가공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추진
- 러시아 정부는 실질적인 극동개발 전략의 하나로 새로운 형식의 경제특구라 할 수 있는 ‘러시아연방의 선도적 사회·경제 발전 구역’(이하 ‘선도개발구역’, TOR: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지정을 통해 극동의 자원을 활용하는 가공산업 및 제조업 육성과 아태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
 - 2014년 12월 2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 후 90일이 경과 한 2015년 3월 30일 연방 법률 ‘러시아 연방의 선진 사회 경제 발전 지역 정보’가 발효됨.
 - 개발 대상 지역 확대 추진 중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정책 확대 추진 중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과 관련한 설치 요구 사항 및 적용되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내용 등을 규정한 3개의 법안이 정부에 제출되어 정부위원회 승인을 거쳐 2015년 6월 4일 정부안으로 의결
 - 정부안은 빠른 시일 내에 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 예정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대상 지역은 러시아 연해지방 남부 및 남서부 13개 도시·지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으로 역내에 있는 항만과 그 해역, 공항 등도 포함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대상 지역에서는 수입 설비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연중무휴 24시간 통관 업무 실시 및 국경 통관, 세관, 검역 등의 원 스톱 서비스화, 비자 제도 완화 등의 획기적인 우대 조치 적용 예정

□ 극동지역에는 다양한 형식의 경제특구와 클러스터 등이 복잡하게 얽혀 확대 추진 중

○ 최근 도입되고 있는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정책은 물론 기존의 ‘경제특구’, ‘혁신적 지역 클러스터’ 등의 정책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 중

○ 연해지방 블라디보스톡의 자동차 경제특구, 하바롭스크지방 콤포몰스크 나 아므레의 항공·조선 클러스터, 바니노-소비에트 가반 항만 경제특구’ 등 기존의 경제특구 및 ‘혁신적 지역 클러스터’ 정책도 지속

□ 제1차 ‘동방경제 포럼’ 개최를 통해 러시아정부는 극동개발과 아·태 지역 진출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9월 3~5일 블라디보스톡 루스키섬에서의 제1차 ‘동방경제 포럼’ 개최에 관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령에 서명

-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 포럼’이 극동연방관구의 강점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 새로운 파트너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

○ 포럼에서는 극동 개발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 외에도 구체적인 투자 협력에 관한 비공개 협의도 진행될 예정

○ 포럼의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한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토루토네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 대표가 취임

□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의 극동 진출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 강구 필요

○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 진행 중

○ 일본도 대러 협력기구인 ‘일로교류촉진관민연락회’를 정부차원에서 출범시킴. 에너지를 시작으로 농수산 분야 등으로 협력 범위 확대

-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1일 도쿄에서 제3회 ‘일본-러시아 포럼’이 개최됨.
- 러시아 하원 의장이 포럼에 참석하여 아베 총리와도 회견

□ 러시아 정부는 극동개발전략과 연계하여 북-러 협력 사업도 확대 추진 중

- 남-북-러 삼각 협력과 별도로 북-러 사업 확대
- 북한 인력 및 북한 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식의 북-러 협력 사업 추진
- 농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등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 추진 중

□ 기업 진출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극동진출 지원 대책이 필요

- 러시아 측은 극동지역 투자환경 개선과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을 통한 극동 개발 정책을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진출을 요청
- 극동지역의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없으면 기업 스스로 투자 진출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
 - 대기업 독자 진출에도 어려움이 많음(토지 선정, 인프라 준비 등).
 - 중소기업의 제조업, 가공 분야 투자 진출은 더욱 어려운 관계로 정부간 협정을 통해 필요한 절차 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과 연구 내용

(1) 연구 목적

-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의 극동진출에 대응할 수 있는 극동 진출 전략을 모색함.
- 특히, 우리 기업들의 효율적인 극동진출 방안의 하나로 극동지역과의 경제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국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함.
- 아울러, 2013년 한-러 양국 정상 간에 합의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 간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방안 등을 강구함.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정책 과제로 제시된 남-북-러 3각 산업단지 조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전 연구 기능도 병행

(2) 주요 연구 내용

- 러시아의 최근 경제 동향 정리
 -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 방향과 동향 등을 이해하기 위해 최근 러시아 경제 동향을 간략히 정리함.
- 러시아 정부의 산업정책과 지역경제정책 검토
 - 러시아 극동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검토해야 할 기본적 배경 사항으로 러시아 정부의 산업정책과 지역경제정책을 살펴봄.
- 러시아의 경제특구 정책 및 성과 검토

- 러시아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러시아의 경제특구에 대해 분석함.
 - 경제특구 정책의 특징과 경제특구 종류, 특구 운영의 성과, 향후 운영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함.
- 러시아의 산업단지 검토
- 산업생산 확대와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수입대체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러시아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살펴봄.
- 극동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러시아 정부가 최근 극동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경제특구 및 지역 개발 정책 분석
- 러시아 정부의 장기적 극동개발 전략을 간략히 정리함.
 - 러시아 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극동 ‘선도개발구역’ 및 주요 ‘경제특구’ 조사
-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동향과 현황, 희망 진출 대상 지역 및 산업 분야, 참여 방식에 대한 실태 조사
- 설문조사, 간담회 개최,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극동 내 희망 진출 지역, 참여 산업 및 업종, 참여 방식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함.
- 우리 기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극동지역 진출 방안 검토
-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전략과 최근 동향, 극동지역의 대외 무역 및 투자 협력 관계, 중국 및 일본의 진출 전략과 동향, 기업 대상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기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극동지역 진출 방안 마련

- 러시아 극동지역 한국산업단지 조성 가능성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 검토
 - 단기간에 산업단지를 구축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분야 및 진출 대상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산업단지를 점진적으로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
 - 산업단지 조성에 우선적으로 검토 가능한 산업분야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시범사업 검토
 - 기타 극동 투자 진출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봄.

3. 연구 방법

- 문헌조사, 통계분석, 설문조사, 관련 기관 및 기업 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현장조사 등으로 진행
- 문헌조사, 통계분석
 - 국내외 관련 문헌 조사와 통계조사
 - 러시아 극동개발과 관련한 러시아 관련 법령 등 각종 문헌 조사
 - 러시아 극동지역 관련 무역 및 외국인투자 동향 분석
- 기업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조사
 - 문헌조사와 통계조사에 기초한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실시
 - 기업들에게 관련 정보 및 기본적 추진 방향을 사전에 제시하여 구체적 응답을 도출. 실질적인 세부 추진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

- 설문조사는 온라인 조사와 병행하여, 오프라인 조사, 전화조사, 대면 조사를 통해 진행
 - 러시아와 거래하는 기업이나 투자 진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
 - 러시아와 거래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이 극동진출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사를 진행. 일부는 대면 조사 진행
 -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내 소재 업체에 위탁하여 조사
 - 러시아 극동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극동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을 통해 조사
- 산업연구원 자체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별도 조사 진행
- 단계별 조사 진행
 - 예비 조사: 기존의 유사 조사 내용 검토
 - 1차 조사: 가급적 2015년 6~7월 중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조사 진행
 - 2차 세부 조사: 1차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기업,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간담회 형식으로 2차 세부 실태 조사 및 구체적인 극동 진출 전략에 대해 협의

<표 I -1> 러시아 극동 진출 기업대상 조사 방법과 내용

	주요 조사 내용
예비조사	기존의 유사 조사 내용 검토
1차 기초조사	○ 러시아 극동지역에 ‘한-러 혁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참여 의향, 진출 대상 지역 및 진출 산업 분야, 진출 형식 등 조사
2차 세부조사	○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 방향 검토 - 주요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인터뷰 조사 -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을 통한 세부 추진 방안 마련

□ 국내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기업 간담회 개최

○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에 관심을 기울이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들의 극동 진출에 대한 간담회 개최

- 효과적인 극동 진출 방안 모색 및 설문조사 진행 협조

○ 러시아 극동지역과 진행하는 한-러 KSP 사업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기업 초청 간담회 개최

-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초청 연수사업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활용하여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재 기업 초청 설명회 개최

- 예, 제주도, 강원도, 포항시 등 현지 기업 초청 간담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활용하여 현지 국내 기업들 면담 조사 진행

□ 현지 조사 및 러시아 측의 협조 요청

○ 러시아 극동 선도개발구역(TOR) 등 주요 진출 대상 지역 현지 조사

-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다수의 선도개발구역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장 방문

※ 주요 검토 대상 지역의 일부 지역은 연구 참여자가 이미 방문한 바 있으며 기본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마친 상황

예) 하바롭스크지방의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연해지방의 ‘루스키섬 경제특구’, ‘블라디보스톡 자동차 경제특구’
캄차카지방의 ‘파블로페트로프스크 캄차트카항’ 선도개발구역 등

○ 러시아 KSP 사업과 연계하여 러시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 유도

- 2015년도 KSP 검토 주제와 본 사업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3차례의 공식 방문과 1차례 초청 연수를 최대한 활용
- 러시아 극동 선도개발구역 등 현장 조사 및 문제점 검토
- 극동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세부 시행 계획 관련 자료 요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토론회 개최

□ 자문회의 개최

-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터뷰 조사와 더불어 기본적 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 개최
-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점 도출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 기대 효과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 연구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전략에 대한 소개와 일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침.
- 본 연구에서는 극동개발정책을 활용한 투자 진출 등에 대한 실제 이행 가능한 분야별 시범사업 및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시
 - 기존의 연구 내용에서 제시한 방안들에 대해 러시아 및 극동지역 진출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타당성 및 진출 전략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전략 마련

□ 연구 기대 효과

- 대러시아 경험 및 국내 기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극동 진출 전략 작성과 지원 정책에 활용
 -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극동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양국 정부 간 합의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극동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중소기업의 극동 진출 정책과 지원 방안 도출에 활용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활용
 -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에 대한 대응
- 한-러 정상회담 합의 사항 이행
 - 2013년 한·러 공동성명 합의사항 이행. 한국 측의 적극적인 극동 진출 의지 홍보 효과
- 향후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및 북-러 협력 확대에 대한 대응책으로 활용
- 중국, 일본, 북한 등의 대극동 진출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에 활용

제 II 장. 러시아의 산업정책과 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

1. 최근 러시아의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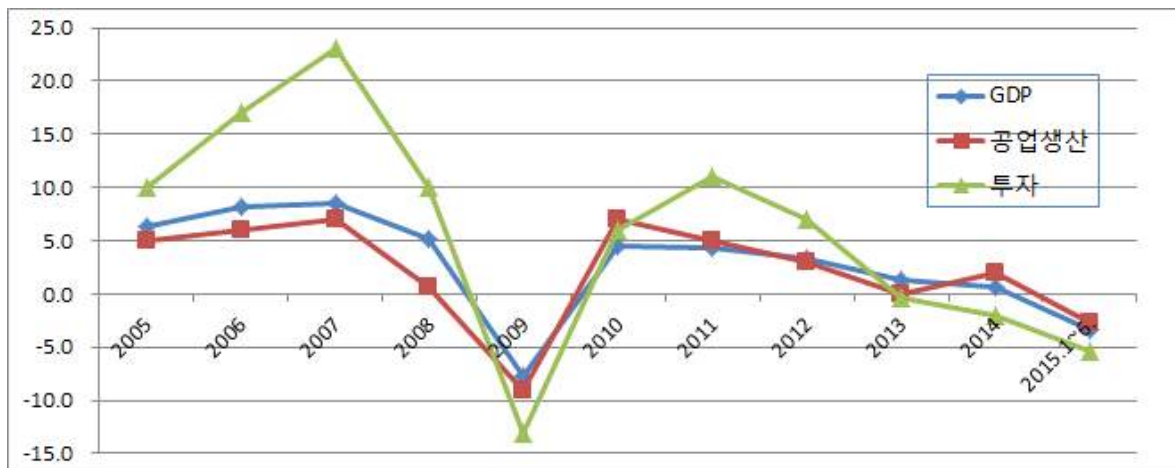
(1) 최근 주요 경제 지표 추이

○ 러시아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급격한 경제침체 후 2010년 비교적 높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1년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

- 2014년 GDP는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쳤고 2015년 상반기는 -3.4%
- 투자의 경우는 이미 2013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2015년 상반기는 -5.4%까지 떨어짐.
- CIS 이외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2014년 -4%에 이어 2015년 상반기는 -27.3%까지 떨어짐. 수입은 더욱 큰 폭으로 떨어져 2014년 -8%, 2015년 상반기는 -38.8%에 달함. CIS 국가들과의 수출입은 기타 국가들과의 수출입보다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함.

<그림 II -1> 러시아 주요 경제 지표의 추이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자료: CISSTAT.

<표 II-1> 러시아 주요 경제 지표

단위: 전년대비 증가율,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6.
GDP	6.4	8.2	8.5	5.2	-7.8	4.5	4.3	3.4	1.3	0.6	-3.4
공업생산	5.0	6.0	7.0	0.6	-9.0	7.0	5.0	3.0	0.0	2.0	-2.7
농업생산	2.0	3.0	3.0	11.0	1.0	-11.0	23.0	-5.0	6.0	4.0	2.9
투자	10.0	17.0	23.0	10.0	-13.0	6.0	11.0	7.0	-0.3	-2.0	-5.4
화물수송	8.0	8.0	7.0	2.0	-18.0	4.0	6.0	2.0	-2.0	-3.0	-8.1
소매유통	13.0	14.0	16.0	14.0	-5.0	7.0	7.0	6.0	4.0	3.0	-8.0
공산품물가지수	18.0	10.0	25.0	22.0	-4.0	15.0	17.0	7.0	3.0	6.0	11.8
소매품 물가지수	13.0	10.0	9.0	14.0	12.0	7.0	8.0	5.0	7.0	8.0	16.0
대 CIS 수출	11.0	30.0	24.0	33.0	-33.0	28.0	31.0	-2.0	-7.0	-14.0	-37.6
대 기타국 수출	37.0	24.0	16.0	33.0	-36.0	32.0	30.0	2.0	2.0	-4.0	-27.3
대 CIS 수입	7.0	18.0	33.0	23.0	-40.0	45.0	40.0	-10.0	-8.0	-17.0	-44.2
대 기타국 수입	38.0	45.0	47.0	36.0	-37.0	36.0	32.0	4.0	2.0	-8.0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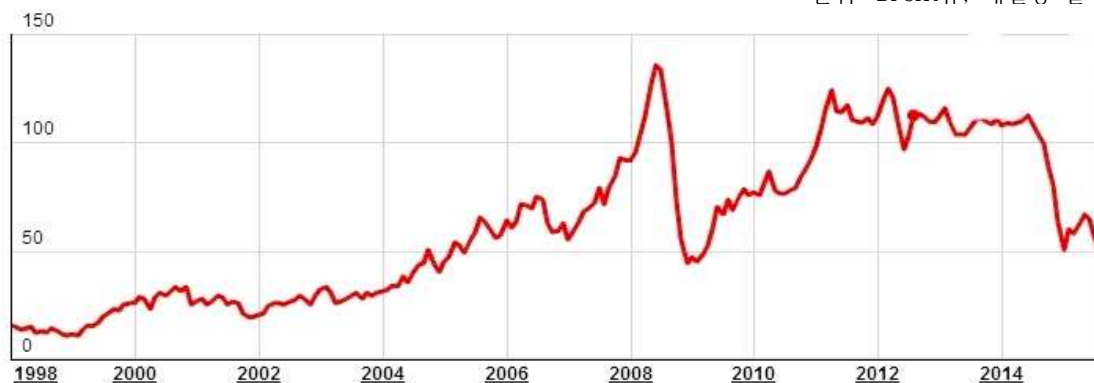
자료: CISSTAT.

(2) 주요 경제 지표별 추이

- 최근 러시아경제의 침체는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 등 에너지 관련 상품 및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 하락, 그에 따른 루블화 가치하락이 주요 원인의 하나임.
- 석유 가격 동향
 - 2015년 9월 29일 현재 Brent유 가격은 배럴당 47.36달러로 2008년 6월의 135달러 대비 약 1/3로 하락

<그림 II-2> 석유 가격 동향(1998~2015.9)

단위: Brent유, 배럴당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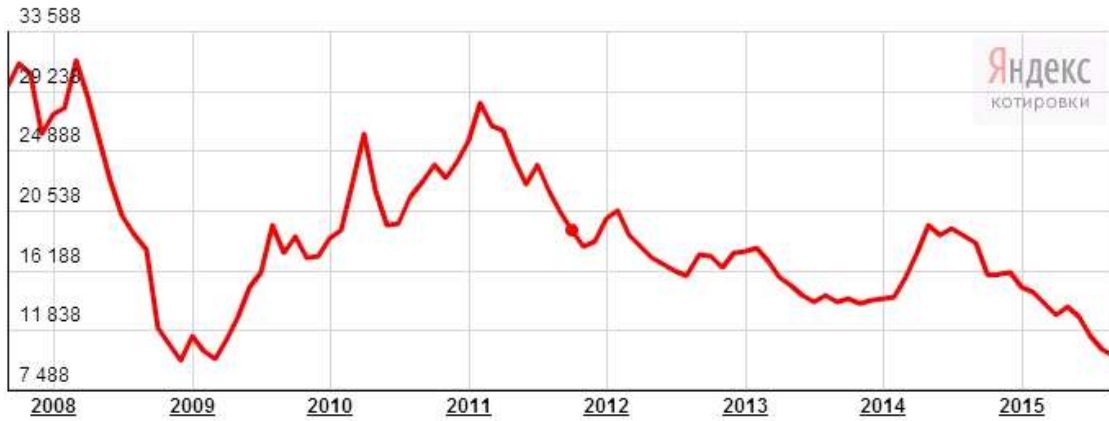


자료: Yandex.ru

- 2015년 9월 29일 기준 니켈 가격은 톤당 9,850달러로 2008년 3월의 3만 1,412달러 대비 약 1/3 이상 하락

<그림 II-3> 니켈 가격 동향(2008~20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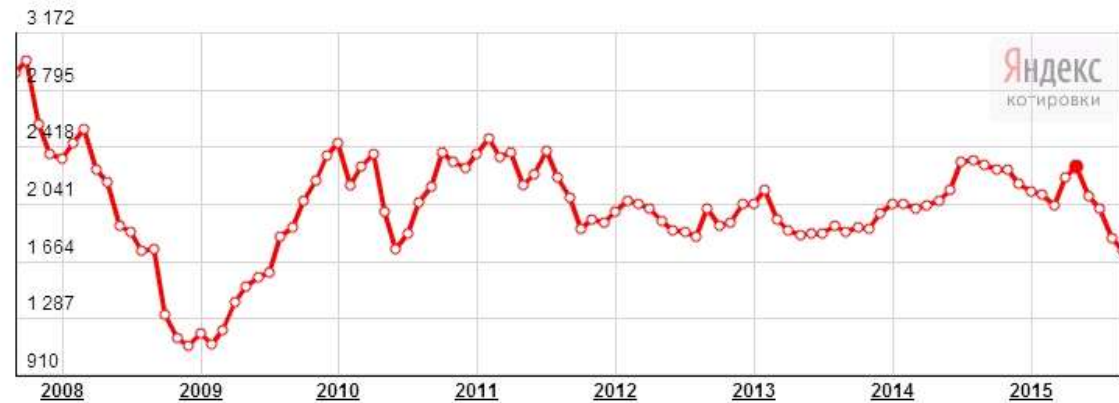
단위: LME, 달러/톤



- 2015년 9월 29일 기준 아연 가격은 톤당 1,632.5달러로 2008년 3월의 2,525달러 대비 약 35%가량 하락

<그림 II-4> 아연 가격 동향(2008~20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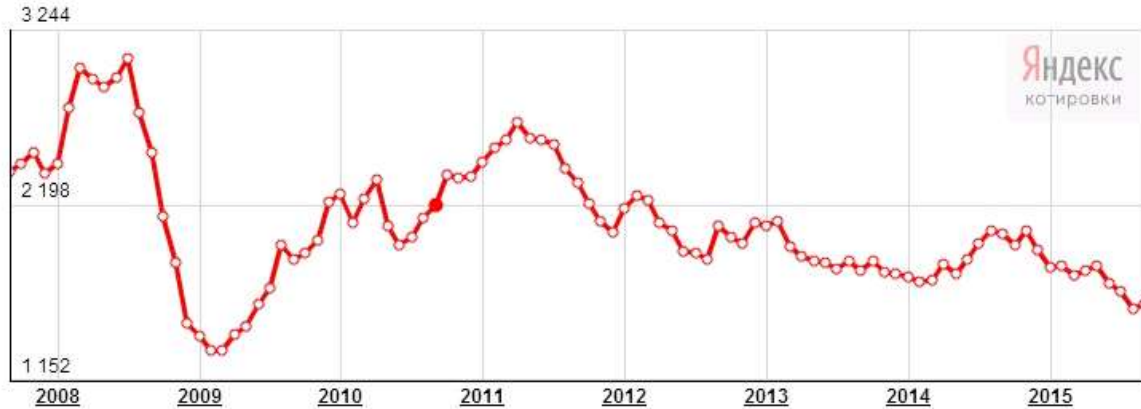
단위: LME, 달러/톤



- 2015년 9월 29일 기준 알루미늄 가격은 톤당 1,564달러로 2008년 6월의 3,069.6달러 대비 약 1/2로 하락

<그림 II-5> 알루미늄 가격 동향(2008~2015.9)

단위: LME,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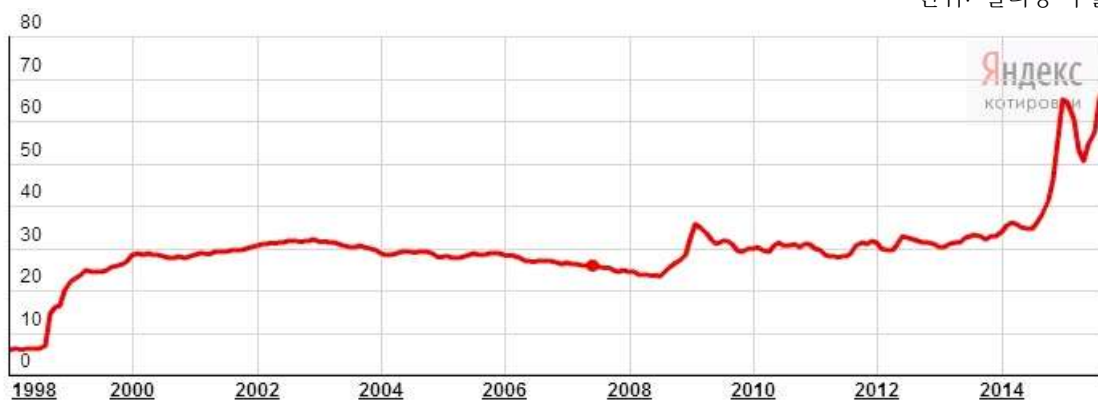


○ 루블화 가치 하락

- 2015년 9월 28일 현재 1달러당 66.099루블로 급격한 가치 하락이 시작된 2014년 6월말의 33.9루블에 비해 절반가까이 하락함.
- 루블화의 가치하락은 석유가격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14년 6월말 석유가격 급락과 함께 루블화 가치도 급락
- 2015년 9월 28일 기준, 러시아연방 주가(RTS) 지수는 779.27로 최고를 기록한 2008년 5월의 2,368.2에 비해 약 1/3로 하락함.

<그림 II-6> 루블화 가치 추이(1998~2015.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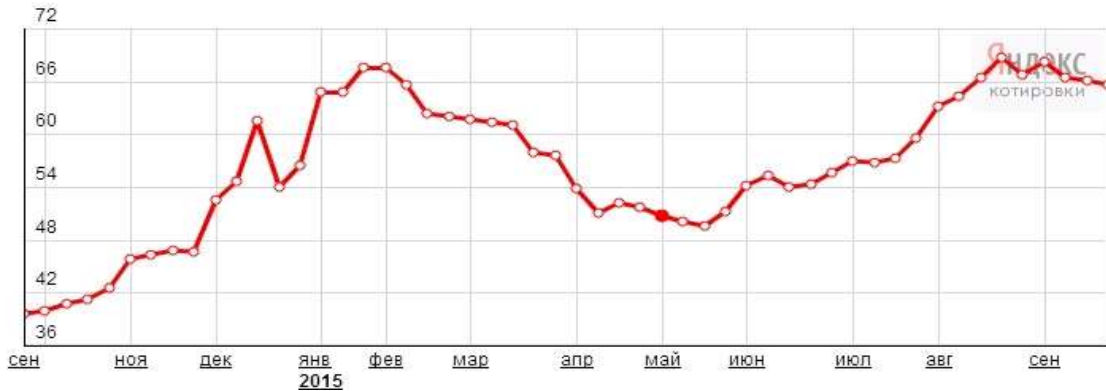
단위: 달러당 루블



자료: Yandex.ru

<그림 II -7> 최근 루블화 가치 동향(2014. 9~2015. 9)

단위: 달러당 루블



자료: Yandex.ru

2. 러시아의 산업정책과 지역경제정책

(1) 러시아의 산업정책

- 2012년 5월 7일 푸틴 대통령은 3기 대통령 취임식 당일에 러시아 경제 정책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일련의 대통령령을 발표. 러시아 정부는 동 대통령령에 따라 전략적 정책들을 책정해 나가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2012년 12월에 국가 프로그램 ‘2020년까지의 광공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이하 ‘광공업 발전 2020’)을 채택함.
 - 프로그램은 자동차산업을 포함하는 러시아의 광공업 분야 산업정책의 기본 계획을 담고 있음.
 - 러시아 정부의 광공업 정책 목표는 “광공업의 잠재적인 발전 분야에 있어 국가의 노력을 통합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러시아 광공업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에 걸쳐 체계적인 인센티브를 형성하는 것”임(광공업 발전 2020)

- 러시아의 광공업 정책은 광공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 해결에서부터 출발함.
 - 러시아 광공업 분야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구조적 불균형, 주요 설비의 노후화, 기술적 후진성, 낮은 노동생산성, 물자 및 에너지 고소비형 제품 생산, 하이테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최신 설비의 결여, 인재 부족 등임(광공업 발전 2020).

-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공업분야 주요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① 선택과 집중
 - ② 국가 기업을 통한 주요 산업분야 통제
 - ③ WTO 가입, 유라시아 연합 결성 등 새로운 여건에 따른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 ④ 정보 기술 등에 의한 세계 산업 및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한 대처

- 국가 프로그램의 ‘광공업 발전 2020’에서 제시한 전략적 목적은 ‘선진 공업 기술 개발에 필요한 경쟁력 육성’과 ‘균형 잡힌 광공업 정비’로 요약됨.
 - 즉, “세계 기술과의 통합에 바탕을 둔 혁신 제품의 새로운 시장 형성에 필요한 선진 공업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경쟁력 육성”과 “지속 가능하고 구조적으로 균형 잡힌 광공업 정비”임.

- 전략적 목적 달성과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광공업 발전 2020’에서 자동차 산업 등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산업들을 제시함.

-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산업의 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정책 결정 기준과 원칙으로는 ① 새로운 부문의 시장 창출 ② 전통적 부문 ③ 기술 규제 및 규격화와 계측의 통일성 확보 등 3가지를 들고 있음(광공업 발전 2020).

- ‘새로운 부문의 시장 창출’ 부문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은 현재는 미약하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되는 것들로 자동차산업을 비롯하여 복합재료, 희귀금속 및 희토류 금속, 경공업, 공예 등
- 투자 수요를 대상으로 한 제품 생산과 관련된 ‘전통적 부문’의 산업으로는 야금공업, 중기계 제조업, 수송기계 제조업, 에너지 기계 제조업, 공작기계 제조업, 목재산업, 농업기계 제조업과 식품 및 가공공업, 특수기계 제조, 화학공업 등
- ‘기술 규제 및 계측의 통일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WTO 규정 및 관세동맹국 및 CIS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간 표준을 제시함.

○ 구체적인 대상들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음.

- WTO의 무역의 기술적 장애에 관한 협정 조항에 적합한 규격 체계의 정비
- 관세동맹 참가국과 CIS를 포함한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된 국가 간 규격의 책정과 적용
- 국가규격 전체를 국제 규격에 합치하도록 갱신
- 경제 혁신부문 및 우선 분야의 규격 책정
- 국가 규격 책정 프로세스에 대한 실업계 동원
- 러시아 도량형 기준의 과학기술 수준 향상

○ 우선적 육성 산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표 II-2>와 같이 제시됨.

<표 II-2> 광공업 분야 우선적 육성 산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부문별 정책 기준	주요 과제
새로운 분야 시장 창출	- 이노베이션 인프라 정비 - 규제 관련 장벽 철폐와 혁신 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한 조건 평등화
국내 소비에 중점을 두는 광공업 부문	- 국고 이외 자금원의 비중 확대 촉진 - 각종 부문에 직접 제공하는 국가 자금의 단계적 삭감 - 국가지원 톨을 수요 촉진에 집중
투자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광공업 부문	- 광공업 해당 부문의 기술 기반 갱신 -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 러시아 및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 기업에 동등한 경쟁 조건 확보 -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촉진 - 기업 자본금에 대한 국가 지원의 단계적 삭감 등의 방법에 의한 경쟁 촉진 - 광공업 제 부문의 기술 발전 프로그램과 경제의 에너지 및 원료 부문의 소비에 있어 기술제품에 대한 수요 동향 조정
방위산업 복합단지의 발전	- 새로운 무기나 군사 기기를 개발·생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생산 잠재력 향상
기술 규제 및 규격화와 계측의 통일성 확보	- 러시아 연방에 유효한 기술규제 시스템 정비 - 국가 규격체계 개선과 러시아연방의 국가규격과 국제규격 합치 - 국민 생활수준과 경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측의 통일성 확보 - 세계적 수준의 계측 정밀도로부터 뒤지지 않는 러시아의 도량형 독립 유지

자료: 2012년 12월 27일 러시아 정부의 국가 프로그램 '2020년까지의 광공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의 제2장 1절 '국가 프로그램 시행 시 국가정책의 우선 사항'.

○ 러시아 연방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의 장기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상기 과제는 러시아 광공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기준으로, 그 과제를 해결하면 러시아 경제의 근대화 및 다양화 촉진과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상품의 국제 가격에 대한 국가경제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광공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이 실현되면 경제 인접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특히, "연구개발 분야 발전(분야별 전문 연구센터, 지역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등의 정비)과 신기술의 사업화,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시, 교육 제도의 발전,

서비스 부문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의 형성 등을 기대(<표 II-3> 참조)

<표 II-3> ‘광공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 시행의 예상 성과

부문별	예상 성과
국내소비에 중점을 두는 부문 (자동차산업)	- 소비 시장 대상 부문의 발전은 광공업 기업의 경쟁력 향상, 제품 생산의 종류 확대와 현저한 생산량 증대,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증가, 시장 조정 시스템의 개선, 생산 섹터 및 비생산 생태계 분야에서 숙련된 고급 노동력 수요 형성
새로운 혁신제품 개발 부문, 시장창출 부문 (복합재료, 희귀 금속, 희토류)	- 시범사업 단계의 기업, 시험생산 기업, 산업 기업, 엔지니어링 회사, 혁신제품·기술 이용 기술개발센터 등의 인프라 정비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생산 혁신과 연구센터의 국내 기능화 실현 - 새로운 부문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고도로 숙련된 기능을 지닌 인재를 필요로 하는 부문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
투자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부문 (기계제작, 공작 기계·공구 산업 등)	- 기술 기반의 근대화를 실시하고, 주요 설비 갱신을 위해 국고 이외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받아 생산 능력 확대 - 생산 및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세계 시장 진출의 잠재력 확대 - 선진 기술과 최신 장비의 사용에 따른 노동 생산성 향상
방위산업 복합단지 발전	- 잠재적인 이용 효율의 향상과 새로운 무기 및 군수기기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발전 - 연방 목적별 프로그램 ‘러시아 연방의 비축 화학병기 폐기’(1993년 1월 13일자 ‘화학무기의 개발·생산·저장 및 사용 금지와 폐기에 관한 조약’에 따른 러시아 연방의 국제적 의무)에서 정한 기한·지표·규모 수행 성과
기술규제 및 규격화와 계측의 통일성 확보	- 무역에서의 부당한 기술적 걸림돌 제거와 개발·도입 및 특허 취득의 기술향상(국제규격과 국가규격이 일치되는 수준은 2015년에 48%, 2020년에는 56.5%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국가규격 전반의 연간 갱신 비율은 세계 수준으로(10~12%) - 최신 국가규격 및 계측기기 이용에 따라 러시아의 상품 생산자는 제품의 수출을 5~7% 증대 - 러시아의 혁신제품 및 기술을 세계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러시아의 최신 도량형 잠재 인프라를 최대한 완벽하게 실현 - 신세대 도량형 기준 작성 - 러시아 경제에서 국가규격의 이용과 계측의 통일성 확보로 연간 GDP 2%씩 증진 기대

자료: 국가 프로그램 ‘2020년까지의 광공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2012년 12월 27일자)의 제2장 1절 ‘국가 프로그램 시행 시 국가정책의 우선 사항’ 자료 정리.

○ 러시아 광공업부문 개혁 프로그램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리스크는 <표 II-4>와 같음.

<표 II-4> 국가 프로그램 '광공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의 유형별 리스크

리스크 유형	주요 리스크
글로벌 리스크	- 침체 국면에 있는 세계경제로 인해 성장 속도와 투자 활동의 침체, 높은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원료 및 기술 가격의 국내외 시황 악화 가능성, 고이율 용자 등은 프로그램 시행에 악영향 가능
법제도 리스크	- 법률·규범상의 공백으로 연방 및 지방 행정기관의 활동은 물론 사업 이행자의 효과적 대응을 제약 - 기술 규제, 세제, 예산 관련 법률에 대한 법규범 문서의 개선이 필요
재정적 리스크	- 기업들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고 투자 회수 기간이 5~10년으로 길다는 문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용자를 안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생산 시스템의 수익률이 낮거나 적자 상태
산업재해, 환경 리스크	- 광공업분야 주요 설비의 노후 비율이 60% 정도에 달해 산업재해나 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음.
혁신 리스크	-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부족으로 기술 개발과 도입, 신제품 생산 지연 - 연방예산을 이용하여 획득한 지적 활동의 성과를 산업화 할 경우의 낮은 효율. 이는 국가 발주에 의한 과학기술 활동의 성과를 러시아 연방의 것으로 하는 현행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 - 러시아에 투자한 외국 생산자들이 러시아 내에서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을 하지 않고 있음. - 연구, 실험 설비, 열악한 시험생산 설비로 인한 기술적 리스크 존재 (혁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엔지니어링 기관의 과학연구·실험 기반의 경제적 근대화를 도모하는 시책이 필요)
상업적 리스크	- 제품 수요의 주기에 따라 리스크 발생 가능 - 상거래 의무 불이행, 전략적 파트너 선정이나 부품 및 재료 공급자 선택상의 리스크 - 시장 예측과 관련한 마케팅 실패, 신제품 시장 진입 지연에 따른 리스크
사회적 리스크	- 국가 프로그램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에 맞춘 관리와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광공업 구조 개혁과 근대화로 인해 특정 분야의 고용 감소와 '모노고로드' 등 특정 지역에서의 과도한 해직으로 사회적 긴장 발생 가능 - 유해 물질 생산, 노동자 피해보상 보험, 다양한 실업, 임금문제 등으로 유능한 러시아 기업의 노동자가 러시아 주재 외국기업으로 이동하는 리스크 발생 가능 (사회적 리스크는 클러스터 개발 지원에 따른 지역의 새로운 클러스터의 정비 및 기업의 조정, 인력 양성과 재교육 등으로 일부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자료: 국가 프로그램 '2020년까지의 광공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2012년 12월 27일자)의 제9장 '국가 프로그램 실시 리스크 분석과 리스크 관리 시책' 자료 정리.

- 푸틴 정부의 '장기 경제 전략'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20년까지 2,500만 명의 고도의 생산성을 동반하는 고용 기회 창출
 - 2018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총투자의 비율을 20%에서 27%까지 확대
 - 2018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첨단기술제품 생산 비율을 2011년 대비 1.3배 증진
 - 2018년까지 노동 생산성을 2011년 대비 1.5배 증진
 - 2018년까지 세계은행 'Doing Business' 랭킹에서 러시아의 순위를 120위에서 20위로 개선
- 경제 성장과 관련한 푸틴 정부의 중점적 대처 방안은 ① 투자환경 개선 ② 인재 육성 ③ 사회·산업 인프라 건설 등임.

(2) 러시아의 지역경제정책

- 러시아 연방정부의 지역정책은 2005년 이후 국내 경제 여건에 따라 지향하는 목표가 여러 차례 수정되어 옴.
 - 2005년에 책정된 '러시아연방 지역정책 개선의 개념'(구 개념)
 - 2008년 11월에 확정되어 승인된 '2020년까지의 러시아 연방 장기 사회·경제 발전 개념'(이하, '2020 전략')
 - 2008년부터 수정안으로 제시된 '2020년까지의 러시아 연방 지역정책 개선의 개념'(신개념)

- 2013년 3월에 승인된 국가 프로그램 '지역정책과 연방 관계' 등으로 수정되어 옴.

□ '구 개념'에서의 지역경제정책

- 2005년 6월에 지역발전성이 발표한 '러시아연방 지역정책 개선의 개념'('구 개념')에서는 지역정책 기본 방향으로 '집중적 발전 원칙'이 제시됨.
 - '구 개념'은 러시아연방 성립 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발표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지역정책 방향이었음.
- 주요 내용은 지역 발전 수준의 평준화 정책 대신 재정적, 행정 관리적, 인적 기타 자원을 '거점 지역'('성장 원동력')에 특별히 집중시켜 다른 지역으로 혁신을 전파한다는 것
 - 즉, 국가의 자원을 각 지역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평준화 정책' 대신 '거점 지역'에 자원을 집중하고, 그 성장을 통해 후진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가는 방식
- 그러나 '구 개념'에서의 지역정책으로는 결국 지역 간 격차를 더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들이 제기되고, 극동지역에서의 유럽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계속되고, 경제적 효율 문제와 더불어 안전보장 문제까지 제기되어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책이 다시 주요 과제로 제기됨.

□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장기 사회·경제 발전 개념'('2020 전략')에서의 지역경제정책

- 2008년 2월 '푸틴 플랜' 이라고 불리는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푸틴은 '구 개념'과 반대되는 '지역 간 평등'을 강조하는 지역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지역 정책과 관련한 핵심 내용은 러시아 지역 간에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역 균형 정책을 통한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과 시베리아·극동

및 남부 지역 등의 후진 지역에도 ‘사회·경제 발전의 새로운 센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임.

- 지역 균형에 입각한 ‘푸틴 플랜’은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장기 사회·경제 발전 개념’으로 정리되어 2008년 11월 17일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승인됨.
- ‘2020 전략’에서는 모든 연방구성주체(지방정부)를 차별 없이 균형 있게 개발시켜 가되, 각 연방구성주체 내에서 해당 연방주체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특정 구역의 발전을 촉진시켜 가는 것으로 변경됨.
- ‘2020년까지의 러시아 연방 장기 사회·경제 발전 개념’의 ‘지역 개발(제7장)’에는 “국가의 지역 정책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균형 잡힌 사회경제 발전, 지역의 사회경제 상태 및 생활의 질에 있어서의 지역 간 격차 축소를 목표로 한다”고 기술
- ‘구 개념’에서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선도하는 연방구성주체를 선별하여 중점 지원한다는 것이었는데 지역 간 균형 정책으로 교체
- 다만 ‘2020 전략’의 핵심 과제로 부각된 ‘혁신적 발전’을 각 지역에서 실현해 간다는 점과, 각 연방 구성 주체에 있어서의 ‘선도적 성장 구역’(зона опережающего роста)을 조성하여 발전시켜간다는 점이 새롭게 강조됨.
- 아울러, 각 지방 정부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의 동기를 부여하는 문제도 제기. 사회·경제 발전의 템포에 대해 각 연방 구성 주체·지방자치단체 정부의 활동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어 비교함으로써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장려해 간다는 것임.
-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지역정책 개선의 개념’(‘신개념’)에서의 지역경제 정책
- ‘신개념’은 별도의 법안 형식으로 채택되지 않고 2013년 3월에 승인된 국가 프로그램 ‘지역정책과 연방 관계’에 반영. 기본 내용들은 이미 2008년부터 실

행에 옮겨지기 시작.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 정책의 기본 방향은 '2020 개발 전략'과 동일하다. 지역정책의 목적은 '연방구성주체의 균형 잡힌 사회·경제발전, 각 지역의 사회·경제 상태와 생활의 질에 있어서의 지역 간 격차 축소'로 제시
- 둘째, '기존 산업 기반에 입각한 제 연방구성주체의 발전을 위해 인프라 건설 관련 투자는 국가가 지원하고', 연방구성주체의 발전은 '경쟁 우위를 고려한다'는 전략을 세움.
 - 수송·에너지·통신·보건·교육·과학·문화·대외경제활동의 영역 및 기타 분야에 '연방적 인프라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방적 인프라'는 '지역경제 발전의 혁신적 특성'과 '유망한 경제 영역'을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건설
 - 아울러 '2020 개발 전략'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선도적 경제발전 구역'을 각각의 연방 구성 주체에 창설하는 계획을 세움. '각각의 연방 구성 주체에 향후 유망한 영토적·산업적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통일적인 기술 공정을 형성'한다는 것임.
 - '선도적 경제발전 구역' 조성의 기초로는 '혁신적 경제성장 센터'가 제시됨. 동 센터는 '현대적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인적·기술적 잠재력을 집중시키는 특화 영역'으로 상정¹⁾
 -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러시아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형별 '경제특구' 대상과 유사
- 셋째, 연방과 연방구성주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1) '센터'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은 곳들임. ① 선진적인 과학기술이나 교육·과학이 발전하고, 비즈니스·서비스 분야도 발달한 '대규모 도시 집적지' ② 도시화된 지역으로 우선적 경제 분야에서 선진적인 생산을 하거나 미개척 지역이라도 고도의 자원 가공을 하는 '영토적 생산 클러스터' ③ 독특한 자연 조건이나 문화유산, 전통 문화를 가지는 '관광 레크리에이션 구역' ④ '대규모 수송 로지스틱 거점과 생산 콤플렉스' 등을 제시하고 있음. 각각의 연방 구성 주체의 '선도적 경제발전 구역'과 '혁신적 경제성장 센터'는 2009년 판 '신개념' 부속 문서에 지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있었지만 2011년 판에서는 권역별 세부 계획과 함께 삭제

간 재정적 격차 축소와 각각의 재정 안정화 및 재정적 자립성 향상, 과세 시스템 합리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

○ 러시아 지역정책에서 중요한 변화인 정책 평가를 통한 상벌 시스템 도입

- 각 연방구성주체·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경제·사회 발전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지방 당국의 정책 효율성과 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 강화

○ 넷째, 지방 자립권을 확대하되 재정적인 방법으로 통제

□ 2013년 3월에 승인된 국가 프로그램 ‘지역정책과 연방 관계’에서의 지역경제 정책

○ 2012년 5월 7일, 푸틴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당일 사회경제 정책과 관련된 일련의 대통령령에 서명

- 동 대통령령은 세부 일정까지 정해놓고 실시 상황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
- 동 대통령령에는 지역경제정책에 관한 것은 없지만 ‘2020 개발 전략’과 ‘신개념’ 등 당시까지의 기본적인 지역정책 방향과 연관된 정책들이 여러 곳에 포함됨.
- 예를 들어, ‘장기 국가경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령에서는 ‘신개념’에 언급된 ‘연방적 인프라 배치’와 관련 있는 장거리 수송 교통로 확보와 시베리아 및 극동의 사회경제 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정책 책정을 지시
- ‘국가 운영 시스템 개선의 주요 방침에 대한’ 대통령령에서는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권력 기관의 정보 공개, 행정 기관 간 예산 조정 문제 등을 언급²⁾

2) 김학기, “푸틴 신정부, 본격적 경제 혁신 프로그램 착수”, 「KIET 산업경제」, 2012. 7, p. 73.
<http://kremlin.ru>

- 상기 대통령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 정책 관련 법안은 약 10개월 뒤 ‘국가 프로그램’ 형태로 구체화됨.³⁾
- 2013년 3월에 승인된 국가프로그램 ‘지역정책과 연방 관계’는 현재의 러시아 연방 지역정책의 표준처럼 자리잡고 있음.⁴⁾
 - 동 국가프로그램은 ‘신개념’ 등 당시까지 정리되어 오던 지역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담고 있음.⁵⁾
 - 동 국가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목적도 ‘러시아 연방주체의 균형 발전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프로그램의 구체적 과제로 ‘경제적 잠재력을 확대할 수

- 3) 러시아연방 ‘국가 프로그램’ 목록은 러시아연방 정부령(2010년 11월 11일자 제 1950-r호)으로 승인되었음. 연방 정부가 채택해야 할 국가 프로그램 목록을 발표한 것인데 각각의 국가 프로그램은 5개의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룹별 프로그램 수는 2014년 4월 말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① 새로운 생활의 질(Новое качество жизни) 13개 ② 혁신적 발전 및 경제 근대화(Инновационное развитие и модернизация экономики) 17개 ③ 국가 안전 보장(Обеспеч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2개 ④ 균형 잡힌 지역 발전(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6개 ⑤ 효율적 국가(Эффектив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4개 등 모두 42개의 국가 프로그램이 있음. 국가 프로그램은 지금도 상기 5개 분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13년 말까지 목록이 4차례 수정되었음. ‘균형 잡힌 지역 발전’ 그룹의 경우 ‘지역 정책 및 연방 관계’,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2025년까지의 북 카프카스 연방관구 발전’, ‘2014년 소치올림픽의 조직 및 개최 및 소치시 마운틴리조트 발전’ 등 4개의 국가 프로그램이 상정되어 있었지만 국가 프로그램 책정이 늦어져 소치 관련 프로그램은 제외되었다. 그 대신 2012년 말에 ‘2020년까지의 칼리닌그라드주의 사회경제 발전’, ‘지역 및 지방 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적 책임적 운용과 러시아 연방 구성 주체 예산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환경 정비’(2012년 12월 15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지령 제 2394-r)가 추가되었고, 2013년 7월에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북극권 사회경제 발전’(2013년 7월 10일자 러시아 연방정부령 제 1181-r)이 리스트에 추가되었음. 북극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은 아직 승인되지 않고 책정 중에 있음. 자료: <http://programs.gov.ru/Portal/>
- 4) 러시아연방정부가 2013년 3월 26일 승인(N 435-p)한 러시아연방 국가 프로그램 ‘지역정책과 연방 관계’(동 국가 프로그램은 2014년 4월 15일자 결정 N 307에 의해 정지되었으나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는 않았음.) 자료: <http://programs.gov.ru/Portal/programs/list>, <http://www.gosprogrammy.gov.ru/Main/Start>
- 5) 국가프로그램 ‘지역정책과 연방 관계’는 ① ‘연방 관계 및 지역의 발전 관리 메커니즘 개선’ ② ‘러시아 민족의 민족문화 발전과 단일성 강화’ ③ ‘해외 거주 동포의 러시아 연방으로의 자발적 재정착 지원’ 등 3개의 부속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속프로그램의 시행 기간은 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2013~2020년까지임. 동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산은 약 1,548억 루블(프로그램 ①은 947.5억 루블 ②는 380.4억 루블 ③은 220.3억 루블)로 2020년까지 연도별로 분할하여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동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음. 관련 경제발전 지표(주민의 실질 가처분 소득, 고정자산 투자액, 러시아 연방주체 통합예산의 과세 및 비과세 수입액)의 차별화 축소(가장 큰 연방주체 10개와 가장 작은 연방주체 10개의 평가지표 차이를 1.35에서 1.1로 축소); 자신을 러시아인 또는 친러시아인으로 간주하는 러시아연방 주민의 비율을 74%까지 향상; 다른 민족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지니는 수준을 85%까지 향상; 민족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 비율을 65%까지 향상; 모든 러시아 연방주체에서의 시민 통일성 및 민족 간 관계의 조화를 위한 지역 프로그램 구현; 해외 거주 동포와 그 가족의 러시아 연방으로의 자발적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 증대 및 연방 이주청 등록자 수 5만 5,000명으로 확대. 자료: 러시아연방 국가 프로그램 ‘지역정책과 연방 관계’.

있도록 연방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자극' 등을 명시⁶⁾

6) 프로그램 시행의 주요 방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됨.

- 전국 레벨의 종합적 투자 프로젝트의 실시
 - 민관 파트너십 메커니즘을 활용한 우선적 투자 프로젝트의 지원에 의한 러시아 연방구성주체의 사회경제 발전 추진
 - 국경 인접지역 간 협력 환경 정비
 - 국가 지역정책 시행 지원
 -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국가권력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자체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러시아 국민 통합 강화 및 민족 간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민족 정책 실시
 - 러시아 연방 제 민족의 민족 문화 발전 지원
 - 러시아 연방 북방 및 시베리아의 소수 선주민족의 경제 사회적 발전 지원
 - 재외 동포의 러시아 연방으로의 자주적 이주 지원 등임.
- 또한, 구체적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됨.
- 독자적인 경제적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러시아 연방주체(지역) 국가 권력 기관과 지방 자치 기관들을 자극
 - 러시아 연방주체에 대한 러시아연방 권한(대표단) 전달 메커니즘 및 여건 등 연방 관계 및 지방 자치제 관계의 개선
 - 러시아연방 다민족의 민족 단결 강화
 - 자발적 이주 동포의 러시아연방 영주 정착 절차 촉진 및 조직
 -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촉진
 - 우선순위 지역에서의 인구문제 해결. 자료: 러시아연방 국가 프로그램 '지역정책과 연방 관계'

3. 러시아의 경제특구 운영과 성과

- 러시아의 경제특구 정책은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 문제와 지역경제정책과도 결부된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음.
 - 러시아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 산업 진흥책의 하나인 경제특구 정책은 구소련 해체 직후부터 시작
 - 경제특구 정책은 20년 이상 오래 지속되었지만 진행 과정에서 설정과 시행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함.

(1) 경제특구의 종류

- 2000년대의 경제특구는 2005년 7월 22일자 연방 특별법 ‘러시아연방에서의 경제 특구 원칙에 대해’에 따라 설치됨.
 - 1990년대의 경제특구는 충분한 법적 기반 없이 설정
- 2005년의 경제특구법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특구 설치의 주요 목표는 산업 활동 다양화, 경제발전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인프라 정비와 이노베이션 활동 촉진 등임.
- 러시아 경제특구 형태는 4개로 구분되어 있고 형태별 특구의 목적과 과제는 다음과 같음.
 - ① 공업-생산특구: 제조업 및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 촉진
 - ② 기술-혁신특구: 신제품 생산, 수입대체 생산의 발전 촉진
 - ③ 관광·레크리에이션특구: 관광 자원, 휴양·보건 시설의 정비·발전
 - ④ 항만특구: 항구 및 공항의 근대화와 발전
- 2006년 6월 경제특구법의 개정을 통해 관광·레크리에이션특구를 도입하게 되었고, 2007년 10월의 2번째 개정으로 항만특구도 도입됨.

- 이러한 개정은 주요 제조업 생산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고 인프라 정비도 되어 있지 않지만 인적 자원이나 관광 자원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특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

○ 러시아의 경제특구도 투자나 사업 활동에 유리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⁷⁾

- 경제특구의 형태는 구분되어 있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를 포함하여 해당 특구의 목적에 적합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특정 산업을 육성하여 산업 전반에 효과를 파급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 2012년부터는 특구 개발 및 운영 업무가 민간 기업에도 개방되었고,⁸⁾ 운영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여러 특구의 집합체인 ‘클러스터’형 특구도 도입됨.

- 2011년 10월에 설치된 북코카서스지역의 관광·레크리에이션특구는 ‘관광 클러스터 특구’로 지정되었고, 지정된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개발과 운영을 맡도록 함.
- 특구 설치 기간은 항만특구가 49년이었고 나머지는 20년이었지만 2012년부터는 유형에 상관없이 49년까지로 연장 통일됨.

7) 경제특구에 등록된 기업(입주자)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음. ① 특구 관리 기관이 입주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하고, 기업과 행정당국간의 중개자 역할도 수행 ② 공공 기금으로 정비되는 「기술, 교통·운수, 이노베이션 활동 등과 관련되는 인프라 및 사회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 ③ 특별 과세와 관세 ④ 보다 저렴한 공업용지, 오피스 또는 공간 임대료 등. 과세 특혜와 관련하여 법인세는 일반 기업에 비해 4%포인트 낮은 16%, 자산세(2.2%)와 토지세(1.5%)는 면세, 26%인 사회 통일세의 세율은 기술도입특구에 한해서 14%를 부과하는 혜택을 제공. 그러나 경제특구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의 등기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어 과세 혜택은 크지 않음. 수출 목적의 기업이 특구에 위치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즉, 경제특구에 등록된 기업이 수출 목적의 생산 활동을 하는 경우 생산 활동에 이용하는 설비, 부품, 원료 등에 부과되는 수입관세 혜택과 더불어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 관세지역(보세지역)의 특해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연방이나 지방 당국의 법률이 기업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경제특구 내 기업이 특구 내 사업 활동을 계속하면 변경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경제특구 내 사업의 안정적 활동도 보장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 정부는 1990년대 경제특구의 특권의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등록 기업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연방 경제특구 관리청(РосОЭЗ)’을 설립하기도 함. 그러나 동 관리청은 2009년 말에 폐지. 특구 수가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고 경제특구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제특구 관리청의 역할이 크지 않았기 때문

8) 그 이전에는 정부가 100% 출자한 기업과 특구가 있는 지방 정부가 출자한 기업이 특구의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함. 2011년 법 개정으로 특구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은 ① 정부가 전액 출자한 기업 ② 동 기업이 출자하는 사업자 ③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 등이며, 북 코카서스 관광 클러스터의 경우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경제특구’사, 동 회사의 대형 은행 스베르반크, 대외경제은행 등 3자가 출자하는 회사 ‘북코카서스 리조트’에 의해 운영

- 공업-생산 특구의 면적 상한도 20km²에서 40km²로 늘어났고,⁹⁾ 세제 혜택도 확대됨.¹⁰⁾
- 기술-혁신특구와 관광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도 강화됨.¹¹⁾ 특구 입주자는 특구내의 정비된 교통·전기·수도 등의 인프라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경제특구의 성과와 운영 방식의 변화

- 러시아연방의 경제특구는 산업 정책의 수단으로서 나타난 것이며, 당초 목적은 공업생산과 기술도입이었지만 점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특구를 활용하는 정책으로 확대됨.
 -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산업구조 고도화, 이노베이션을 도입할 수 있는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 기업의 연구 개발 기능의 강화가 주요 목적이었음.
 - 고부가 가치 산업의 발전 촉진과 국내 산업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함.
- 러시아에서의 외국 자본 유치 기능은 경제특구보다는 다른 정책들에 의존
 -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출자,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와의 특별 협의(예, 북극개발 관련) 및 자원 개발 관련 합작 기업 설립, 생산의 현지화를 조건으로 하는 우대제도 적용(예,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의 공업 어셈블리 정책) 등의 정책들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경제특구를 메드베제후 대통령이 주창해온 러시아 경제의 ‘근대화 과제’를

9) 기존 공업-생산특구 중 ‘에라부가’가 19.97km²로 최대 크기

10) 공업-생산특구 입주 기업은 입주 후 5~10년 간 기업이윤세(법인세 상당) 감세(보통 20% 중 4~4.5%), 재산세, 토지세, 운송세 면세와 설비기기·원료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1) 기술-혁신특구 입주 기업은 기업이윤세 중 연방 예산 부분(2%)을 2012년부터 2017년 말까지 면제받고, 관광클러스터 입주 기업은 2022년 말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됨.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경제특구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은 미미한 성과에 그쳤고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특구는 공업생산 특구 일부에 불과함.
- 극동개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2014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극동의 새로운 경제특구라 할 수 있는 '선도개발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핵심 과제가 되고 있음.

<표 II -5> 경제특구 기능에 관한 정량적 절대평가(1)

단위: 2013. 1.1 누계 기준, 백만 루블

특구 형태	특구 소속 지역	입주 기업 수, 개		외국인 투자 기업 수, 개	자격 상실 기업 수, 개	고용, 창출자 수, 명		입주 기업 투자 총액			민간 기업 투자액	매출액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그중 자본 투자		
공업-생산 특구	타타르공화국	23	33	17	1	3,615	2,527	27,892	37,816	30,722	217	30,464
	리페츠크주	24	22	7	2	2,000	2,041	25,000	20,500	18,731	0	13,763
	사마라주	7	7	5	0	310	30	2,055	45	17	0	1,386
	스베르들롭스크주	3	3	0	0	52	5	3	2.6	2.6	0	0
	소계	57	65	29	3	5,977	4,603	54,950	58,364	49,473	217	45,613
기술-혁신 특구	상트페테르부르크	40	33	2	15	375	435	2,734	2,337	1,846	36	2,607
	모스크바	50	35	4	5	1,100	794	4,000	2,162	1,170	1	5,563
	모스크바주	110	88	5	9	1,200	1,036	3,251	2,068	1,787	0	467
	톰스크시	65	58	13	10	1,100	1,085	3,500	3,708	1,899	1	2,514
	소계	265	214	24	39	3,775	3,350	13,485	10,275	6,701	39	11,151
관광-레크리에이션 특구	알타이지방	18	17	0	0	70	36	1,341	465	445	0	50
	알타이공화국	13	8	0	3	268	57	2,800	66	10	0	0
	부랴티야공화국	15	12	0	0	1,000	8	2,504	84	72	0	0
	이르쿠츠크주	-	2	0	0	-	3	-	46	30	0	0
	연해지방	-	0	0	0	-	0	-	0	0	0	0
	북카프카즈 연방 관구, 크라스노다르 지방, 아디게야공화국 관광 클러스터	-	0	0	0	-	0	-	0	0	0	0
	소계	46	39	0	3	1,338	104	6,645	662	557	0	50
항만 특구	울리야놉스크주	5	5	1	0	155	12	1,101	0.24	0	0	0
	무르만스크주	-	-	0	0	-	0	-	0	-	0	0
	하바롭스크주	-	-	0	0	-	0	-	0	-	0	0
	소계	5	5	1	0	155	12	1,101	0.24	0	0	0
총 계		373	323	54	45	11,245	8,069	76,181	69,301	56,730	256	56,814

자료: 'Минэконом.

주: '계획'에는 입주자의 생산량 포함. 관광클러스터의 인프라 건설 부문 실제 투입액에는 특구 지정 초기 투입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격 상실 기업'에는 입주 자격을 상실한 상업 기관 및 사기업 수를 포함한 수. '사기업 투자액'은 입주 상업기관 및 사기업 투자액 합계.

<표 II -6> 경제특구 기능에 관한 정량적 절대평가(2)
(2013. 1. 1 누계 기준)

단위: 백만 루블

특구 형태	특구 소속 지역	엔지니어링·운송·공공시설·이노베이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예산 투입액		입주 기업이 납부한 국세 및 지방세		입주 기업이 납부한 관세액	입주 기업이 받은 각종 세 및 면제액	특구 운영성 효율성 평가, 평균 점수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공업 - 생산 특구	타타르공화국	-	18,674	3,730	-	3,540	2,807	4.7
	리페츠크주	-	7,617	550	-	425	2,816	4.7
	사마라주	-	510	200	-	12	4.6	2.3
	스베르들롭스크주	-	228	-	-	0	0	3.3
	소계	-	27,028	4,480	-	3,978	5,627	4.7
기술 - 혁신 특구	상트페테르부르크시	-	7,131	22	-	380	52	4.3
	모스크바	-	20,037	825	-	0	140	3.7
	모스크바주	-	10,159	608	-	5	93	3.7
	톰스크시	-	11,397	380	-	9	551	4.7
	소계	-	48,724	1,835	-	394	836	4.0
관광·레크리에이션 특구	알타이지방	-	3,971	236	-	0	11	3.3
	알타이공화국	-	2,537	18	-	0	0	1.7
	부랴티야공화국	-	3,865	-	-	0	0	2.0
	이르쿠츠크주	-	108	-	-	0	0	-
	연해지방	-	24	-	-	0	0	-
	북카프카즈 연방관구, 크라스노다르지방, 아디게야공화국 관광 클러스터	-	14,841	-	-	0	0	-
소계	-	10,505	254	-	0	11	2.0	
항만특구	울리야놉스크주	-	55	-	-	0	0	2.3
	무르만스크주	0	-	-	-	0	0	-
	하바롭스크주	0	34	-	-	0	0	-
	소계	-	55	-	-	0	0	2.3
총 계		-	86,312	6,569	-	4,372	6,474	4.3

자료: 'Минэконом.

4. 생산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

(1) 수입대체와 현지생산 확대 정책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주도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 속에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핵심 대응책은 수입대체 정책임.
- 정부 조달 분야와 중장비, 제약설비, 농업 분야에서 수입대체 정책을 곧바로 착수 예정
 - 소프트웨어, 전자, 식품가공, 제약·의료 분야 역시 수입대체가 강화될 분야

- 수입대체 정책의 수단으로는 혁신 활동 촉진과 더불어 수입대체 대상 품목의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등을 검토
- 현지생산 기업에 대한 지원과 우대 또한 강화 예정

<표 II-7> 러시아 정부의 수입대체 대상 분야와 추진 수단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	수입대체 추진 수단
○ 정부 조달 · 정부가 지원하는 투자 프로젝트 · 공기업이 수행하는 투자 프로젝트	○ 국내 산업 생산 혁신 활동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의 발동 ○ 국내 산업 생산 촉진을 위한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의 경감
○ 수입대체 정책 착수 산업 분야 · 중장비 · 제약 설비 · 농업	
○ 향후 수입대체 정책이 강화될 산업 분야 · 소프트웨어 · 전자 산업 · 식품 가공 · 제약·의료	

자료: 독려외국무역회의소.

<표 II-8> 수입대체 정책의 지원 대상과 혜택

수입대체 정책의 지원 대상 기업	가능한 지원 · 우대 조치
- 과세 거주자 - 고용 기회 제공자 - 국내 생산 기업 - 투자 기업 - 새로운 기술의 도입 기관	- 할당량 제공 - 금리 보조 - 특정 보조금 - 자산 가액의 우대 인증 - 정부·준정부 조달에 있어서 우대 - 인프라 정비 지원

자료: 앞의 표와 같음.

- 러시아 정부는 각종 기계 분야의 수입대체를 확대할 목적임.
 - 특히, 전자기기, 농업용 기계, 공작기계 등에서 수입대체 폭을 크게 확대할 예정
 - 2020년 기준으로 농업용 기계 수입의존도는 24%까지, 전자기기, 제약설비 등은 50% 이하로 감축 예정

<표 II-9> 러시아 정부의 주요 산업별 수입 의존도 감축 목표

단위: %

산업 분야	2013	2017	2020	2013~2020 감축 폭
중기, 중장비	60	55	52	8
공작 기계	88	70	58	30
전자기기	82	64	44	38
제약 설비	73	60	50	23
의료기기	81	72	60	21
식품가공 설비	87	76	68	19
농업용 기계	56	36	24	32

자료: 앞의 표와 같음.

(2) 러시아의 산업단지 개발

- 산업정책 및 지역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러시아내 산업단지 네트워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러시아의 기업 입지 환경은 공업단지 정비를 중심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 공업단지 협회는 2010년의 창설 이래 러시아 공업단지 정비 사업을 진행¹²⁾
 - 러시아 공업단지 연차 국제 포럼의 개최 (2014년 7월)
 - 공업단지의 계획·건설·운영에 관한 세미나의 개최 (2014년 9월)
 - 공업단지의 계획·건설에 관한 표준 가이드북의 작성(2014년)
 - 극동에 있어서의 공업단지 정비에 관한 연방 극동 개발성과의 대화(2015년 4월)
 - 「러시아 공업단지 편람」 발행(2014년)
- 일본무역진흥회의 재외 일본계 제조업 기업실태조사(2014년)에 의하면, 러시

12) 자료: 러시아 산업단지 협회(<http://www.indparks.ru>).

아 내 일본계 기업의 현지 생산 관련 기본적 환경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음.

- 러시아 공업단지 협회는 러시아에 있어서의 ‘신공업화’ 대응책의 중요 역할 담당

<표 II-10> 러시아 산업단지 협회 개요

러시아 산업단지 협회	신설된 일본·아시아 태평양 지구 담당 고문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에 경제 단체 ‘실업 러시아’, 칼루가 주정부 등의 주도로 창설. 젊은 세대가 추진 - 100여 개 법인회원, 70여 곳의 공업단지, 40개의 지방 등을 커버 - 러시아에 있어서 근대적 국제적인 공업단지의 정비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 - 국가에 의한 산업정책 연방법이나 공업단지 국가 표준제도 정비에 대한 협력과 제언, 공업단지의 인증 - 회원 상호간 네트워킹과 협력 증진에 의한 각 공업단지의 정비, 발전 - 입주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진출 지원 등을 통한 각 공업단지에 기업 유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기업에 대해 매력 있는 공업단지 만들기 제언 - 러시아 공업단지의 정비·발전 및 러시아 공업단지 협회의 활동에 관한 외국 기업에의 정보 제공 - 외국 측으로부터 러시아 측의 기업 입지 환경 개선에의 희망 전달과 피드백 - 공업단지에 대한 진출 검토나 과제 해결에 관한 상담 창구 - 쌍방의 상호 이해 촉진에 의한 각 공업단지의 개별 유치 프로젝트, 외국 기업의 진출 프로젝트 지원

자료: 大橋 巖(ロシア工工業団地協会 顧問, 日本・アジア太平洋地区担当), ‘ロシアにおける企業立地・現地生産環境の整備 - 制裁下で進む輸入代替と現地生産促進の取り組み’, 2015. 4.

- 러시아 산업단지 협회는 러시아의 기업 입지 환경 개선 관련 각종 지원 사업 전개
 - 러시아에서의 생산 입지, 입지처의 선정, 공장 건설의 초기조사에 관한 상담
 - 입지처(공업단지, 브라운 필드 등)의 비교 검토, 사업의 적성 분석
 - 러시아에 있어서의 생산 입지의 프로세스 관리의 상담
 - 입지처의 지방 정부, 개발 공사, 투자 유치 기관, 공업단지 개발 회사 등과의 조정 상담

- 러시아에 있어서의 생산 입지, 공장 건설에 관한 기준·인증, 당국 감사 등의 상담
- 생산 입지·현지화에 관한 러시아 측의 공적 보조·지원책의 확보 관련 상담

<표 II-11> 러시아연방 산업단지 개요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산업단지 수 (개)	총수	80	101	120
	운영 중	36	45	72
	조성 중	44	56	48
러시아 산업단지협회 참여 산업단지 수	개	48	57	77
인증 받은 산업단지 수	개	18	24	36
운영형태	그린필드	58	75	87
	브라운필드	22	26	33
소유 형태	국영	30	40	55
	민영	50	61	65
산업단지 조성 지역 수	개	33	40	42
연방관구별 산업단지 수	중앙	40	47	51
	북서	13	19	20
	불가연안	15	21	28
	북카프카즈	3	3	5
	남부	5	4	3
	우랄	2	2	5
	시베리아	2	4	6
	극동	0	1	2

자료: 러시아 산업단지협회, 2015년도 산업단지 개요, 2015 (Ассоциация индустриальных парков, Отраслевой обзор ИНДУСТРИАЛЬНЫЕ ПАРКИ РОССИИ, Выпуск третий, 2015.)

<표 II-12> 운영형태별 산업단지의 개요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평균면적, ha	419	103
평균 조성 면적, 평방미터		153,622
평균 입주 기업 수	14	37
평균 일자리 수	1,117	1,349

자료: 위와 같음.

<표 II-13> 러시아 산업단지의 투자 활동 개요

신용 조달 총액	157억 루블
산업단지 인프라 분야 총투자 (55개 산업단지 자료)	1,190억 루블 (2014년 178억 루블)
생산분야 투자 유치 총액 (42개 산업단지 자료)	5,370억 루블 (2014년 1,240억 루블)
인프라 평균 투자액 (35개 그린필드 자료)	570만 루블/ ha
인프라 : 생산 투자비	1 : 7.1 루블
생산분야 평균 투자 유치 (27개 그린필드 자료)	3,100만 루블 / ha
산업단지 면적 사용	2014년 53%(17,484ha) 2015년 50%(21,015ha)

자료: 위와 같음.

<표 II-14> 러시아 산업단지 개요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역 총수	개	33	40	42
입주 기업 총수	개	958	1,153	1,674
운영 중인 공업파크 총면적	ha	16,315	17,484	21,015
조성된 공업파크 총면적	ha	10,183	13,682	12,112
생산 부지로 임대된 총면적	평방미터	3,410,644	3,956,095	40,611,832
생성 일자리 수	개	56,773	70,943	83,368
토지 평균 판매 가격	백만 루블		10.7	11.3
임대 공간의 평균 가격	평방미터당 연간, 루블	1,800	2,000	2,000
단지 평균 점유율	%	59	53	50

자료: 위와 같음.

-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중에서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운영 중인 산업단지는 하바롭스크지방의 2개 산업단지뿐임.

<표 II-15> 하바롭스크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 이름	아반가르드 (Авангард)	달리에네르고마쉬 (Дальэнергомаш)
운영 여부	운영 중	운영 중
러시아 산업단지협회 인증 여부	인증	인증
운영 형태	그린필드	브라운필드
산업단지 면적	47 ha	20.4ha
전력 용량	11.5 Mwt	7.9 Mwt
가스공급 여부	공급 중	공급 중
철로 연결 여부	연결	x
토지 판매 여부	판매	x
토지 임대	임대	x
건물 임대	x	임대
고객 맞춤형 물류센터 개발	0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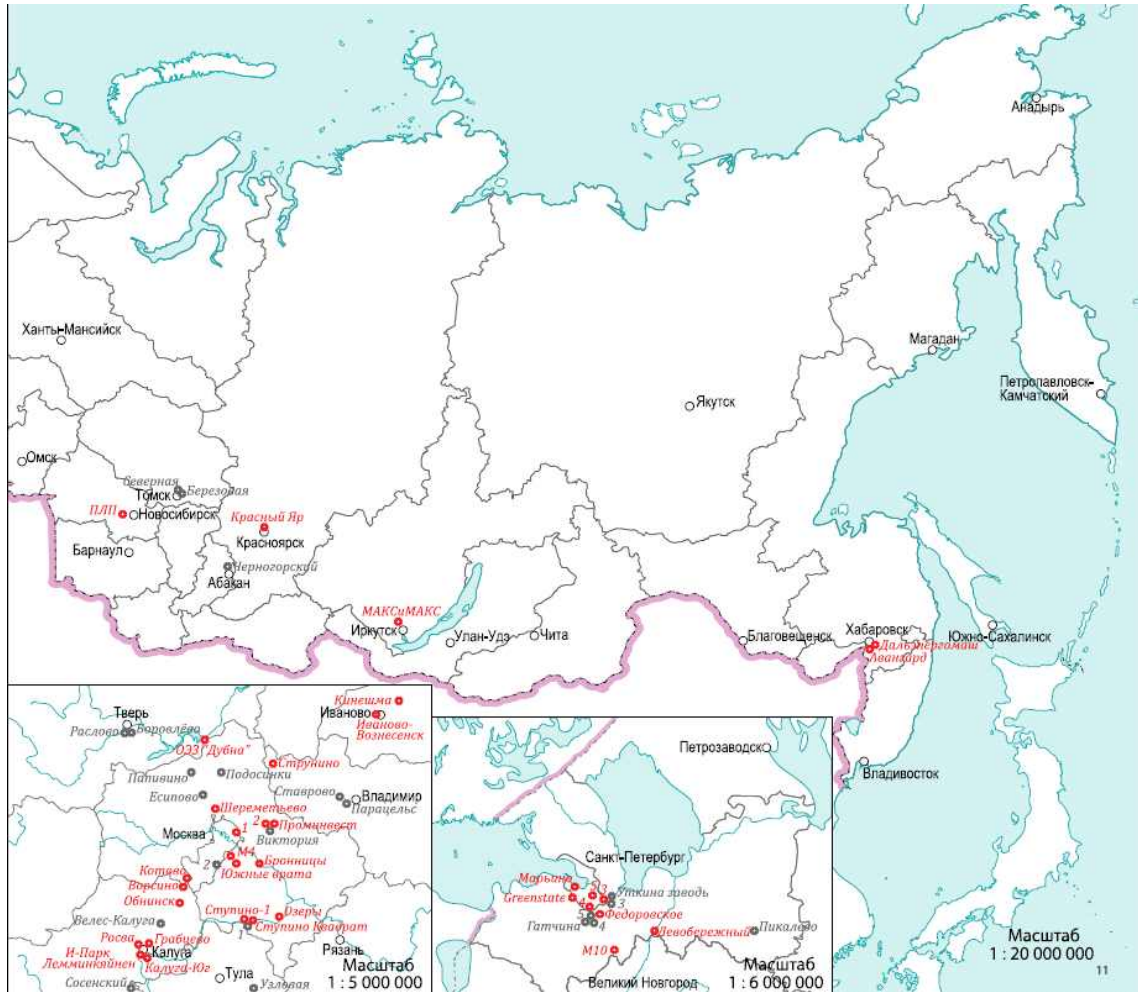
자료: 위와 같음.

<그림 II -8> 러시아연방 산업단지 위치도(1)
(2015년 현재)



자료: 위와 같음.

<그림 II -9> 러시아연방 산업단지 위치도(2)



자료: 위와 같음.

제Ⅲ장. 최근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정책과 시사점

1. 최근 러시아 극동 개발 전략

-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정책은 극동지역을 경쟁력 있게 제품 생산 거점화하여, 아태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전략적 입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살리고자 한국, 일본 등 자본과 기술력 있는 인접 국가들의 기업을 유치하고자 함.
 - 러시아 극동지역을 아시아 태평양 제국으로 수출 거점화하여 극동 경제를 견인
- 푸틴 정부의 최근 극동 개발 정책은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동 정책들의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세제 우대, 행정 규제 완화, 신속한 통관 등으로 새로운 형식의 경제특구 조성
 - 비즈니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후 국내외로부터 투자 유치
 - 내수 및 수출용 가공 상품 제조
 - 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극동지역 내 주민 수 확대
- 푸틴 정부의 최근 극동 개발 정책의 속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특징을 지님.
 - 선도개발구역 구상은 2013년 10월에, 블라디보스톡자유항 구상은 2014년 12월 푸틴 대통령의 연차 교서에서 처음 발표
 - 1~2년 사이에 관련 법 통과 및 선도개발구역 대상 지역 선정

- 프로젝트별 담당자 지정 등 공무원 책임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의 극동 개발 의지는 분명하고 관련 정책도 매우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는 이르지 못함.
 - 선도개발구역에 대한 투자 의향은 표명되고 있지만 입주 또는 입주 예정기업으로 발표되는 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기존에 활동하던 기업에 국한되고 있음.
 - 기본적인 법령은 마련되었지만 시행 세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였고 관련 인프라 조성까지는 최소 2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1) 선도 사회·경제 발전 구역(TOR)

- 2014년 12월 29일 푸틴 대통령의 서명 후 3개월이 지난 2015년 3월 30일자로 ‘러시아연방의 선도적 사회·경제 발전 구역’(이하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연방법이 발효됨.¹³⁾
- 선도개발구역으로 선정하는 주요 요건
 - 극동개발부가 입주 가능 기업 수, 신규 고용자 수, 기존의 인프라 시설의 정비 정도,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 지방 정부의 적극적 의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실제 진출 기업 등을 감안하여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작

13) 관련법은 3개임. ①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연방법(2014년 12월 31일자 No. 473), ②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연방법 제정에 관련한 러시아연방 세법 제2부의 개정(2014년 11월 29일자 No. 380), ③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연방법 제정에 관한 개별의 러시아연방법의 개정(2014년 12월 31일자 No. 519). ①은 선도개발구역 설치에 관한 것으로 특구 요건이나 운영에 대한 것이며 ②는 주로 선도개발구역에 적용하는 우대 세제에 관한 내용, ③은 규제완화나 관련 법제 개정(2015년 3월 30일자로 시행)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3개 모두 2015년 3월 30일자로 시행

<http://base.consultant.ru/cons/CGI/online.cgi?req=doc;base=LAW;n=173164>
http://minvosto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2563
<http://primamedia.ru/news/economics/02.03.2015/423923/nalogovie-lgoti-v-torah-na-dalnem-vostoke-poluchili-zeleniy-svet.html>

- 선도개발구역의 지정 장소는 객관적, 중립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극동 개발부와 해당 지방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정치적, 주관적으로 결정됨.
- 선도개발구역 개설 후 3년 이내에 입주 기업이 1건도 없는 경우 극동개발부의 제안에 근거하여 정부 결정의 형태로 선도개발구역을 취소할 수 있음.

○ 선도개발구역은 2015년 10월 현재 9개 지역이 지정됨.

-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2014년 400여개의 선도개발구역 후보 지역(지방정부의 제안 건수) 중 38개를 선정한 후, 대표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14개 예비 지역을 선정
- 2015년 6월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지방의 ‘콤소몰스크’, 연해지방의 ‘나드 제진스키’ 등 3개 지역을 선정
- 2015년 8월에 캄차카, 아무르주의 벨로그orsk, 사하공화국의 칸갈라스 등 6개 지역 추가
- 최초로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하바로프스크’는 2015년 7월에 극동개발부와 지방정부 간 협정이 체결되어 정식으로 착수

○ 선도개발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대상 지역을 더 확대할 예정

- 쿠릴제도(사할린주), 루스키섬(블라디보스톡시), 대우스리섬(하바롭스크지방), 스바보드노(아무르주) 등이 검토 대상 지역
- 특히, 루스키섬의 경우 첫 번째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어 왔지만 연방차원의 관심으로 인해 보다 명확한 개발 계획이 확정된 이후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
- 기업 투자 목적으로 협력 대상국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예, 하산)

<표 III-1> 선도개발구역 현황 및 지정 예비 지역

단위: 백만 루블

지방	선도개발구역명	위치	면적 (ha)	타입	진출기업 (예정)	투자 예정액	인프라 정비비	주요 진출 예정 기업
연해	나데제진스키	나데제진스키 지구(블라디보스톡으로부터 27 km)	806.7	식품 가공, 기계가공, 물류 등	3	6,700	3,972	-Inkom DV(물류) -Primorsky konditer(빵, 과자) -Nevada-Vostok(식품가공)
	미하롭스키	-네크루글로보(미하일로브스키 군 Некруглово - село в Михайловском районе) -스파스키 군 체르니고프스키 군 (Спасский и Чернигов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е районы)	3,885	농업·식품 가공	4	43,085	4,438	-루스아그로(양돈, 돈육가공, 대두 가공) Русарго -메르시 트레이드(양돈, 사료) ООО "МЕРСИ ТРЕЙД" -체르니고프스키 아그로홀딩(곡물재배·정선·건조) ООО "Черниговский Агрохолдинг" -MEZ 유그 루시(대두 가공) ООО "МЭЗ ЮГ РУСИ"
	발쇼이카멘	발쇼이 카멘시		조선		143,000 (민간 140,000+연방 3,000)		조선소 즈베즈다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	-라키트노에 -아방가르드 -하바롭스크 공항 기타 하바롭스크 시·교외	716	기계, 금속, 화학, 항공 및 도시기계 등	10	34,512	2,361	-Technonicol(단열재, 건재) -Sergeevskoe (식품가공) -Nevata-Vostok (식품가공) -JGC Evergreen(온실재배) -Baoli Bitumina Singapore (석유화학) -Torex(금속가공)
	콤소몰스크	-파루스 (Парус) -아무르리트마쉬 (Амурлитмаш) -아무르스크(Амурск,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и Амурск)	313	항공 기계 제조, 기계가공, 조선, 목재 가공	6	11,650	1,232	-수호이 -우랄트르브마쉬(Уралтрубмаш - 항공기 부품) -MTE 파이낸스(항공기 부품) -달네에네르코마신(중기·공작기계) -RFP Group (목재 가공) -아무르 조선소
아무르	벨로고르스크	벨로고르스크시	702.3	농업·식품 가공	3	1,452	46.2	-아무르아그로센터(대두 가공) -아그로테크놀로지(사료 생산) -벨로고르스크히레브(빵, 빵제품)
	쁘리아르스카야	-로브노에 (Ровное) -베레조브카 (Березовка) (블라고베센스크로부터 각각 25km, 70km)	857.3	공업, 물류	3	128,900	-	-아무르 에너지회사(석유 정제) -스테크놀로지(시멘트) -헤이룅스키모스트(물류, 중국)
캄차카	캄차카	-파라투카, 캄차카공항,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키항만 등 8지구	1,471.7		13	28,110	8,465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키상업항(항만 정비) -비타지-아에로(OAO 'Витязь-Аэро' - 공항 정비) -질료나야 페르마(ООО 'Зеленая ферма' - 온실 재배) -아리엘(ООО 'Ариэль' - 관광 리조트 개발)
사하	공업 단지	-칸갈라스 -카피토노프카(«	16.7 (최)	공업	13	1,118.7	200.2	-Sunyan chemical products(세라믹 건재, 중국)

	‘칸갈라스	Капитоновка) -야쿠츠크시	대 65)						-UAB ‘Vakaro Rasa’(보일러)
사할린	유즈나야	아니바 (유즈노사할린스크 남부)	660	농업·식품 가공	5	7,300	1,800	양돈, 목축, 양계, 온실재배	
	고르노바즈두후	유즈노사할린스크	196	관광(스키, 트레킹)	5	5,195	1,943	리조트 시설 확충, 온천 시설 개발	
추코트	베린고스키	-아맘스카야와 베르호네-알카트 밤스카야 관광지 (Амаамская и Верхне-Алькватваамская площади)(아나드 리시군 - Анадырь и часть Анадырского района)	6,28 5,00 0	자원	1	8,000	-	Tigers Realm Coal (석탄 개발)	

<이하 예정 지역>

사할린	쿠릴 제도	쿠나시르, 시코탄, 이투르프, 우름, 파라무시르	1,38 4.5	수산 가공·관광	13	17,534	76.5	
아무르	스바보드누	스바보드누 지구		가스 가공·화학	2			가스프롬, 시부르
연해	루스키섬	루스키섬		관광·바이오				
하바롭스크	대우스리섬	대우스리섬		관광·물류				
유태	아무로간스카야			금속 가공·기계				
사하	자레노예							

자료: 극동개발부 발표자료, 齋藤 大輔, ロシアの新しい極東政策, ロシアNIS調査月報, 2015년 11月号, 자료 정리.

- 주: 1) 2015년 12월말 현재 기준. 발쇼이카멘, 유즈나야, 고르노바즈두후 등 3개 지역은 2015년 12월 24일 승인.
2) ‘인프라 정비비’는 연방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선도개발구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인프라 정비비로 2015~2017년 3년간 지출하는 금액.
3) 사할린주의 쿠릴제도의 경우 쿠릴제도 전체를 TOR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계획과 사업 부지를 확정된 후에 TOR 지정 문제 검토 예정(트루트네프 발언, JSN, 1118호, 2015. 11. 24).
4) TOR ‘발쇼이카멘’은 12월 18일에 조선소 ‘즈베즈다’를 시찰한 메드베데프 총리가 제안하여 지정. 조선소 건설에는 인프라 혁신 부문 등에 30억 루블 이상의 연방예산이 투입될 예정. 현재 이곳에서는 로스네프티와 가스프롬은행, 극동 조선·선박수리공장(DCSS)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조선 클러스터 창설을 추진 중. 3단계 개발 계획 중 제1기는 2016년에 제2, 3단계는 2018년 예정이었지만 메드베데프 총리가 개발 계획을 앞당겨 1년 후에는 첫 번째 선박 건조에 착수하고 근로자용 숙소도 건설하도록 지시(노보스피, 2015. 12. 18).

<그림 Ⅲ-1> 러시아 극동 선도개발구역 위치도



자료: <http://erdc.ru/>(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ТОР))

○ 선도개발구역의 투자 유치 분야는 매우 다양함.

<표 III-2> 선도개발구역 유형별 육성 분야

형태별	선도개발구역	주요 육성 분야, 유치 희망 기업	투자 예정 기업
그린필드 형식	하바롭스크		- 네바타·보스토크: 식품 가공 - JGC 에바-그린: 온실 재배 - 전위파 로지스틱: 물류센터 계획
	콤소몰스크 (일부구역)	- 항공기 제조용 부품 메이커 유치 목표	
	나제제진스키		
	칸가라스		
진출 특징	벨로고르스크	- 농업지대 - 농식품 가공 - 관련 생산품 수송· 물류	- 아무르아그로: 대두 가공 공 장 - 아그로테크놀로지: 사료공장 건설
	미하일롭스키	- 농업 - 식품 가공	- 로스아그로: 양돈, 대두 가 공, 사료 생산
프로젝트 지원	베린고흐스키	- 자원 개발, 가공	호주의 Tigers Realm Coal Ltd에 의한 베이링 탄전의 석탄 개발과 석탄을 실어 내기 위한 도로나 항만 등 인프라의 정비를 지원
	프리아무르스카야	제유소, 시멘트 공장	
	콤소몰스크(일부)	목재가공, 기계	목재 가공의 RFP Group과 공작기계의 달레에네르코마시가 계획하는 프로젝트 지원
	스바보드노	가스 가공, 화학 플랜트	가스프롬과 시볼에 의한 가스 가공·화학 플랜트 대상 지원
지역 프로젝트 지원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트키(캄차카)	시내 및 교외 8개 지역에 관광, 농업, 공항 정비 등 각각의 프로젝트 진행	
	아무르-히간스카야(유대인 자치주, 계획 중)		
	쿠릴제도(계획 중)	수산업, 관광	

자료: 齋藤 大輔, ロシアの新しい極東政策, ロシアNIS調査月報, 2015年 11月号. 자료 정리.

주: ① ‘그린필드’ 형식은 해당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 단지 조성이 진행되던 지역으로, 철도, 간선도로, 공항에 인접. 송전선, 상하수도 등 사회 인프라 접속이 비교적 용이. ② 진출 분야를 특정해 농업지역임을 감안하여 극동지역에 필요한 식품가공 지대로 조성하고자 함. 농작물 생산보다는 가공식품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③ ‘프로젝트 지원’ 형식은 사실상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임. 해당 구역에 진출할 경우 관련 프로젝트 담당 기업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해당 프로젝트 이외의 분야에 대한 진출 가능성 낮음. ④ ‘지역 프로젝트 지원’ 형태는 해당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것.

○ 우대 세제

<표 III-3> 선도개발구역의 우대 세제 내용

세 제	내용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통상 20%의 법인세를 인하. 최초 영업 이익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연방에 납입하는 세율은 0%(기존 2%), 지방에 납입하는 세율은 5% 이하(기존 18%) - 입주 기업으로 등록한 해부터 3년 이내 이익이 없을 경우 4년째부터 5년간 상기의 감면 조치를 적용 - 5년 경과 후에도 10% 미만으로 부과(총 수입의 90% 이상이 선도개발구역 내 영업 활동인 경우)
자산세와 토지세	- 5년간 면제(기존 자산세 2.2%, 토지세 1.5%)
부가가치세	- 러시아의 국외로부터 조달하는 물품에 환부한다. 환부까지의 기간을 지금의 9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광물자원 채굴세 (석유·가스 제외)	- 최초의 2년간은 세율에 곱하는 계수를 0으로 하고, 3년째부터 단계적으로 인상(3~4년 : 0.2, 5~6년 : 0.4, 7~8년 : 0.6, 9~10년 : 0.8, 11년 이후: 1)
관세	- 선도개발구역을 관세동맹의 자유 관세지역으로 지정하여 러시아의 국외로부터 조달하는 물품(TOR에서 생산 활동을 위한 설비나, 역내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 등)에 대해 무관세 적용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30%인 보험료를 7.6%로 인하(그 중 연금 3%, 사회보험 1.5%, 연방 1.5%, 지방 강제 의료보험 1.6%) - 특구 설치 후 3년 이내에 특구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달의 다음달부터 10년간 적용

자료: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연방법 제 13조(2014년 12월 31 일자 No.473) 등.
<http://base.consultant.ru/cons/CGI/online.cgi?req=doc;base=LAW;n=173164>;
<http://primamedia.ru/news/economics/02.03.2015/423923/nalogovie-igoti-v-torah-na-daln-em-vostoke-poluchili-zeleniy-svet.html>;
http://minvostokkrazviti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2563

<표 III-4> 선도개발구역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내용

규제 및 절차	완화 내용
각종 검사 기간 단축과 투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 및 지방정부 관리 감독 절차 간소화 - 건축 허가 수속의 간소화나 토지 거래의 신속화 - 검사가 사업 개시의 지연 등 비즈니스의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검사 기간 단축과 동시에 기간 엄수에 대해 국가기관의 의무화 - 세무 및 세관 조사, 환경 심사를 제외한 검사 기간은 검사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국가의 환경 심사에 대해서는 45일 이내로 함. - 입주 기업은 검사 결과에 대해 불복 제기 가능
통관	- 통관 시의 국경, 세관, 검역 등의 검사의 원스톱화(일원화)와 검사 시간 단축
원스톱 서비스	-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역내에 각 연방 부처의 파견 기관을 설립.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 전문 기술자 확보를 위해 TOR 역내에 한정하여 외국인 노동 제도를 재검토. 보다 많은 외국인을 수용 -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과 현지 고용 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러시아 국민을 우선하여 고용 - 외국인 직원 채용 및 활용 절차 간소화(허가 불필요, 외국인 쿼터제 미적용)
의료 서비스	- 외국인도 안심하고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외국인 의사로부터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의사가 TOR 내에서 의료 행위 가능토록 제도 개선
교육	- 국제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TOR 내에 한정하여 교육제도의 예외 조치 강구
인프라 정비	- 토지 조성이나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 인프라 정비는 연방 및 지방정부가 부담

자료: 앞의 표와 같음.

<표 III-5> 선도개발구역의 입주 절차와 자격

규제 및 절차	완화 내용
필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개발구역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는 특구법에서 정한 서류를 운영회사에 제출 ○ 선도개발구역 입주자가 되는 데 필요한 서류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의 서식은 극동개발부가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실시 협정 체결 신청서(신청서에는 ① 선도개발구역에서 신청자가 실시하는 경제활동 ② 필요한 토지의 면적 또는 그 외의 재산 ③ 경제 활동에 필요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난방 등의 필요량 ④ 사업 실시 협정의 체결 기간을 명기) - 설립 문서의 사본(법인의 경우) - 사업 계획서(비즈니스 플랜) - 국가 등기 증명서의 사본 - 세무 기관 등록증명서의 사본 - 국가 등기에 관한 서류의 러시아어 번역문(외국인의 경우)
신청서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동개발 코퍼레이션'(운영회사)는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영업일 15일 이내에 심사 - 운영회사는 심사의 결과, 승낙 혹은 거부 결정 사항을 결정한 날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신청 기업에게 통지 - 신청자는 결정에 불복 제기 가능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회사는 기업(선도개발구역에 설립하는 법인)과의 사이에 사업 시행 협정을 체결 - 체결일부 3영업일 이내에 특구 입주자로 등록 - 협정 체결 후 24개월 이내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업을 입주기업이 시행하지 않은 경우 등 명확한 협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정 파기가 가능
입주기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최저 투자액 50만 루블 - 입주자는 TOR 영역 외에 지사 및 사무소를 가질 수 없음.

자료: 앞의 표와 같음.

- 러시아 정부는 극동 ‘선도개발구역’ 운영을 위한 ‘극동개발공사’(운영회사)를 설립. ‘극동개발공사’는 러시아 경제특구를 관리하는 공개형 주식회사 ‘경제특구’(주식회사 이름 자체가 ‘경제특구’)와 유사
- 극동 개발 코퍼레이션(운영회사)의 설립과 임무
 - 러시아 정부는 2015년 4월에 특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주식회사 ‘극동 개발 코퍼레이션’(운영회사)을 설립
 - 운영회사는 특구 관련 및 특구 내의 인프라 정비 담당
 - 입주 기업에 대한 회계 및 통관 등의 서비스 제공
 - 현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전력, 난방, 가스, 상하수도, 일반·산업 폐기물 수집 시행
 - 통신, 외식,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주거 건설과 유지 등 입주 기업에게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
 - 각 선도개발구역의 운영·관리는 운영회사의 산하에 마련하는 운영 자회사가 담당
 - 운영회사는 자회사의 주식 51% 이상을 보유하도록 의무 지워짐. 운영 자회사에 외자나 민간 기업이 출자할 수 있음.
- ‘선도개발구역’ 입주 기업의 권리를 적극 보호
 - 극동지역 내 부패 단속과 더불어 극동지역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연방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나감.
- 선도개발구역 정책을 주도하는 극동개발부는 2015년 말까지 입주 기업을 최저 1개사 이상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

- 선도개발구역 내 전기, 가스, 수도 등 인프라 정비를 진행하여 빠르면 2017년에 기업의 생산 활동을 시작할 계획
- 원스톱 서비스나 각종 행정 수속의 간소화 등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더불어 정보 공개도 철저히 진행
- 극동의 각 지방정부 역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
- 선도개발구역 내 생산 제품은 당초 수출이 주요 목표였지만 점차 내수 시장에 대해서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함.
 - 극동지역에 선도개발구역 숫자가 늘어나면서 지역별 중점 육성 분야가 다양화. 특정 수출품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기업 유치에 어려움 발생
 - 설정한 중점 육성 분야에 맞추되 반드시 해당 분야에 국한시키지는 않음.
 - 당초 목표인 수출보다는 내수 판매를 하되 수출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
 -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내수 또는 수출 기업 구분 없이 입주할만한 기업 유치가 강조되면서 내수가 목적인 러시아 국내 기업들이 우선적인 입주 예정 기업들이 됨.
- 선도개발구역 유치 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기술력 있는 기업에 관심
 - 극동개발부는 실제로 투자하는 기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음.
- 농수산 가공분야 등 시급한 역내 수요 충족과 부존자원 등 지역 내 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의 기업 유치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임.

- 지역 산업 육성에 필요한 분야나 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임.
- 극동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고 타 지역으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분야의 기업 유치에 우선적인 관심

(2)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 목적 및 대상 지역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Свободный порт Владивосток, SPV)은 대폭적인 우대 조치나 통관의 신속화, 규제 완화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지역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목표

- 2014년 말 푸틴 대통령의 연차 교서를 통해 제안
- 곧바로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2015년 6월 4일에 자유항 관련 3개 법안(자유항 관련 설치 요구 사항, 세금 감면, 규제 완화)이 정부 결정을 거침.¹⁴⁾
 - 당초 2015년 말까지 법안을 준비하려 했지만 푸틴대통령의 지시로 준비 시한을 앞당김.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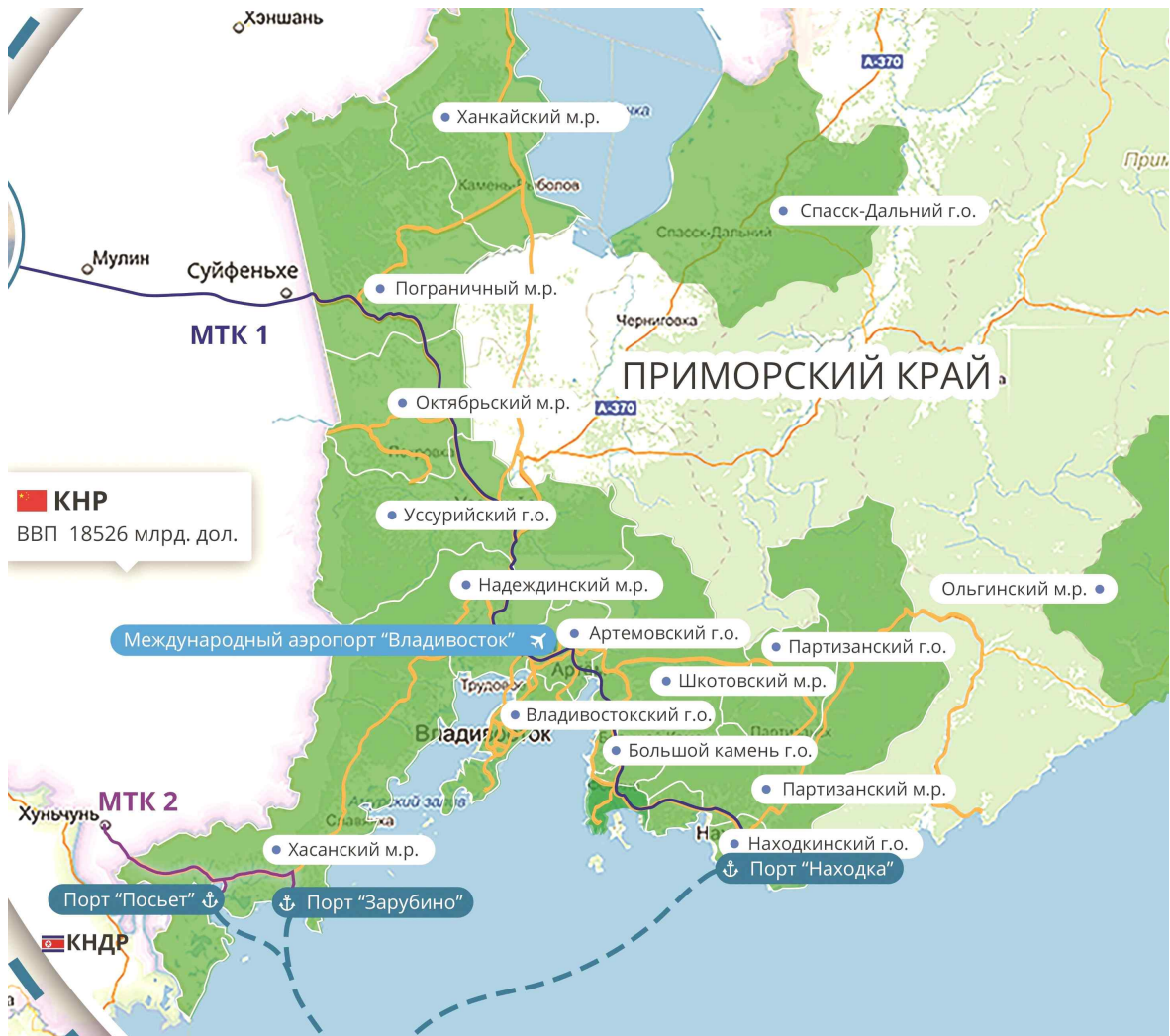
- 러시아 정부는 자유항이나 수송·물류 인프라의 정비를 통해서 20년 후인 2034년에는 연해 지방의 역내 총생산을 현재의 3.4배, 극동지역 전체의 역

14) 관련법은 다음과 같음. ①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2015년 7월 13일자. No. 212), ②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제정에 관한 개별의 러시아 연방법 개정(2015년 7월 13일자 No. 213) ③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의 제정에 관련한 러시아 연방 세법전 제 2부의 개정에 대해(2015년 7월 13일자 No. 214). ①은 기본법으로 자유항의 요건이나 운영, 규제완화에 대한 규정, ②는 자유항에 적용하는 우대 세제, ③은 규제완화나 관련 법제의 개정에 대해 각각 규정. 3개 법 모두 7월에 대통령이 서명, 세관수속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15년 10월 12일에 시행됨. 자료: <http://www.tks.ru/logistics/2015/03/04/0003>; <http://www.kommersant.ru/doc/2719244>; <http://www.rg.ru/2015/03/12/reg-dfo/port.html>; http://minvostokrazvitiya.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3134

내 총생산을 34%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고용자 수는 2034년까지 47만 명 증가
- 수송·물류 인프라의 정비에는 2030년까지 9,600억 루블 투입

<그림 Ⅲ-2>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대상 지역



자료: http://delovoe-partnerstvo.org/images/news-2015/port%20Vladivostok_13072015.jpg

주: 블라디보스톡은 1861~1909년 기간 동안 자유항구였음. 이번 자유항 조치로 연해지방 남서부 일대 대부분(짙은 색 표기 지역)이 2085년까지 자유항으로 지정됨.

- 어려움이 많겠지만 블라디보스톡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무역 센터로 조성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행 중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블라디보스톡 항구 지역 및 나호드카, 보스토치니 등 연해지방 남부 항만지역을 포함한 해안지역과 서부의 중국 국경 인접 지역 전역을 개방

<표 III-6>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개요

장소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등 연해지방 남부 15개 시·지구
면적	33,481km ² (연해지방 전체 면적의 20%)
인구	143.1만 명(연해지방 전체 인구의 3/4)
주요 항구 및 공항	- 블라디보스톡 국제공항, 블라디보스톡항, 자루비노항, 포시에트항, 나호드카항, 보스토치노항 (연해지방 항만 거의 전부) - 자유항 역내에 있는 항만의 화물 취급량은 1억 102만 t(극동 항만 전체의 62%, 러시아 전체의 16%를 차지, 2014년 기준)
설정 기간	70년(연장가능)
경과	- 2015년 7월에 법률 제정 -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15년 10월 12일에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법’ 발효 - 입국 및 통관 등의 시책과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등은 추후 시행 - 입주 기업 선정 작업 지속

자료: 2015년 10월 현재, 극동개발부 자료 등.

- 연해지방 남부 15개 도시 및 지구에 설치(스파스크달리니시, 올긴지구 2개 지역 추가)
- 자유항은 항만(공항을 포함), 산업지구, 과학기술 진흥 지구 및 관광-레크리에이션 지구 등 총 4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하는 구상도 있음.
- 70년 동안(2085년까지) 지정, 경우에 따라서 개방 기한을 더 연장
- 블라디보스톡에 성공하면 러시아 여타 지역에서도 실시 될 예정으로 크림의 항구 도시도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로시이스카야 가제타 2015. 7. 15)
- 극동의 각 주도 자유항을 만들고 싶다는 의향을 제시

- 연해지방 항구뿐만 아니라 캄차카, 추코트자치구의 아나두리, 페백, 마가단, 하바롭스크의 바니노 항구 등 총 15개의 항구와 공항이 자유항 후보지
- 캄차카지방, 사할린주의 주요 항구는 2016년에 자유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운영 주체 및 우대 사항

○ 감독위원회가 최고 기관으로서 대상 업종 및 자유항 운영 사항 결정¹⁵⁾

- 법률상으로는 극동 담당의 부수상(트루트네프)을 의장으로 하는 감독위원회가 최고 기관으로서 대상 업종 및 자유항 운영 사항 결정
- 감독위원회가 자유항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짐으로써 부처 간 이해 충돌을 막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

○ 감독위원회의 주요 권한

-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 설계 중으로 육성 업종이나 범위는 아직 미정
- 감독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

- ① 자유항의 경제 상황 모니터링
- ② 당국의 부당한 검사 및 압력에서 입주 기업의 보호
- ③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연계 조정
- ④ 입주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 결정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주요 우대 조치

15) 감독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극동 담당 부총리(의장, 트루트네프), 극동연방 집행기관장(극동개발부 장관 갈루슈카), 연해지방 주지사, 연해지방 입법회의의장, 재무부 세관 등 관련 기관 차관, 자유항 운영회사 사장, 연해지방 노동조합 및 고용주 단체의 대표자 등.

〈표 III-7〉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주요 우대 조치

분야	우대 내용
물건의 자유화	-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 검사를 1개로 정리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람의 자유화	- 외국인의 노비자 체재 허가. 기간은 현행의 72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유항 역내에 있는 공항, 항만, 육상의 국경 검문소에서 최대 8일간의 사증 취득 가능 - 짧은 기간의 출입국이면 도항 전에 일부러 사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됨. - 호텔에서서의 등록제 유지 여부 등 외국인의 출입국 완화 분야는 아직 다소 애매한 상태
주요 우대조치	- 법인세 10% 적용(새로운 생산 및 인프라를 건설할 경우, 러시아 표준은 34%) - 재산세와 토지세 감면 등 각종 세금 및 임대료 우대 등 예정 - 대상지역 내 기업들도 법안에 따른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특혜적 인프라 이용
관세	- 관세 동맹의 자유관세지역화처럼 관세 면제 - 러시아의 국외로부터 자유항으로 조달하는 물품(생산 활동을 위한 설비나 부품 등)의 관세 면제 (제품 제조를 위해 러시아의 국외로부터 조달하는 부품의 관세는 자유항 입주자가 되면 면제. 해당 지역에서 만든 제품은 '메이드 인 러시아'로 러시아 및 유라시아 경제연합회가입국 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 가능)
통관	- 통관 시간의 대폭 단축 - 통관 업무를 연중무휴 24시간 시행, 국경 통관, 세관, 검역 등의 원스톱 서비스
규제완화	- 교육 및 의료 제도 완화 - 외국 기업에 대해 교육, 의료 분야 등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함. - 기업에 대한 감사 등 제재 조치는 극동개발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시행
고용	-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기준의 완화
추가 검토	- 자유항 지역 내 입주기업 대상 보험료 인하 폭 - 자유항 감독위원회의 권한 범위 - 인센티브 적용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 - 군 관할구역 문제 등

자료: 2015년 10월 현재, 극동개발부 자료 등 정리.

- 사람과 물건 흐름의 신속화와 간소화가 주요 목적
- 자유항 입주자에게 적용하는 우대 세제나 규제완화 내용은 선도개발구역과 거의 동일함.

- 세관 수속 등 일부 내용은 추후 좀 더 정비 예정
- 입주자들은 국가 소유의 부지를 할당 받거나 관세자유지역으로의 화물 운송 혜택, 재산세, 토지세 혜택, 출자 또는 보조금 형태로 인프라 건설에 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음.
- 국경에서의 통관, 방역 등의 검사 기관을 1개로 정리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틀 속에서 필요한 인프라 건설 사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
 - 2015년 7월 15일 각료회의에서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한 관련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 볼쇼이카멘시 조선 클러스터, 자루비노항 건설, 보스토치노 항구 컨테이너 부두 확장, 수호돌 만 개발, 하산 지구 물류 시설 건설, 슬라반카 만 생산·물류 클러스터, 아르톰 지구 드라이 포트 사업 등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
 - 자유항 내부와 외부 구별, 자유항 내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불공평
 - 우대 제도로 반입되어 물품이 권역 밖으로 반출된 경우의 처리 문제
 - 사람과 물건의 왕래가 증가할 경우 자유항내의 항만 시설이나 시베리아 철도의 수송 능력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항 이외의 지역에 다른 사업장,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자유항에 입주하는 관광분야의 항구, 공항, 기업 등은 단일세를 낼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세금납부 및 회계 절차가 간소화 될 예정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역 내 제조 기업들이 유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
 -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법인세의 경감 등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에서 조립 생산하여 러시아 내수 및 한·중·일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수출 확대 가능

<표 III-8>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 SPV의 입주자 중 소매 및 도매, 금융업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가의 세금 감면 및 사회 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입주기업의 종사 불허 업종
 - 석유 및 가스 산업용 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의 생산(승용차, 오토바이, 엔진 오일, 비행기·자동차용 연료, 디젤 연료는 제외)
 - 사무·관리 및 그 부속 업무(농기구, 건설 기계, 항공기, 선박, 기차, 엔진, 터빈, 공작기계, 기타 장비 및 자재의 임대 사업은 제외)
- 감독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이상 개최
 - 감사 위원 및 국가·지방의 각 행정부 관료는 감독위원회 결정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짐.

자료: 극동개발부.

주: 2015년 10월 21일 개최.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위원회 제1차 회의로 입주 기업 승인
 - ‘태평양 투자 회사’(슬라반카 개발을 위해 설립된 중-러 합작 회사) 입주 승인
 - 스마트 그룹의 자루비노항 개발 사업도 부분적으로 승인. 2018년 착공 예정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 절차 간소화 예정

-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입주 신청 기업이 15개에 불과(2015. 11. 19 기준)한 것은 신청 접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입주 절차 간소화를 지시(2015. 11. 19 연해지방 회의)
- 제2차 감독위원회에서 입주 조건 등을 조정할 예정
- 자유항 관련법이 2015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지만 무비자 여행이나 관세 혜택은 2015년 12월말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입주 신청 기업이 적은 것은 이상하지 않으며,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항 제도가 아니라 여타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지적도 있음(Deita.ru, 2015. 11. 19, JSN, 1118호, 2015. 11. 24).
- 예를 들어 중-러 국경 통과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오랜 행렬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

○ 자유항 관련 조치와 별개로 극동지역의 무비자 여행은 조만간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극동 각 지방정부에서 관광산업 육성 목적으로 무비자 여행을 추진
- 일례로 사할린주는 중국 요녕성에 무비자 여행을 제안하기도 함.¹⁶⁾

16) 2015년 12월 말 베이징을 방문한 사할린주지사가 요녕성과의 회담에서 무비자 여행 계약 체결을 제안. 사할린주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적은 이유 중 하나를 복잡한 비자 제도 때문으로 보고 사할린주와 가까운 요녕성과 무비자 입국 협정 체결을 검토. 사할린주는 이미 러시아 외무성에 동일한 제의를 한 상태. 연해주와 아무르주는 이미 수년전에 중국의 지방 정부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상태

<표 III-9>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감독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2015년 12월 2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

- 8개 기업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 신청을 승인.
 - 1차에서 승인된 ‘태평양 투자 회사’와 함께 총 9개가 됨. 당시까지 ‘극동 개발공사’에 제출된 입주 신청은 158건. 그 중에서 접수된 21건 중 8건이 승인된 것
 - 8개 사업의 총액은 약 280억 루블, 기대 고용자 수는 1만 3,500명
- 8건 중 5건은 기존 사업자에 의한 프로젝트이고, 3건은 신규 프로젝트¹⁷⁾
- 신규 사업이 입주 요건이기 때문에 재신청이 필요한 기업도 있었지만, 기존 사업의 현대화나 확장 계획을 분사화하여 인정받은 기업도 있었음.
 - 극동개발부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사업자에 입주를 인정하는 법안을 하월에 제출할 계획

자료: 코메르산트, 2015. 12. 24.

17) ○ 기존 프로젝트 5건

- ① 산업단지 ‘얀코후스키’: 2만 6,700㎡의 창고 운영 중, 2025년까지 총 234억 루블을 투입할 계획
- ②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클러스터 ‘프림링’: 11억 3,000만 루블 투입 계획. 제1단계 건설은 곧 완료
- ③ ‘아베스타’의 물류 창고 ‘유니온’: 2021년까지 15억 5,000만 루블 투입 예정(1억 2,000만 루블은 이미 투자)
- ④ ‘블라디보스톡 해양 어업 항구’: 냉장 보관 시설 갱신에 12억 루블 투자 예정(그 중 700만 루블 투자 완료)
- ⑤ 모스크바 소재 기업 ‘테라’: 현대적 LED 장비 생산 설비 도입에 4억 9,240만 루블 투자 예정(그중 5,340만 루블 투자 완료)

○ 신규 프로젝트 3건

- ① ‘카스카도’: 물류 창고 건설(자기 자본 1,000만 루블)
- ② ‘멘토루’: 감자와 근채류 재배와 가공(2,175만 루블)
- ③ ‘에네르기야 고무가공’(ERZO): 페타이어의 열분해 처리(3,300만 루블)

(3) 극동 관련 기타 개발 전략

1) 우선 투자 프로젝트

○ 수송 인프라 건설은 극동개발 프로그램의 주요 이슈임.

- 수송 인프라 건설 문제는 과거 극동 개발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음.
- 수송 인프라 없이는 개발 프로그램 수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
- 2025년까지의 극동·바이칼 지역의 개발 계획이 담긴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이하 ‘2025 극동 개발계획’, 2013년 3월 29일 승인)의 핵심 과제도 사실상 수송 인프라 건설에 있었음.

<표 III-10>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입주 기업

	기업명	주요 사업 내용	투자액 (10억 루블)	러시아 기업명
1	안콥스키	물류 창고, 산업 단지	23.4	Авиаполис Янковский
2	프리모르 링	관광 휴양 클러스터	1.1	Туристско-рекреационный кластер Приморское кольцо
3	아베스타	물류 창고 건설 ‘유니온’	1.6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юрид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Авеста
4	블라디보스톡 해양 어업항	수산물 환적 보관용 냉장 시설	1.2	Владивостокский морской рыбный порт
5	테라	LED 조명 기기 생산	0.5	Терра
6	카스카드	물류 창고 건설	0.01	Каскад
7	멘토르	감자 등 재배	0.02	Ментор
8	ERZO	폐 타이어 가공	0.03	Энергия резино обработки

자료: 코메르산트, 2015.12.23 (<http://www.kommersant.ru/doc/2883688>).

주: 1~5는 기존 기업, 6~8은 신규 기업.

○ 극동 개발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수송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여 인프라 건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 예를 들어 ‘2025 극동 개발계획’에서는 프로젝트별로 개발 회사 등 민간 부문이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원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

- 그러나 개발회사는 건설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을 찾지 못하고 국가가 재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
- 선도개발구역이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수송 및 거주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는 필수 사항. 이에 푸틴 정부는 주요 프로젝트의 인프라 정비에 국비를 투입하기로 결정
- 2015년 7월에 극동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투자 프로젝트’ 6건을 선정
- 바니노항의 석탄적출터미널 건설, 우르갈 탄광 개발 등 6개 프로젝트의 인프라 정비에 총 138억 루블(총사업비는 1,265억 루블)의 연방 예산을 투입
- 푸틴 대통령은 2015년 9월의 동방경제 포럼 연설에서 프로젝트의 건수를 확충할 것을 정부에 지시

<표 III-11> 극동지역 우선 투자 프로젝트 목록(1)

프로젝트 명	소속 연방주체	사업 수행 회사	총사업비 (공적자금) 루블
이그나리스크 채탄·선광 콤플렉스 건설	사하공화국	야쿠츠크워고리·노브이테흐 날로기(석탄 회사 ‘코르말’)	228.7억(5.6억)
바니노 만 석탄적출 콤플렉스 건설	하바롭스크지방	사하트란스(볼가그룹)	191억(32.7억)
우르갈 탄광 개발	하바롭스크지방	우르갈워고리(시베리아 석탄 에너지 회사)	237억(15.5억)
세렘진스키 지구 금 채굴 개발	아무르주	페트로파블롭스크그룹	65억 (56억)
오제르노프스키 금 광상 채굴·가공 콤플렉스 건설	캄차카지방	시베리아 광산 야금 연합	122억(12억)
타운지누 선광 콤플렉스 건설(제1 국면)	사하공화국	티무르(에브라즈그룹)	122억 (16.2억)

자료: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3.03.2015 N 484-р (ред. от 28.08.2015)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еречня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планируемых к реализац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주: 프로젝트 리스트 및 사업비는 2015년 10월 현재 기준.

<표 Ⅲ-12> 극동지역 우선 투자 프로젝트 목록(2)

투자프로젝트 이름	수행 회사	수행 기간	목표 및 과제
1. '이나글린스키' 채굴-가공단지 건설	페쇄형주식회사 '야쿠츠키에 우글리 - 노브에 테흐놀로지'	2011~2017	점결탄 채굴, 고품질의 코크스 정탄 생산, '이나글린스키' 채굴-가공단지 ('이나글린스카야-1' 광산 및 전처리 공장 야쿠티야 시동)
2. 바니노 항구 무치카만 북부해변에 석탄 취급을 위한 운송-환적단지 건설	유한책임회사 '사하(야쿠티야) 운송회사'	2012~2020	러시아석탄시장발전에 필요한 운송 및 항만 인프라 개발 및 대 아태 지역 시장 수출 증대를 선도하기 위한 환경 조성. 세계 석탄시장에서의 러시아 지위 향상과 수출잠재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제한 장벽 철폐. 운송-환적 단지의 수출용 석탄(1단계: 연 1,200만 톤, 2단계: 연 2,400만 톤, 하바롭스크지방) 취급
3. 개방형주식회사 '우르갈우골'의 석탄채굴, 가공 종합투자프로젝트 상기 프로젝트는 다음의 하위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음: 1) 우랄 석탄지역에 위치한 농축공장 건설 및 석탄 채굴량 증대 2) '프라보베레즈나이' 노천광산 개발	개방형주식회사 '우르갈우골'	2011~2021	본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하위프로그램은 개방형주식회사 "우르갈우골"의 발전용 석탄 채굴량 증대(2010년 270만톤 -> 2016년 910만톤) 및 석탄 전처리 및 정탄 생산 공장 설립. 두 번째 하위프로그램은 노천광산 개발을 통한 노천 채굴된 수출용 석탄의 중기간 점진적 증산
4. 캄차카지방 오제르놉스키 금 매장지 채굴 및 개발용 광업제철소	개방형주식회사 '시비르스키 고르노-메탈루르기체스키 알리얀스'	2009~2017	캄차카지방 오제르놉스키 광석지대 종합탐사 및 처리용량 연 2회 10톤에 달하는 광업제철소 개발(캄차카지방)

5. '타요즈나이' 광업전처리공장 (1단계) 건설	폐쇄형주식회사 '광업제철회사 티미르'	2014~2017	타요즈나이 매장지를 기반으로 한 철광석 채굴 및 전처리용 광업전처리공장(연 300만 톤, 사하공화국(야쿠티야)) 설립
6. 아무르주 셸렘진스키 군 금 채굴산업 개발	유한책임회사 '데미', 유한책임회사 '토쿠르스키 루드니크' 유한책임회사 '알븐스키 루드니크', 유한책임회사 '말로르스키 루드니크'	2011~2019	아무르 주 셸렘진스키 군 금 매장지 개발. 말로르스키, 알븐스키, 토쿠르스키 및 엘긴스키 금광지(아무르 주)용 채굴, 전처리, 및 가공 기업 설립 및 인프라 제공

자료: 러시아 정부령, 2015. 3. 24.

주: 수행기간은 착수연도에서 설계 용량 도달 연도를 의미.

2) 극동발전기금에 의한 사업 용자

- 러시아정부는 극동 개발을 위해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 즉, 극동 Baical 발전 기금을 통해서 투자 프로젝트에 사업 자금을 용자¹⁸⁾
 - '우선 투자 프로젝트'와 동등한 규모나 작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용자
 - 러시아 정부는 수십 건의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2015년 8월에 첫 번째로 3건을 승인

18) '극동 Baical 발전 기금'을 둘러싸고 러시아 정부 내 주도권 싸움으로 개편 또는 해산문제가 거론되어 왔지만 극동개발부 주도로 재출발

<표 III-13> 극동바이칼 발전기금을 통한 프로젝트 용자 목록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사업 규모 (기금투자액, 루블)
니즈니레닌스코에~ 동강 간 철교 건설	아무르강에 접하는 유대인 자치주의 니즈니레 닌스코에와 중국 흑룡강성 동강과의 사이에 철교 건설	100억(25억)
금 광상 개발	- 캄차카지방의 아메치스트보에 및 바르니에 후스코에 금 광상 개발 - 사업주체: 조라타·캄차카(레노바그룹 산하) - 새로운 광상 개발로 캄차카지방의 금 생산 량은 연간 4.5톤으로 확대	124억(20억)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 사할린주에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 사업주체는 에코시스템	9억 (2억 7,000만)

3) 경제 특구

○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경제개발부’가 관할하는 경제특구도 있음.

- ‘선도개발구역’이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설치로 극동지역의 경제특구에 대
해서는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
- 러시아연방 내 경제특구는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가 모든 특구를 관할
-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극동개발부가 관리

□ 블라디보스톡 자동차 경제특구

○ 블라디보스톡항 인근에 자동차 조립, 자동차 부품 및 전자기기 제조 거점 구
축의 목적으로 2014년 9월에 오픈

- 푸틴 정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서남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을 극동지역에도 적용하고자 함.

- 투자 유치를 통해 블라디보스톡을 러시아 동부의 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 경제특구는 기업 유치 활동과 함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 등 인프라 정비와 전용 부두(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등 공장 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 특구 내 인입선은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
- 러시아 측은 오피스와 생산 공간을 함께하는 렌탈 공장(면적 5만m²)을 2017년까지 만들기로 하고, 자동차 부품이나 가전, 건설기계, IT나 의료 등 첨단 기업 유치를 추진
 - 2012년부터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는 마츠다 솔러스와 전용 부두에서 컨테이너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퍼시픽 로지스틱 2개사가 활동 중

□ 경제특구의 우대 조치

- 세제 우대
 -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에 법인세(기존 통상 20%)를 큰 폭으로 인하하여 최초 이익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은 2%, 그다음의 5년간은 12%, 그다음은 15.5%로 함
 - 토지세(통상은 1.5%)와 자산세(통상 2.2%) 면제, 토지세는 등록으로부터 5년간, 자산세는 10년간 각각 면제함.
 - 러시아의 국외로부터 조달하는 물품의 관세 면제
 - 부가가치세의 환부
- 통관 절차 및 특구 진출 절차의 간소화¹⁹⁾

19) 경제특구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경제개발부에 신청서를 제출 → 경제개발부가 신청서를 심사하여 10일

- 상품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관시 국경, 세관, 검역 등의 검사의 원스톱(일원화), 통관 시간의 단축을 도모²⁰⁾

□ 경제특구 육성 방향

○ 경제특구 확장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

- 생산 활동에 필요한 전기나 가스, 수도 등의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
- 개설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경제특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다국어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과 발표 등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

○ IT, 의료 등 첨단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마츠다 등 자동차 회사만을 위한 경제특구라는 이미지를 불식
- 자동차 회사 '마츠다를 위한 특구'라는 이미지를 불식하고, 마츠다 이외의 회사를 얼마나 유치할 것인가 과제

4) 극동의 토지 무상 제공

○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내 토지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

- 토지 제공 방법과 조건 및 관련법 개정에 관한 법안이 정부에 제출됨(극동개발부, 2015. 11. 12).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송부하여 검토 → 30일 이내 전문위원회의 승인 → 10일 이내 경제개발부, 특구 관리 회사, 신청 기업 3자간 계약서 체결, 계약서는 체결일부터 발효. 경제특구 진출을 위한 최저 투자액은 1억 2,000만 루블임.

20) 퍼시픽 로지스틱에 의하면, 통관 시간은 2시간까지 단축되고 있음. 특구 내에 있는 전용 부두의 취급 능력은 12만 TEU/년, 부두 길이는 185m, 수심은 7.0m. 퍼시픽 로지스틱에서는 하역, 통관, 보관의 서비스 외, 검사, 철도 화차의 적재, 자동차 수송, 보험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진출 기업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자료: 러시아NIS調査月報2016年 1月号).

- 동 법안은 정부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되어 국회에 법안을 제출

○ 관련 법 발효는 2016년 5월 1일로 예정

- 당초 2016년 7월 1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2개월 앞당김.
- 극동지역 토지 무상 제공에 대해 2015년 1월에 트루트네프(부총리 겸 대통령 극동전권 대표)가 푸틴 대통령에게 건의
- 2015년 9월에 개최된 동방경제 포럼에서 푸틴의 지시로 극동개발부가 법안을 준비

○ 토지의 이용 목적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

- 공여지에 대해 5년간의 시험기간 경과 후 개인의 소유지가 된 후에는 은행 담보도 가능
- 공여되는 토지가 접근이 어려운 벽지라는 비판에 대해 풍족한 조건은 아니지만 삶을 개선하려는 용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
- 예를 들어, 신청 지역이 숲인 경우 벌채한 목재를 판매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없지만 집을 짓고 가족을 늘리는 것은 경제적,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에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가능하다고 답변(극동담당 부총리와 극동개발부장관 기자회견)
- 외국인의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닌 외국인에 대한 재임대나 매각 금지

○ 관련 인프라 정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 정부가 특별히 지원할 계획은 없으며 법률 발효 이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예정

- 예를 들어, 극동지역의 전기 요금의 관세 인하의 경우 구체적인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지시인 관계로 시행될 예정

- 극동 주민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짐. 수요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²¹⁾

(4) 극동 국경지역 새로운 개발 콘셉트

- 극동개발부가 정부 승인을 받아 극동 국경 지역 개발 콘셉트를 발표²²⁾
 - 극동지역 종합 개발 계획의 기존의 개발 정책과 별도로 국경지역 위주로 새로운 개발 계획을 준비해 가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정책 대상이 되는 국경 지역은 연해지방, 하바로프스크 지방, 아무르주, 유대인자치주 국경지역의 907개 지방자치단체
 - 860개 농촌, 11개 도시, 36개 마을
- 대상 국경지역에는 극동 연방 관구 전체 인구의 1/3이 집중되어 있지만 생활 여건은 매우 열악
 - 이들 지역에는 전기나 난방, 하수처리가 가능한 주택은 전체의 약 30%에 불과
 - 64%에 해당하는 581개 지방자치단체에는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공공 인프라의 대부분이 노후화
 - 활용되는 농지는 34%에 그치고, 그중 1/3은 외국인이 운영
 - 동 국경 지역에는 일자리가 없고, 인구 유출은 연간 7,000~9,000명
- 반면, 아무르강 건너편의 중국 지역에서는 12년간 GRP가 5배 증가

21) 임시 용지 예약 사이트가 개설됨.

[НаДальнийВосток.рф / http://xn--80aagvggieoeoa2bo7l.xn--plai/](http://xn--80aagvggieoeoa2bo7l.xn--plai/)

22) 코메르산트, 2015. 11. 10, JSN, 1117호, 2015. 11. 16.

- 이 같은 성장은 국가 지원과 더불어 경제적 자주성과 규제 완화 덕택이라고 평가
- 극동개발부는 국경지역 발전과 주민 귀환 또는 주민 수 증대를 위한 국경지역에 대한 각종 혜택을 2017년부터 제공할 예정
 - 국경 지역 이주자에게 주택 제공
 - 다자녀 가정에는 토지 제공
 - 투자자에게 토지와 인프라 제공
 - 기업에 세제 혜택과 전기 요금 보조금 등을 제공
- 단순한 개발 메커니즘에 불과하다는 비평도 있음.
 - 구체적 방법이나 통계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극동에는 이미 자유항구, 선도개발구역, 발전기금 등 다양한 지원책이 새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개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도 제기
- 개념만 제시할 게 아니라 상식에 맞는 실질적인 전략과 구체적 시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 예를 들어, 국경 30km 이내 출입 제한 철폐 등

2. 한·중·일 및 북한의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 동향

(1) 한·중·일 3국의 대극동 무역 및 투자²³⁾

1) 극동지역과의 수출입

○ 2014년 러시아 극동지역 교역은 전년대비 2.7% 감소(수출 1.6% 증가, 수입 12.8% 감소)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가격 하락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구미의 경제 제재로 루블화 가치 급락이 큰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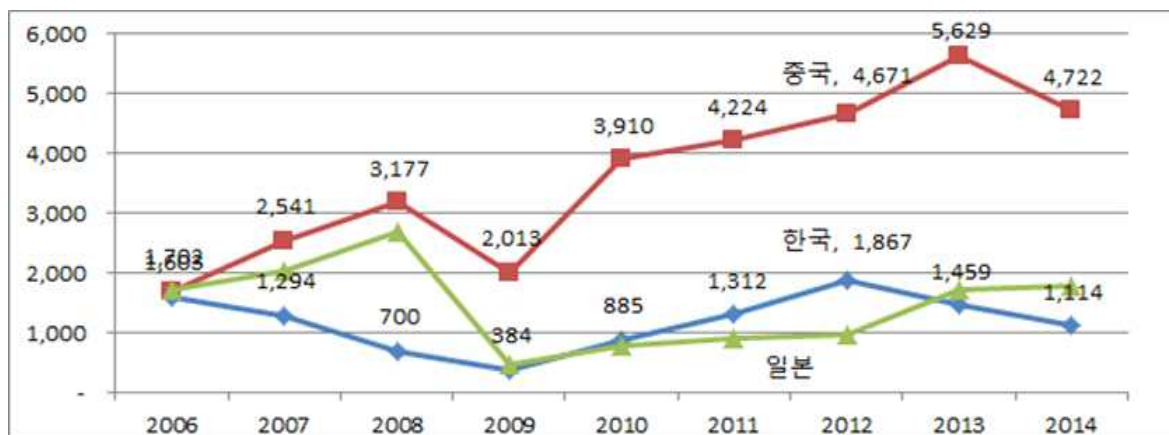
○ 러시아 극동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한국(32%), 일본(30%), 중국(19%)

- 3개국이 극동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

- 2006년까지는 일본, 2007년 이후는 중국이 대극동 최대 수출국(자동차 수입 관세 인상 영향)

<그림 III-3>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러시아 극동 세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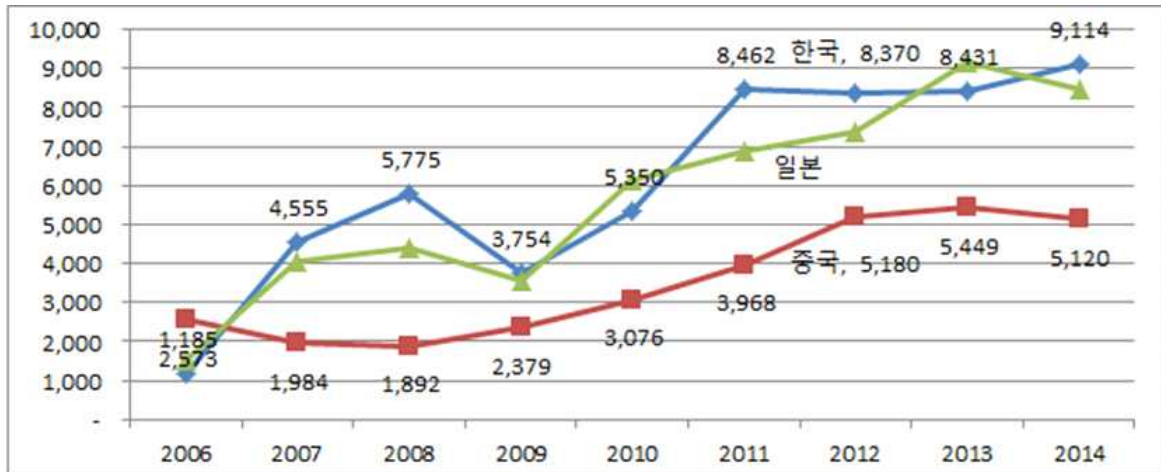
23) 이하 내용은 코트라 발표 자료 재정리.

○ 수입에서는 한국이 최대 수입국

- 사할린으로부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크게 증가

<그림 Ⅲ-4>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러시아 극동 세관통계.

<표 Ⅲ-14> 한·중·일의 러시아 극동지역별 수출입(2014년)

단위: 백만 달러

	한 국		중 국		일 본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사하공화국	4.2	63	27.4	497.1	5.1	141.7
캄차카지방	26.6	244.5	17.7	189	8.8	84.1
연해지방	907.6	1,049.8	3,927.1	1,887.1	1,637.9	300.9
하바로프스크지방	70.7	338.1	234.8	677.9	37.9	153.9
아무르주	12.2	4.7	338.5	321.7	2.2	0.8
마가단주	8.4	250	9.4	14.6	3.1	47.8
사할린주	83.6	7,159.9	78.7	1,676.9	71.4	7,736.6
유대인자치주	0	0.5	66.8	22	0	0.3
추코트자치구	0.4	3.3	21.2	132.9	7.7	0
합계	1,113.7	9,113.9	4,721.7	5,419.5	1,773.9	8,466.1

자료: 러시아 극동 세관통계.

□ 수출입 상품 구조

○ 러시아 극동의 주요 수출품은 광물성 생산품

- 연료제품이 전체 수출의 2/3 이상 차지

- 러시아 극동의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기계, 설비 등

- 기계·설비·운송장비가 전체 수입의 약 50%, 섬유제품 및 식료품이 각각 10% 내외

- 연해지방이 극동 전체 수입의 50% 차지(수입 통로 역할)

- 주요 교역 통로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정착 및 극동지역 자유항이 확대될 경우 해안 지역 교역 항 입지 확대 예상

- 중-러 국경무역 지속적 증대 예상

- 중국의 섬유제품 등 경공업제품은 국경무역을 통해 중국 인접 지역으로 수출

- 국경무역을 통한 반출이 수출량의 3배 예상

2) 극동지역과의 투자

- 러시아 전체에 대한 투자

- 직접투자 측면에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러시아에 많이 투자(2013년 말 누적 기준)

-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는 18.6억 달러, 중국은 16.8억 달러, 일본은 약 13억 달러

-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2010년 이후 정체

<표 III-15> 한국, 중국, 일본의 대러시아 투자(2013년 말 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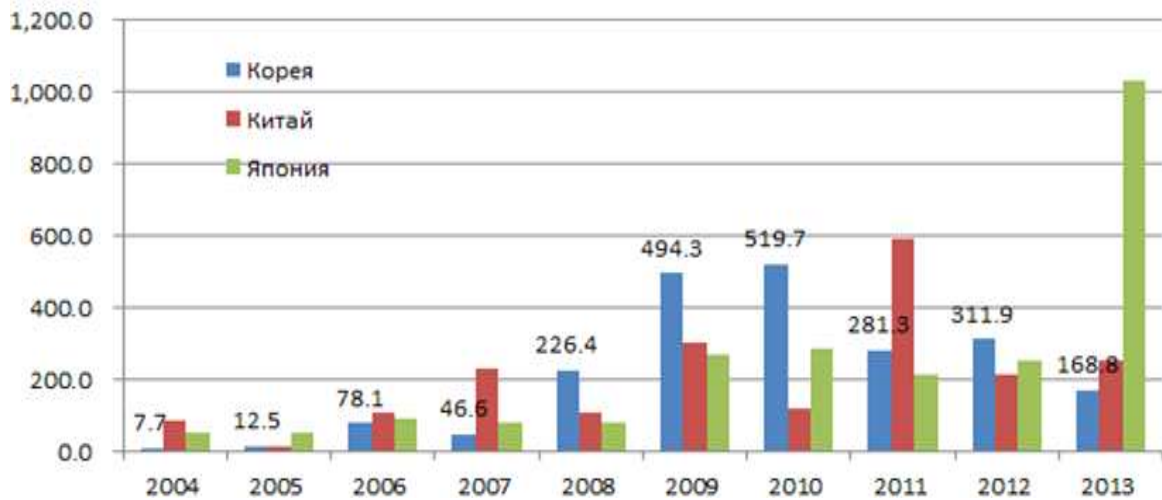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총투자		투자 형태별					
	금액	구성비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금액	총투자 대비	금액	총투자 대비	금액	총투자 대비
세계	384,117	100.0	126,051	32.8	5,691	1.5	252,375	65.7
한국	2,610	0.7	1,856	71.1	4	0.1	750	28.8
중국	32,130	8.4	1,679	5.2	15	0.0	30,436	94.7
일본	9,978	2.6	1,296	13.0	5	0.1	8,676	87.0

자료: Росстат.

<그림 III-5> 한국, 중국,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연도별 투자(직접투자)

단위: 누계기준,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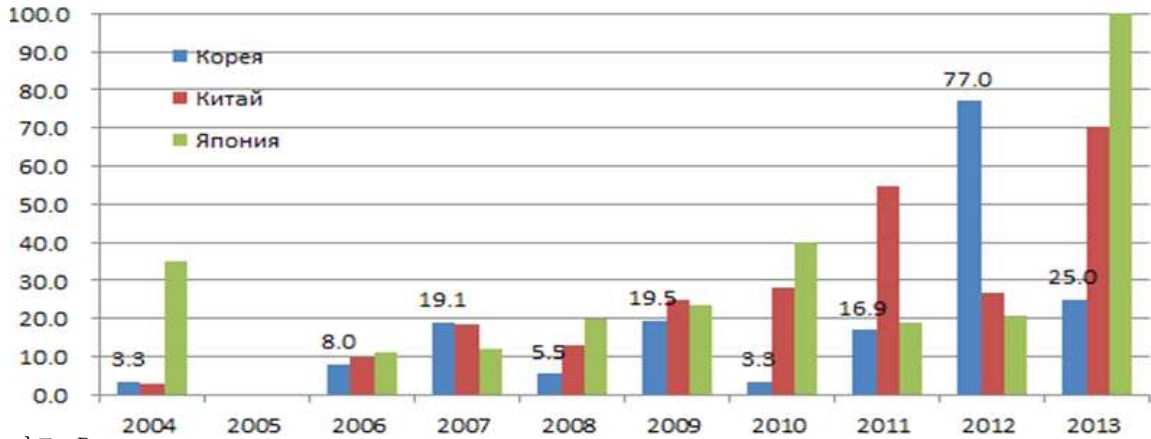
자료: Росстат.

□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그림 Ⅲ-6> 한국, 중국, 일본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연도별 직접투자

단위: 백만 달러



자료: Росстат.

○ 러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서 극동지역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표 Ⅲ-16> 한국, 중국, 일본의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

단위: 2013년 말 누계, 백만 달러, %

	러시아 전체	극동지역	극동 투자 비중
한 국	1,856	137	7.4
중 국	1,679	247	14.7
일 본	1,296	540	41.7
세계 총계	126,051	16,786	13.3

자료: Росстат.

○ 업종별 투자의 경우 한국은 제조업 분야 투자 비중이 높음.

- 한국의 제조업 분야 투자 비중은 총투자 기준 81.3%, 직접투자 기준 93.1% 차지
- 중국은 총투자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59.3%)과 수송통신(34%), 직접투자 기준에서는 부동산 및 비즈니스 서비스(47.6%)가 높고 제조업(9.9%) 비중이 낮음.
- 일본은 총투자 기준으로는 광업 분야(85.8%), 직접투자에서는 제조업(36.9%) 비중이 높음.

○ 한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업종은 비교적 다양

- 중국 역시 업종이 다양
- 일본은 광업 분야 투자 비중이 94.8%로 압도적

<표 III-17> 한국, 중국, 일본의 극동지역에 대한 업종별 투자 비중

단위:2013년 총투자 누계, %

	한국	중국	일본	세계
산업총계	100.0	100.0	100.0	100.0
농업, 수렵, 임업	13.9	18.0	1.2	0.8
수산업	9.3	0.7	0.0	0.1
제조업	17.3	22.3	3.5	1.9
건설	3.8	11.0	0.0	0.2
도소매, 자동차 및 생활용품 수리	19.9	13.4	0.1	0.3
수송통신	2.8	2.4	0.1	1.2
금융	8.1	0.0	0.0	0.9
부동산, 임대, 비즈니스 서비스	23.7	6.3	0.1	3.3
교육	0.0			0.0
보건, 사회사업	0.0	0.0	0.0	0.0
기타 공영 사회 개인 서비스	0.1	0.1	0.0	0.0
전력, 가스, 물 공급	0.0	0.0	0.0	0.2
호텔, 레스토랑	0.5	2.6	0.0	0.0
광업	0.5	23.3	94.8	91.1

자료: Росстат.

(2) 최근 극동지역에서의 중-러 협력 동향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중국 간 경제협력관계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국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
- 2015년 5월,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시진핑 주석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EEU)과 '실크로드'(중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경제권)의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

- EEU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양국 관계자들은 실제 체결까지는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²⁴⁾
- 실제로는 관세 인하 및 무역과 경제 분야에 관한 EEU와 중국 간 협력이 주요 목표로 보임.
 - 관세의 경우 전체 품목이 아닌 일부 제품의 관세를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대폭 축소해도 루블 약세로 국제 경쟁력이 강해진 러시아 제조업 체입장에서는 위험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러 국경도시에서 루블화 유통

- 2015년 8월에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러-중 국경 도시인 수분하 시에서의 루블화 유통을 공식적으로 허용²⁵⁾
 - 수분하에서는 이전부터 세관 출구에서 환전하는 불법적 형태로 루블화가 결제 통화로 유통되고 있었음.
 - 수분하에 이어 블라고베센스크 맞은편에 있는 중국 국경도시 헤이허에서도 조만간 루블화 유통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
- 루블화 유통으로 관광객의 증가와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루블 하락의 영향으로 러시아 제품의 중국에서의 수요가 증가
 - 2015년 상반기 러시아의 수분하에 대한 수출은 약 4만 5,000톤, 금액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9배 증가한 2,600만 달러(연해지방 국경 수분하 국경 세관 자료)

24) 중국은 서구의 대규모 시장도 중시하고 있으므로 러시아와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가 FTA를 맺는다면 EU와의 FTA가 경제적으로 메리트가 크다는 의견도 있음(베도모스치, 2015. 5. 12).

25) 러시아와 중국은 2014년에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 2015년 상반기 중-러 간 국제 결제 금액은 82억 2,000만 위안(13억 2,00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JSN, 1106호, 2015. 8. 24)

- 수분하 시내에는 러시아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200개 이상 개설
- 중국에서는 러시아산 밀, 기름, 코냑, 과자, 빵, 주스, 아이스크림 등이 인기²⁶⁾

□ 제1차 ‘동방경제 포럼’ 개최를 계기로 대규모 계약

○ 제1차 ‘동방경제 포럼’은 사실상 중국 위주로 진행

- 약 80건, 총액 약 1조 3,000억 루블 프로젝트 계약 성사
- 참가 인원 약 2,500명(그중 외국인인 1,500명) 32개국 참여
- 중국은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 단장으로 대규모 대표단 방문. 장관 10명, 성장 4명, 75개 기업 대표 참가

○ ‘동방경제 포럼’ 행사 계기로 대규모 계약

- 연해지방의 미하일롭스키, 나제진스키 TOR 농업 부문 총 520억 루블 투자 예정
- 하바롭스크지방 바니노항 개발
-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흑룡강성 헤이허 간 횡단 철교 등 항만 건설
- 연해지방 루스키섬 수산 바이오 시설 건설

□ 중-러 농업 발전을 위한 공동 기금 창설 협의

○ 자금 규모는 10억~30억 달러

26) 자료: 졸로토이 로그, 2015. 8. 12.

- 러시아 측에서 극동개발부, 극동개발공사, 스베르뱅크 등 여러 금융 기관이 참여 예정
 - 중국 측에서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Jinggong Int. Group 등이 참여 예정
- 동방경제 포럼에서 양해 각서 체결
-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015년 11월 베이징을 방문.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Jinggong Int. Group 등과 함께 기금 설립에 대해 협의
- 러시아 극동 농업 분야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2020년부터 농산물을 매년 1000만 톤 생산
-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로 극동지역 농업 관련 선도개발구역인 연해지방의 ‘미하일롭스카야’, 아무르주의 ‘벨로고르스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 동북지역-러시아 극동지역 간 박람회 개최
- 양국 간 박람회 개최를 통해 ‘동방경제 포럼’과 유사한 합의와 사업 제안
- 2015년 10월 12~16일 하얼빈에서 제2차 중-러 박람회 개최
- 러시아 측은 30개 지역에서 100개사 참석
 - 중국 측은 24개 도시에서 6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석

<표 III-18> 박람회 활용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사업 제안
(2015년 제2차 하얼빈 박람회)

극동 지역	주요 발표 및 제안 내용
연해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해지방 주지사, 국제운송회랑(MTC) “쁘리모리에 1·2, 선도개발구역(TOR) 나제진스키 및 미하일롭스크를 예로 들면서 중국 측 투자 요청 - ‘쁘리모리에 2’의 사업으로 자루비노 항구에서 중국 국경까지를 잇는 4차선의 유료 도로 건설 계획을 소개하고 중국의 참여 요청 - 러시아 측은 MTC 개발 사업 전체에 1,592억 루블을 투입할 예정이며, 민관 협력 방식에 의한 개발을 제안 (연해지방 주지사의 제안에 왕양 국무원 부총리는 중국 측의 지원을 약속) - 연해지방 투자 기관, 유한책임 회사 ‘시티 미디어’,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헤이룽장 지부 3자 간 어린이 보양 시설 ‘아시아의 아이들’을 루스키 섬에 건설하는 계획에 합의 - 루스키섬의 관광 클러스터 설립 계획 외에 중국 대련(溫連)수산이 해삼과 가리비의 양식 의향 제시 - TOR ‘미하일롭스카야’에 농업 및 호텔 사업에 관심을 보여 온 중국의 식품 대기업 ‘COFCO’는 러시아 측과 공동 작업반을 발족하고 작물 재배, 가공식품, 곡물 터미널 건설 등 각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합의
하바롭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중-러 박람회 개최 신청서 제출
사하공화국(야쿠치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쿠치야 정부 산하 ‘공화국 투자 회사’(RIC)와 중국의 ‘헤이룽장성 경제기술개발회사’ 간에 광상 개발 등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합의서 교환 - 러시아 측의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레나강 횡단 교량에 대해 중-러 양국 합동 작업반을 발족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기로 합의 - 레나강 횡단 교량을 자동차와 철도 겸용 교량으로 건설할지 아니면 먼저 자동차 다리를 건설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경제적 검토 후 결정하기로 함
아무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구 개발 ‘졸로타야 미라’(골든 마일) 및 블라고베센스크~헤이허 간 케이블카 건설 프로젝트와 선도개발구역 ‘쁘리 아무르스카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개최 - ‘쁘리 아무르스카야’에는 시멘트 클링커 가공 공장, 정유 공장, 물류 센터가 주요 입주자가 될 예정

자료: 노보스피, 2015. 10. 14, 사하공화국 정부, 2015. 10. 14, JSN, 1113호, 2015. 10. 19.

중국은 러시아 방문 비자 철폐 노력 중

- 루블 하락의 영향으로 러시아를 방문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으로 중국 측은 중-러 양국 간 비자 제도에 대해 철폐를 목표로 추진

- 중국 정부는 관광업을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도모를 위한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고려
 - 양국 간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비자 제도의 완화가 필요
- 이미 5명 이상 50명 이하의 단체 여행객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무비자 체류 허용
- 최근 2년간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두 배 증가하여 연간 110만 명 돌파
- 하바롭스크지방~헤이룽장성 간 대(大)우수리섬 개발 문제 협력 진전
- 대우수리섬의 중-러 국경 확정 이후 양국은 대우수리섬 공동 개발 중
- 대우수리섬 내 비즈니스 센터의 설립, 경마 관련 시설, 무술 회관, 요트와 크루즈선박용 항구 건설 등 국제적 관광 휴양지 설립 계획과 함께 선도개발 구역(TOR) 지정이 검토되어 있음.
- 중국 측은 대우수리섬에 세관 설치를 제안(2015년 5월 하바롭스크지방을 방문한 헤이룽장성 대표단)
- 양국 국경 검문소에 관해서는 2014년에 결정. 러시아 측은 사람의 통행만을 상정하고 있었지만 중국 측이 화물 통관도 허용할 것을 제안
 - 하바롭스크 인근에서의 중-러 간 화물 운송은 주로 아무르강을 횡단하는 하천 수송을 통해 이루어짐. 겨울철에 아무르강이 얼면 자동차 통행이 가능
 - 국경 통과 문제는 양국 정부 간 합의가 필요. 러시아 측도 정부에 화물 통과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할 예정

□ 극동지역의 새로운 중-러 운송 루트 개설 예정

- 중국 측은 하얼빈~지아무시~비로비잔~하바롭스크를 잇는 화물 및 여객 수송 루트를 개설할 예정
- 관광 수요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하얼빈~하바롭스크 간 새로운 여객 철도 노선의 개설 제안(2015년 5월 하바롭스크지방을 방문한 헤이룽장성 대표단)
 - 현재 하얼빈~수분하 간에는 시속 450km의 고속 열차(2.5시간 소요)가 운행 중
 -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비행기가 아니라 철도 이용 고객의 증가도 기대됨.
- 마하리노(러시아 연해지방의)~훈춘(중국 지린성) 선도 양국 간 여객 확대를 목표로 2014년 12월에 개통된 바 있으나 화물만 운송되고 있음.

□ 아무르주~헤이룽장성 아무르강 횡단 교량 건설 일정 합의

- 러시아의 아무르주와 헤이룽장성의 헤이허(흑하) 간 교역과 인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양 도시 간 교량, 케이블카 건설 등의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옴.
 - 양 도시 간에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도 그 예의 하나임.²⁷⁾
- 아무르주 주지사가 하얼빈을 방문하여 헤이룽장성 성장과 회담을 통해 블라고베센스크~헤이허 간 아무르강 횡단 교량의 건설 일정에 관한 합의서 체결(2015년 11월)²⁸⁾
 - 2016년 6월에 설계를 마치고 교량 공사에 착수, 3년 만에 완공 예정(설계

27) 아무르주의 블라고베센스크에는 중국인이 대형 창고 매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쇼핑몰도 함께 운영. 중국인 소매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블라고베센스크 매장의 물건을 구입. 제품은 고객이 알리페이(중국 알리바바의 결제 시스템)를 통해 지불한 후 중국으로 보내짐.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동 쇼핑몰 사이트의 방문자 수는 급증하여 하루에 3,000명을 넘기도 함(Gazeta.ru, 2014. 12. 24).

28) JSN, 1118호, 2015. 11. 24.

기간 포함)

- 횡단 교량의 러시아 측 건설은 아무르 주정부가 관리(건설회사는 ‘모스트’)
- 건설비용 160억 루블(중국 측 60억, 러시아 측 100억 출연)
- 건설 자금은 은행 등의 대출로 모으고 횡단 교량 통행료로 투자금 회수

<그림 Ⅲ-7> 아무르강 횡단 교량 건설



- 아무르강 횡단 교량은 아무르주 선도발전구역(TOR) ‘쁘리아무르스카야’와 ‘가스프롬’과 석유화학 대기업 ‘시부루’ 가스화학 공장도 필요(아무르주 주지사 언급)
- 2015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동방경제 포럼’에서 횡단교량 건설에 관한 중-러 합작기업 설립 합의. 이 기업은 중국 은행에서 6%의 금리로 20년간 대출을 받을 예정(노보스피, 2015. 9. 5)

- 블라고베센스크~헤이허 간에는 아무르강 횡단 교량 외에도 국경 간 로프웨이도 건설할 예정
 - ‘동방경제 포럼’에서 건설에 관한 정부 간 협정 체결
- 블라고베센스크의 아무르강 지역에는 관광 오락 지구 ‘졸로타야 마일’이 건설될 예정

아무르주 관광단지 ‘졸로타야 마일’ 개발 계획

- 아무르주 관광 오락 클러스터에 포함될 예정
 - 건설 기간: 2014~18년
 - 투자 금액(2014년 추정): 123억 루블(연방 예산 21억, 지방 예산 11억, 예산 외 기금 90억)
 - 주요 건설 예정 시설물: 산책로 ‘명장의 거리’(공사비 5억 루블), 러시아 정교회(3억 루블), 야외 스케이트장 등 스포츠 시설(20억 루블), 국제 로프웨이 역(22억 루블), 면세 쇼핑센터(6억 루블), 다기능 센터(10억 루블), 호텔(10억 루블) 등
- ‘졸로타야 마일’(40ha)은 중국 남부 관광객 유치 수월(연간 200만명까지 예상). 아무르강 횡단 교량 및 케이블카 건설이 시작되면 관광 단지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 동 관광지 개발에는 중화전국공상연합회(中華全國工商業連合會)가 투자 예정

자료: 코메르산트, 2018. 7. 9, JSN, 1101호, 2015. 7. 13.

□ 생수 분야

- 러시아의 미네랄워터 메이커 ‘나루잔’은 연간 1억 개의 생수를 중국에 수출할 예정²⁹⁾

²⁹⁾ Agro2b.ru, 2015. 11. 17, JSN, 1118호, 2015. 11. 24.

- 중국은 70%의 하천이 오염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중국의 식수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중국 식수 시장의 규모를 연간 200억 리터로 보고 있음.

□ 중-러 경제협력 관계 전망

- 러시아에 있어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 이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지만 중-러 관계의 균형 유지 문제로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 문제에 대해 당분간 계속 고심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측 자본을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신실크로드나 일대일로 정책에 서로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고자 함.
 - 기타, 러시아 측은 북극권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중국에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
- 다른 한편, 중-러 양국 간 국력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중국의 소규모 파트너 국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인도, 베트남, 한국, 일본 등 중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고 이들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나 대규모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동 수행 등을 제안

(3) 일본의 극동 진출 동향

- 일본 측에서도 서방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 무조건 따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관계로 러시아와의 협력 문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진행
- ‘동방경제 포럼’을 계기로 일본이 러시아와 체결한 주요 프로젝트
 - 마츠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엔진 생산
 - ‘MAZDA SOLLERS Manufacturing Rus’(MSMR)이 자동차 엔진 공장 설립
 - 2017년 가동 시작. 연산 5만 대, 사업 총액 약 20억 루블
 - 이이다GHD, 루스키섬에서 리조트 개발
 - 골프장(겨울철에는 스키장) 등의 리조트 개발 관련 합의서 교환
 - 고마이하이테크, 야쿠치아에 풍력발전소 건설
 - 고마이(駒井)하이테크와 동부에너지시스템, 사하공화국(야쿠치아)이 사하공화국 티크시시(인구 4,557명)에 출력 1,000kW의 풍력발전 단지 건설
 - 금년 9월에 캄차카지방에서 고마이하이테크의 풍력발전 플랜트 3기 가동
 - 마루베니, 보스토치니항 석탄 터미널 건설에 투자
 - 마루베니와 주식회사 보스토치니항은 석탄 터미널 제3기 사업 가동을 위한 협력 각서 체결
 - 마루베니는 첩로더 2기와 컨베이어 납품
 - JBIC, 보스토치니, 나호드카항 인프라 설비 확장에 투자 검토
 - 사할린의 일본 에너지 브리지 구상
 - 사할린과 북해도를 송전선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브리지 구상
 - 인테르RAO는 2025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함께 출력 300만kW의 발전소 신

설, 2050년까지 사할린에서 본토에 이르는 송전망을 러시아의 간선 송신망과 접속

- 총사업비 약 70억 루블

□ 일본 홋카이도 은행의 러시아 극동 진출 기업 지원 사례

○ 일본 홋카이도 은행은 블라디보스톡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주재원이 파견된 사무소를 개설

○ 아무르주에서 농업프로젝트 진행

○ 하바롭스크에서 진행하는 일본 닛키의 식물공장 및 홋카이도 기업들의 극동 진출을 지원³⁰⁾

- 하바롭스크 ~ 블라디보스톡 간 수송망 구축 사업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 예정 (하바롭스크의 식물공장에서 생산한 토마토와 오이를 블라디보스톡까지 수송. 돌아갈 때는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오는 일본산 각종 수입 식품을 하바롭스크 등지로 수송)

○ ‘로고스홈’ 사의 극동지역 내 주택 및 건물 인테리어 사업 지원

-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주택 신규 건설은 복잡한 절차와 많은 규제 때문에 진입이 어렵지만 인테리어의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매우 수월하고 수요도 많음.

(4) 북한과 러시아 협력

○ 수송 분야

- 하산~나진 간 화물 운송에 대해 화물량을 연간 500만 톤까지 확대 가능

30) 자료: 홋카이도 은행 블라디보스톡 주재원 사무소장 인터뷰, JSN, 1106호, 2015. 8. 24.

- 라선 특별경제구역으로의 전력수출 사업에 대한 사전 FS를 마치고 동부에너지시스템에 의한 풍력발전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날씨 데이터 수집 시작

○ 철강 분야

- 러시아 ‘세베루그룹’은 북한 김책제철연합기업소(청진시)와 석탄(러시아 측)과 철(북한)의 물물 교환(연간 2,500만 달러 상당) 진행 중
- ‘세베루’는 2015년 7월에 북한 측 냉간압연재 생산과 정제용 주철의 증산을 제안
- ‘세베루’는 북한의 또 다른 회사와도 동일한 거래를 할 예정이며 연간 무역 규모는 4,000만 달러 이상(베도모스찌, 2015. 10. 14)

○ 북-러 간 무역거래 원활화

-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1/3(약 9억 달러)은 러시아산으로 추산. 갈루슈카는 제3국의 개입을 줄여 가격 인하와 품질의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 러시아 측은 양국의 결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북-러 간 무역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아시아 무역회사’라는 기관의 설립을 제안하고 연내 시험 가동에 합의

○ 북-러 간 루블 결제 가능성 검토

- 양국은 무역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3국을 통하지 않는 거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합의, 북한 측 기업이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2015년 4월에 개최된 북-러 정부 간 회의에서 양국은 2020년까지 무역액을 1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약정

- 연방 세관 당국에 따르면 2014년도 북-러 간 무역액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9,230만 달러

(5) 북극개발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관심

- 일본 입장에서도 북극 문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 분야로 부상
 - 북극 문제는 세계 공동 관심사인 관계로 우크라이나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 문제
 -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권 내 자원 개발, 북극 항로, 북극 항로 정비, 안전한 해상 교통로 확보 등 우리와 동일한 과제에 대해 일본은 러시아와 협력 문제를 검토 중
 - 러시아는 경제권익 유지 등을 위해 북극해 항로의 안전 확보, 자원채굴 시설이나 운송터미널, 교통 인프라(파이프라인) 보호 등을 위해 북극 지역에서의 군사적 위상 강화 중
 - 2013년 2월 ‘2020년까지 북극의 발전과 국가 안보 전략’ 수립
 - 2014년 12월 1일에는 새롭게 북극권 (북부) 통합 전략사령부 발족
- 중국은 독자적 지위 확보 입장에서 북극 문제에 접근
 - 북극해 항로를 이용한 중국의 북극 진출 움직임
 - 2012년 7월 2일 중국의 극지 관측선 ‘雪龍’이 산동성 청도를 출항하여 제5차 북극 탐사 시작. 2014년에도 6번째 북극 탐사 실시
 - 최근 극동지역에서 실시하는 러시아의 군사 훈련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 일본은 북극해 문제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은근히 기대하기도 함.
 - 러시아는 자국의 영향권으로 간주하는 북극해 및 오호츠크해에 중국이 진출하는 것을 우려
 - 러시아는 북극해 및 오호츠크해에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협력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일본은 북극해 항로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2014년 7월 일본의 상선회사가 세계 최초로 북극해 항로의 상용화를 위해 3척의 쇄빙수송선을 도입하여 2018년부터 북극의 야말반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유럽과 아시아로 수송한다고 발표
 - 동북아에 있어 북극해 항로는 동해와 오호츠크해가 게이트웨이가 됨. 그에 따라 향후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해군에 의한 대테러·해적 대책의 공동 훈련을 오호츠크해 및 북극해로 확대시켜 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
 - 더불어 북극해 항로의 통로가 되는 북방영토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변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

3.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정책의 시사점

- 러시아 연방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의지는 매우 확고하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극동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과 관련한 법률 정비는 과거 러시아의 정책 추진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러시아연방 극동개발부 및 극동 지방정부 당국자들은 한·중·일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회의나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2014년부터 진행한 산업 및 무역분야 한-러 KSP 사업에 대해서도 러시아 극동 지방 당국자들은 매우 적극적이며, KSP 사업을 양국 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수시로 강조

○ 최근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정책은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과 관련된 새로운 경제특구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에 집중되고 있음.

-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모두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양자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

- 선도개발구역은 가공 생산에 더 큰 목적을 두는 지역으로, 중앙정부가 인프라 건설을 지원함.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등 자유항 대상 구역은 교역과 관련하여 통관 문제 등 물류 통관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음.

- 극동의 일부 지방정부는 인접 지역에 대해서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하기도 함.

· 캄차카지방의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트키 항구 일대가 그 예임.

○ 가까운 장래에 극동 주요 항만 및 산업지역 전역이 사실상 경제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 그만큼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의지는 매우 확고하고 적극적임.

- 2016년경에는 캄차카지방, 사할린주 주요 항만 등 극동 주요 항만지역 전역이 자유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4년을 전후하여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은 하드웨어 구축과 동시에 소프트웨어적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특징임.

-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정책 등 일련의 극동개발 관련 정책들은 기존의 인프라 건설 중심의 하드웨어적 정비에서 다소 벗어나 소프트웨어적 방안을 함께 추진
 - 2014~2015년은 단기적 성과 도출을 위해 소프트웨어적 방법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새로운 정책은 러시아 정부가 하드웨어 중심의 과거 극동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지만 외부의 평가는 아직 다소 회의적임.
- 2015년 말 기준으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경우 세부 운영세칙이 발표되지 않았고, 지정한 선도개발구역의 상당수는 기본적 인프라가 건설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특히, 산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지정된 몇몇 선도개발구역들은 인접한 외곽도로 이외에 인프라가 거의 없는 실정임.
 -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 선도개발구역에도 신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사실상 많지 않음.
- 선도개발구역 등 극동의 새로운 경제특구에 인프라가 완비되고 운영 시스템이 마무리 되더라도 외부로부터의 투자가 확대될 것인지는 아직은 불확실함.
- 러시아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종 경제특구 사례를 연구하여 극동 지역에 유리한 특구를 조성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하지만 외국의 잠재적 투자자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관련 제도나 제공하려는 세제 혜택이 타국에 비해 여전히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인프라 부족과 불충분한 혜택,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의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정책 등에 힘입어 러시아와 아·태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은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의 중국과의 협력에 다소 소극적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가고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측의 제재와 더불어 극동개발 정책에 속도가 붙지 않자 러시아 정부는 중국의 자본력, 기술력 등을 인정하고 중국에 의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점차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 국경과 인접한 연해지방 서남부 지역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의 대상 구역에 포함시킨 것이 중국에 의존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중국 역시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을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고 중국 기업들의 극동 진출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러시아의 극동 정책은 중국 동북지역 제조 기업들에게 극동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국경 통관 문제에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 국경 인접지역의 중국 기업들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정책으로 사실상 국경 통과 장벽이 사라지게 되어 자유로운 왕래뿐만 아니라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됨.
- 일본 기업들도 극동 진출에 대해 과거와 달리 적극적 입장을 취함.
 - 일본의 러시아 전문가들은 과거 극동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최근의 변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시각에서 진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³¹⁾
- 우리 기업들도 확대되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개발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극동 진출을 서둘러야 할 때임.

31) 일본의 러시아 전문가들은 극동 진출에 대해 “지나치게 넓은 극동의 영토, 도쿄 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620만 명의 극동지역 인구, 배후에 큰 시장이 없다는 점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며, 극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 ‘극동은 안 된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리스크 회피만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으로 우려(齋藤 大輔, ロシアの新しい極東政策, ロシアNIS調査月報, 2015年 11月号).

- 최근 러시아 정부의 극동 개발 정책에 대한 전례 없는 속도 및 과감한 제도 개선과 중국과 일본 기업들의 극동 진출을 고려해야 함.
 - 과거 극동에 진출하여 실패한 경험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나고, 기업과 우리 정부가 극동 진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함.
- 다만,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대상 지역이 일부 중첩될 수도 있지만 조성 목적과 제공하는 혜택이 차이가 있으므로 협력 형태에 따라 지역을 다르게 선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투자 진출의 경우 지역 선정에 신중을 기해함. 투자 대상 산업과 업종에 따라 유리한 지역이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현지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상품을 생산한 후 수출할 목적이 라면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 인접 지역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음.
 - 또한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대상 지역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므로 투자 업종에 따라 진출 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도 있음.

제Ⅳ장. 한국 기업들의 극동 진출에 대한 관심과 문제점

1.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효율적인 극동 진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의견을 조사함.

- 3개월간의 온라인 조사에 108개 기업이 참여

<표 IV-1> 설문조사 개요

설문 이름	2015년 한국 기업들의 극동 진출 지원을 위한 기초 의견 조사
조사 기간	2015년 6월 15일 ~ 9월 30일
조사 방법	KIET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에 설문 항목 등록 후 국내 및 러시아 극동 현지에서 러시아 극동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e-mail 등으로 설문 참여 요청
응답자 수	108명(설문 총참여자 수 185명, 응답률 58.4%)
기업 규모별 응답	대기업 29.6%, 중견기업 15.7%, 중소기업 13.9%, 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 40.7%
응답 경로	PC(52명), 기타 스마트폰 등의 기기(56명)

주: 2014년에도 유사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음.

○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의 업종은 매우 다양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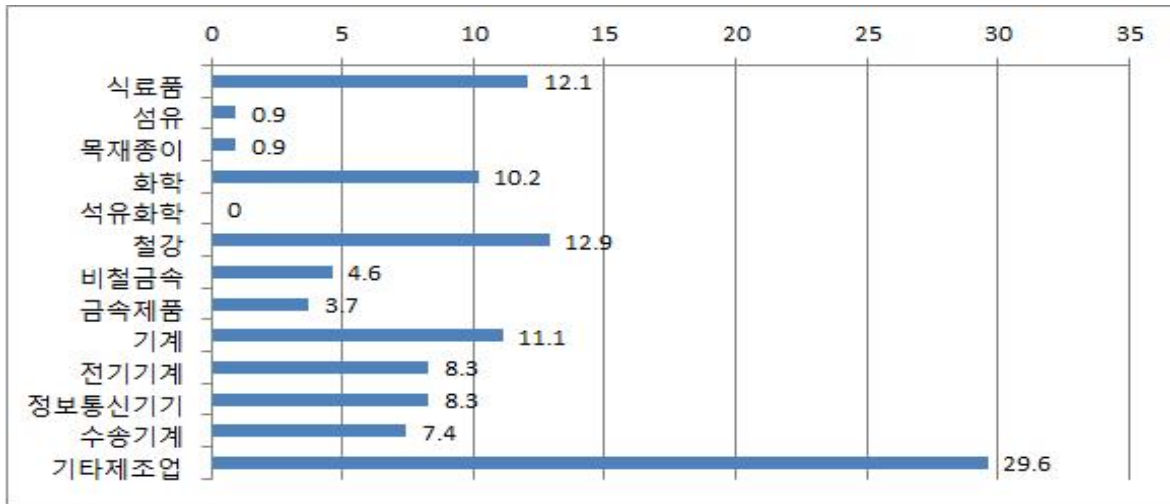
- 제조업 중에서는 철강, 식료품, 기계, 화학, 전기, IT 분야 등으로 다양

- 비제조업 중에서는 서비스업, 운수업, 건설업 분야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다양한 업종의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 극동 진출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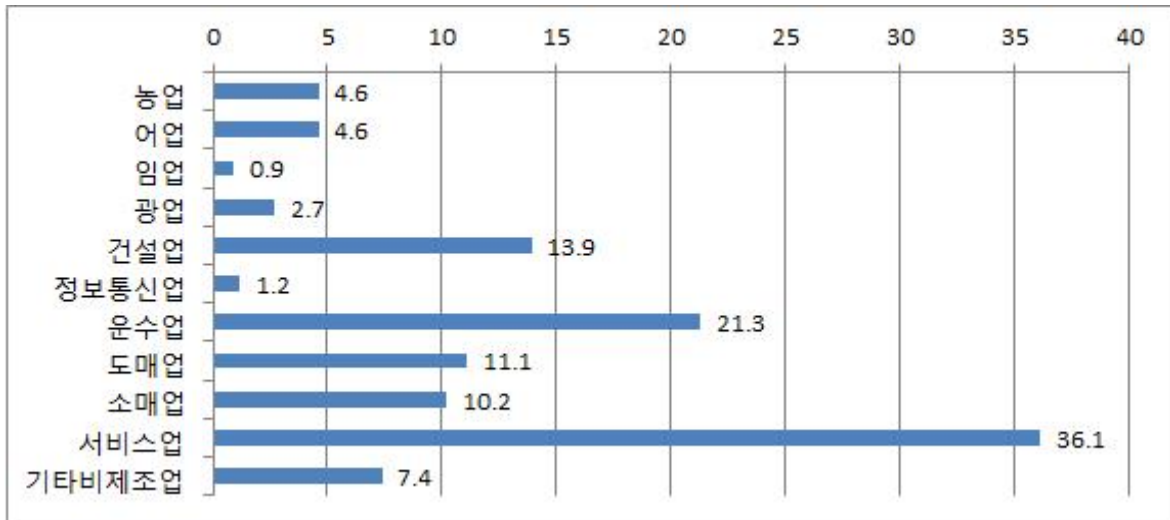
<그림 IV-1> 응답 기업의 주력 업종(제조업 내)

단위: 복수 선택, %



<그림 IV-2> 응답 기업의 주력 업종(비제조업)

단위: 복수 선택, %



(2) 관심 대상 지역과 협력 방식

○ 러시아 극동지역(바이칼 인근 지역을 포함) 중에서는 투자 진출 관심 대상 지역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관심 대상 지역으로 '극동 전체'(45.4%) 또는 지역 미정(32.4%)으로 응답한

기업의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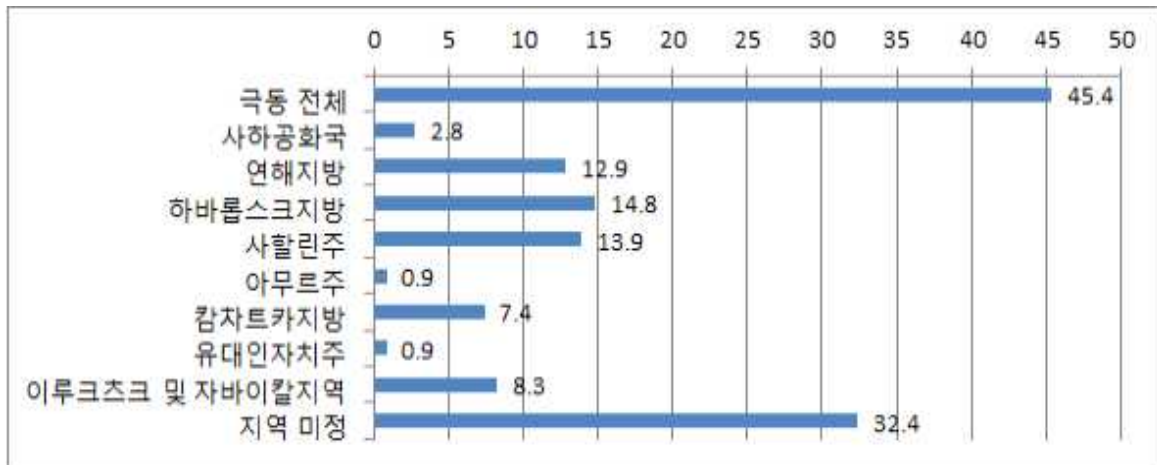
· 2015년 조사에서 ‘지역 미정’으로 응답한 기업 비율이 2014년 조사 결과보다 더 늘어남.

- 하바롭스크지방, 연해지방, 사할린주 등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극동지역 투자 진출에는 관심이 많지만 특정 지역을 선택할 정도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 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중 투자 진출 관심 대상 지역

단위: 복수 선택, %



주: 2014년 조사에서는 ‘극동 전체’(38.2%), 지역 미정(10.9%) 연해지방(25.5%), 사할린주(21.8%), 하바롭스크지방(16.4%), 캄차카지방(7.3%) 등의 순으로 관심을 보임.

○ 러시아 극동의 주요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지역별 구분 없이 ‘인프라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생산협력’ 등 여타 협력 방식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음.

- 응답 기업들의 대부분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구체적 진출 계획 없이 응답한 결과로 보임.

· 지리적 위치나 산업 발전 정도, 협력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연해지방, 하바롭스크지방, 사할린 등의 순으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나 추코트자치주와 같이 협력 가능성이 극히 낮은 지역조차 응답 기업 수가 비교적 많았음.

<표 IV-2>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중 진출을 고려하는 프로젝트 및 협력 형태

단위: 복수체크 가능, 응답기업 수, 개

		지분 투자	생산 협력	인프라 건설	컨설팅	연구 개발	교육 인력 양성	기타
사하 공화 국	공업파크 칸갈라스 (야쿠츠크 시)	3	5	15	6	6	10	13
	바자리트·뉴 테크놀러지	5	8	15	4	3	11	10
	세베르노이 미르	5	7	16	4	4	11	11
연해 지방	나제진스키	3	13	17	5	3	11	16
	미하일롭스카야	3	7	22	3	2	12	13
	루스키섬	3	5	21	6	2	12	18
	자루비노	6	10	17	4	6	12	19
	보스토치노 석유화학 콤플렉스	6	13	15	6	3	13	13
하바 롭스 크	하바롭스크 (라키토노에)	6	15	24	4	3	11	19
	콤포몰스크 (콤포몰스크)	5	11	19	6	5	10	17
	소비에트가반	4	14	17	3	4	13	14
아무 르	프레드모스토바야 (블라고베첸스키)	2	8	15	7	5	9	13
	벨로고르스크 (벨로고르스크)	3	4	15	5	4	11	12
캄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트카항	5	6	19	6	5	11	11
유대	스미드비치스키	2	5	16	5	6	12	14
추코 트자 치관 구	베린콤포스키 (베린콤포스키)	3	4	15	2	4	10	12

- 러시아 정부가 확정 또는 추가 지정 검토 중인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TOR)에 대한 진출 의사에 대한 답변에서 각 지역별 지리적 위치나 산업 발전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응답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진출 협력 형태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건설’, ‘생산 협력’, ‘교육 및 인력 양성’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음. 이 같은 응답 결과는 2014년 조사 결과와 유사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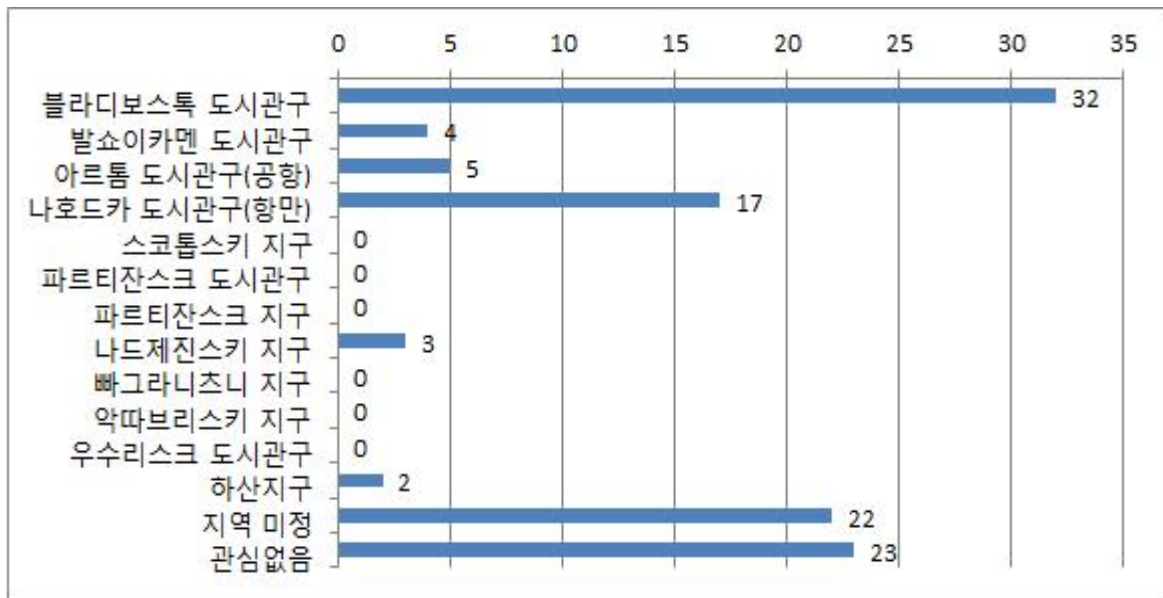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예정 지역 중에서는 블라디보스톡 도시 지역과 나호드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을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 또한 높았음.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관련 후속 세부 규범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 블라디보스톡과 나호드카를 선정한 것은 해당 지명이 우리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으로 보임.

<그림 IV-4>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정 대상 지역 중 진출을 고려하는 지역

단위: 응답기업 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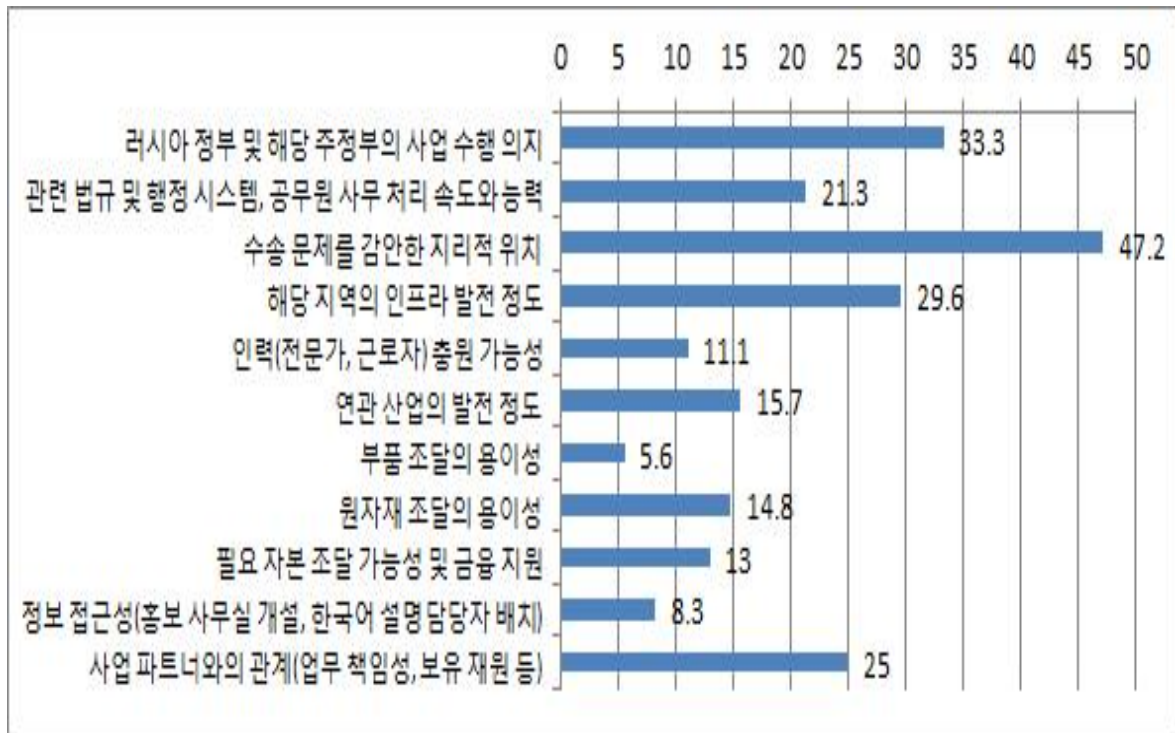
주: 설문조사 착수 당시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함.

32) 2014년 조사에서도 극동지역 14개 선도개발구역(TOR)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한 기업이 적었음. TOR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으로 보임. 다만 TOR와 관련한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인프라 건설과 생산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음. TOR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60% 정도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함. 러시아 정부의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극동지역 23개 종합 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에서도 TOR와 비슷한 정도의 답변만 있었음. TOR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정보 부족 때문으로 해석됨. 협력 방식에 대해서도 인프라 건설에 주로 관심을 보임. 자료: 2014년도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 극동 투자 진출의 지역 선정 기준으로는 지리적 위치, 러시아 측의 사업 수행 의지, 인프라 발전 문제 등을 주요 요소로 지적
 - ‘수송 문제 감안한 지리적 위치’(47.2%), ‘러시아 정부 및 해당 주정부의 사업 수행 의지’(33.3%), ‘인프라 발전 정도’(29.6%), ‘파트너와의 관계’(25%) 등을 주요 요소로 응답
- 투자 진출 시 주요 요소가 되는 ‘부품 조달 용이성’,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음.
 - 실제 투자 진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기업들의 응답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임.

<그림 IV-5> 러시아 극동 진출 대상 지역 선정의 주요 기준

단위: (복수 선택, 3개), %



주: 2014년 조사에서는 극동지역 진출 지역 선정의 기준으로 ‘인프라 발전 정도’(34.5%), ‘행정 처리 속도’(30.9%) 등을 주요 요소로 지적하였고, 특히 ‘프로젝트의 사업성’(65.5%)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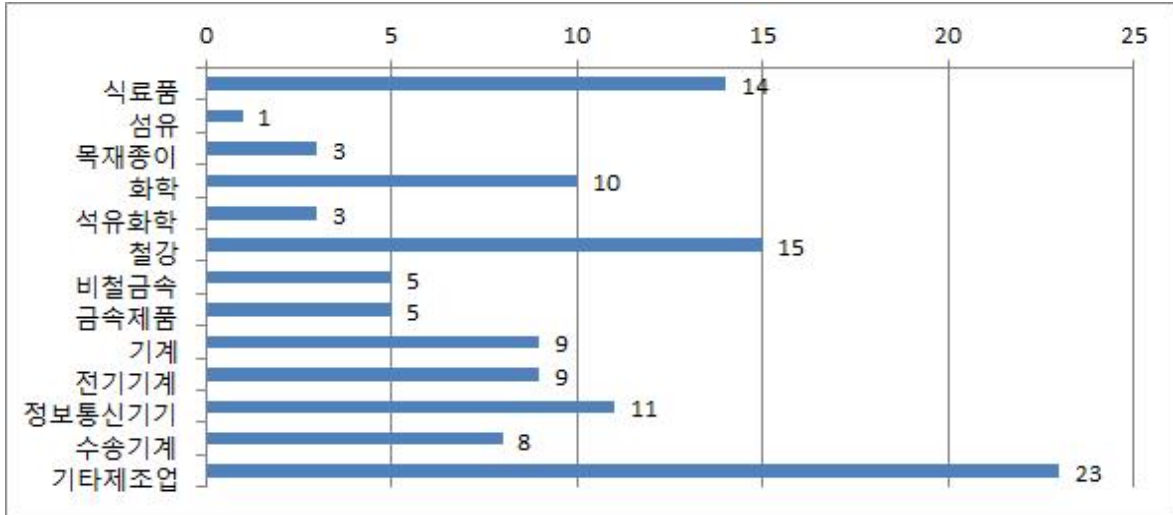
(3) 진출 관심 분야와 범위

-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대상 분야는 비교적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중에서는 철강, 식료품, 정보통신기기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보임.
 -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서비스, 운수, 도·소매, 건설, 농업 등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임.
- 2014년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제조업 중에서는 식료품(응답기업의 23.6%), 비제조업 중에서는 건설업(29.1%)과 서비스업(20%)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일부 기업들은 교육, 의료 분야 등에 대한 진출에도 관심을 표명함.
 - 관광, 의료관광, 의료, 의료장비, 금융, 건설자재, 식품가공, 도·소매 유통, 복합운송, 석탄운송, 열대 과일 수출 및 관련 투자, 화장품, 교육, 기업 컨설팅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 의지를 표명함.³³⁾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내 교육,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의 참여가 허용될 것이므로 적극적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보였음.
 - 수송 인프라(38%), 사회 인프라(14%), 각종 플랜트(14%) 건설에 높은 관심을 보임.
 - 제조업(31%), 관광(14%), 과학·기술·학술(12%), 농업 및 식품가공(9%)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보임.

33) 러시아 극동지역의 취약한 의료시설 기반을 고려하여 의료분야 진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다만 러시아 정부의 인허가 문제를 감안하여 지방정부가 아닌 모스크바와 직접 협의할 필요가 있음. 연해지방 지방정부와 업무 협의를 진행할 경우 몇 년이 걸릴지 기약을 할 수 없다는 답변도 있었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과 근접성이 좋은 곳을 선정 필요성도 제기함. 의료분야 관심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 계획 수립 이전의 검토 단계임을 지적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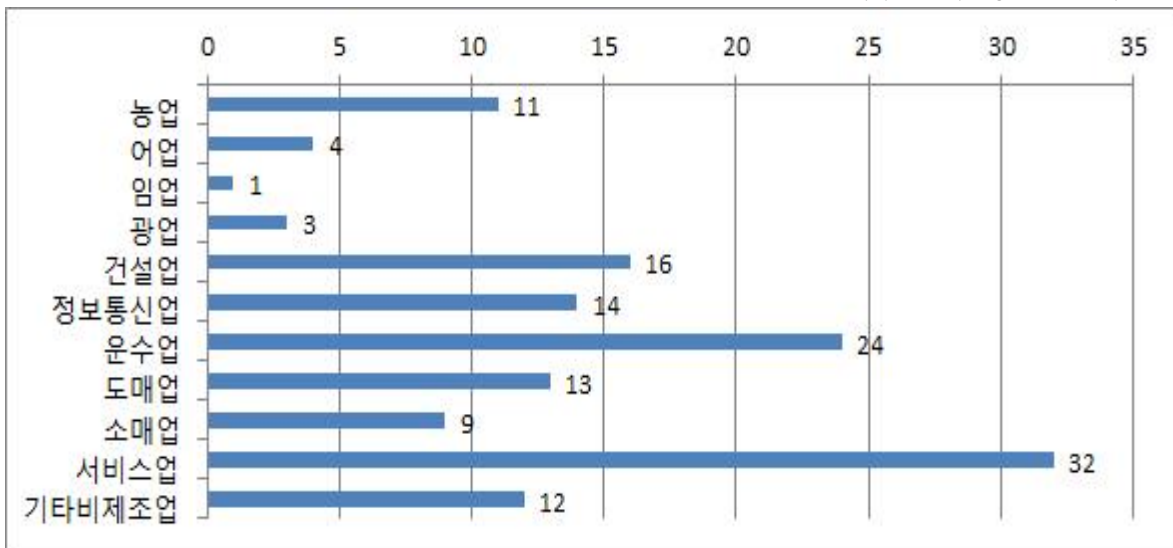
<그림 IV-6> 극동 진출 관심 분야(제조업)

단위: 복수 선택, 응답기업 수, 개



<그림 IV-7> 극동 진출 관심 분야(비제조업)

단위: 복수 선택, 응답기업 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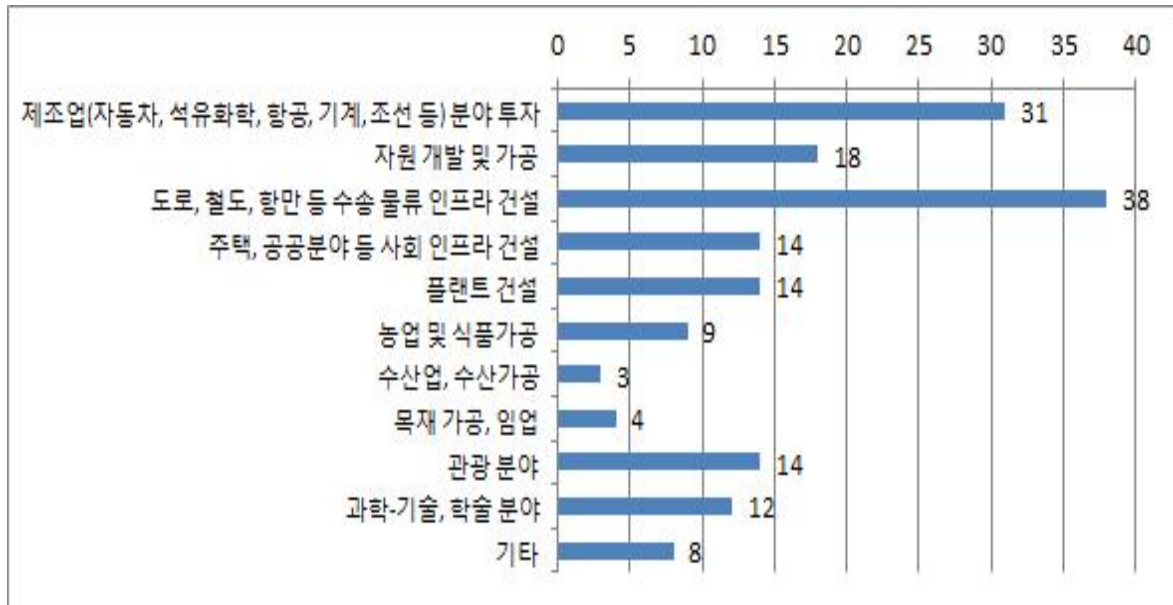


○ 응답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의 극동 개발 프로젝트 중에서는 인프라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임.

- 하지만 러시아의 건설 분야는 러시아 로컬 기업들이 대부분 수주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 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러시아 측이 육성하고자 하는 의료 관광 등의 서비스 산업과 결부시키는 등의 특별한 추가 대응책이 필요함.

<그림 IV-8>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주요 과제 중 관심 분야

단위: 복수 선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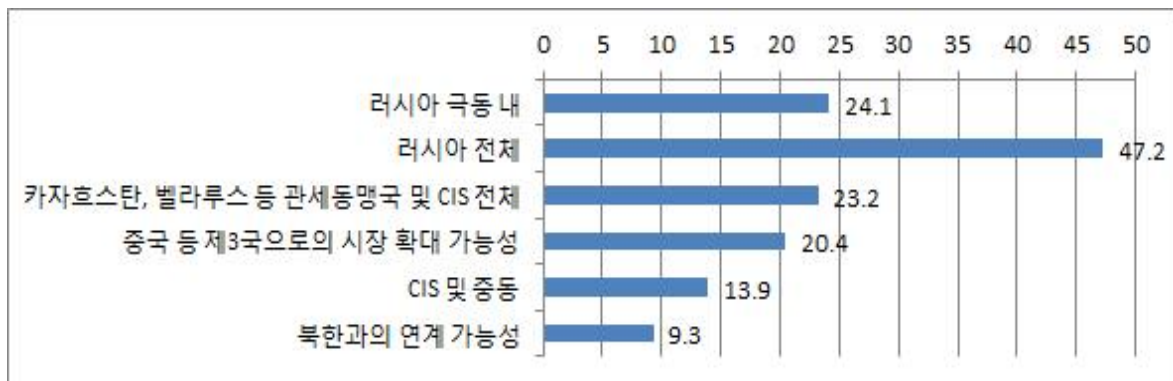


○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시 고려하는 시장의 범위로는 극동지역을 넘어 러시아 전체는 물론 CIS 지역에 대해서도 일부 관심을 보임.

- 응답 기업의 절반 정도가 극동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체’를 시장으로 보고, CIS나 중국 시장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도 20%를 넘었음.
-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음.

<그림 IV-9>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과 관련한 시장 범위

단위: 복수 선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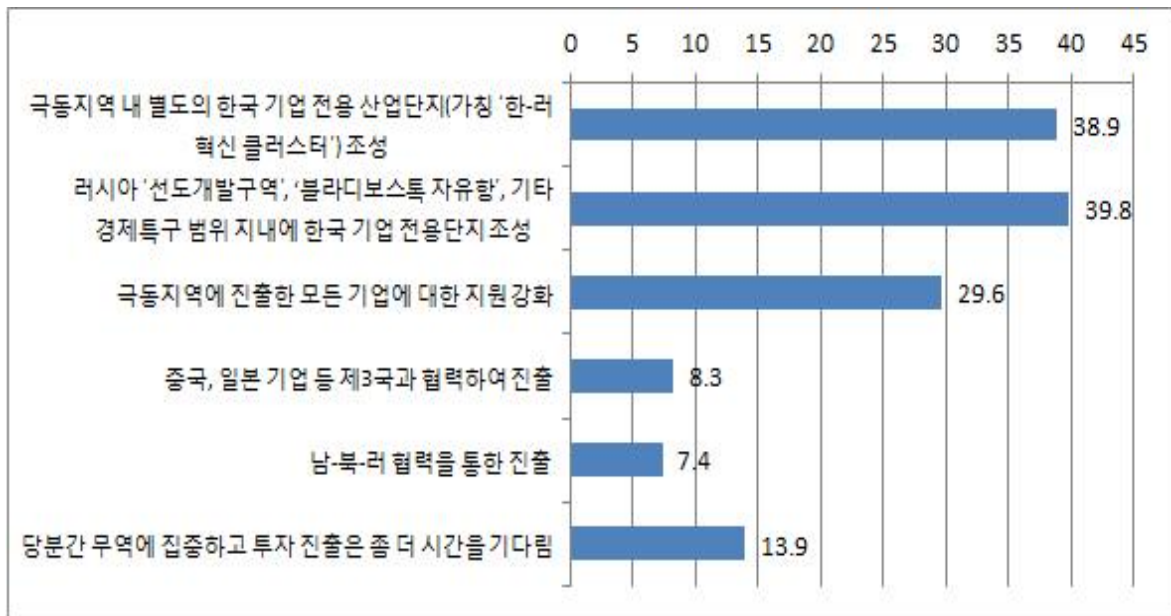
(4) 극동 진출 방식 및 진출 시기

○ 한국 기업들은 집단적 극동 진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기업의 약 40% 정도가 ‘선도개발구역’이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경제특구’ 지역에 ‘한국 기업 전용 단지 조성’을 통한 진출을 원함.
- 일부 기업은 남-북-러 협력을 통한 진출 방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임.
- 2014년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절반이 공동 진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0>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적절한 진출 방식

단위: 복수 선택, %



주: 2014년도 조사에서는 ‘선도개발구역 등 경제특구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 43.6%, ‘한국 전용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한국 기업들의 집단 진출’ 이나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집단적 진출’ 23.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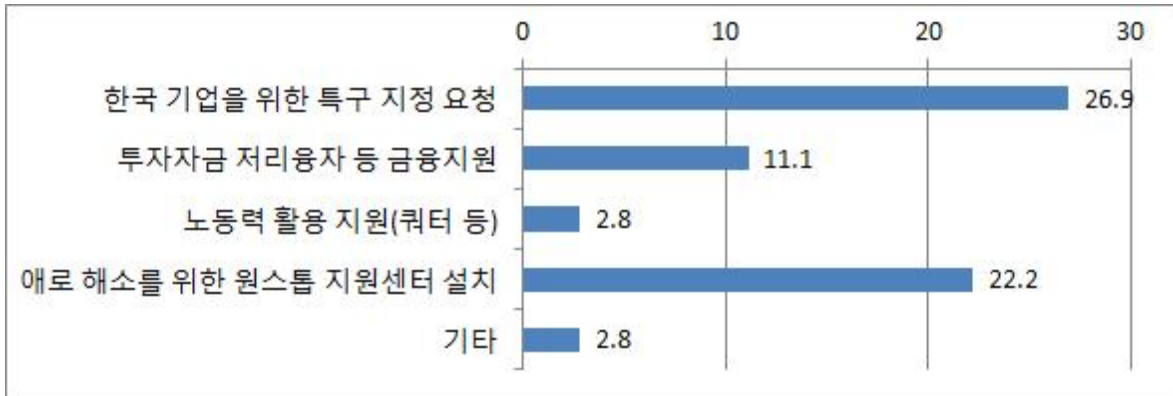
○ 기업들은 극동지역 진출 시 정부의 지원을 희망

-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러시아 측에 ‘선도개발 구역’ 등의 경제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주기를 희망

- 진출 시 애로 사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양국 간 원스톱 지원 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관심

<그림 IV-11> 극동지역에 진출할 경우의 지원 대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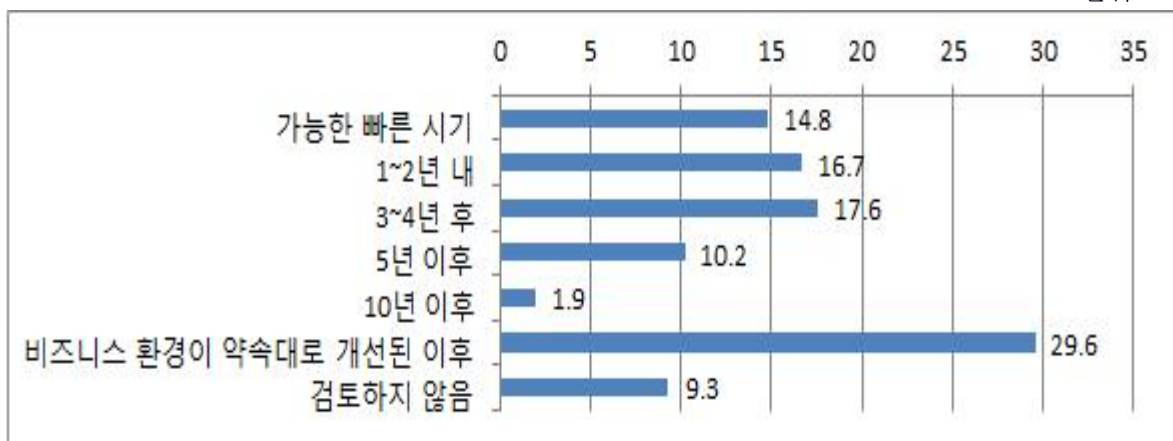


○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진출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1~2년 이내 서둘러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았음.

- 응답 기업의 1/3은 1~2년 이내 진출을 희망
- 2014년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약 절반이 1~2년 이내라고 응답

<그림 IV-12>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진출 시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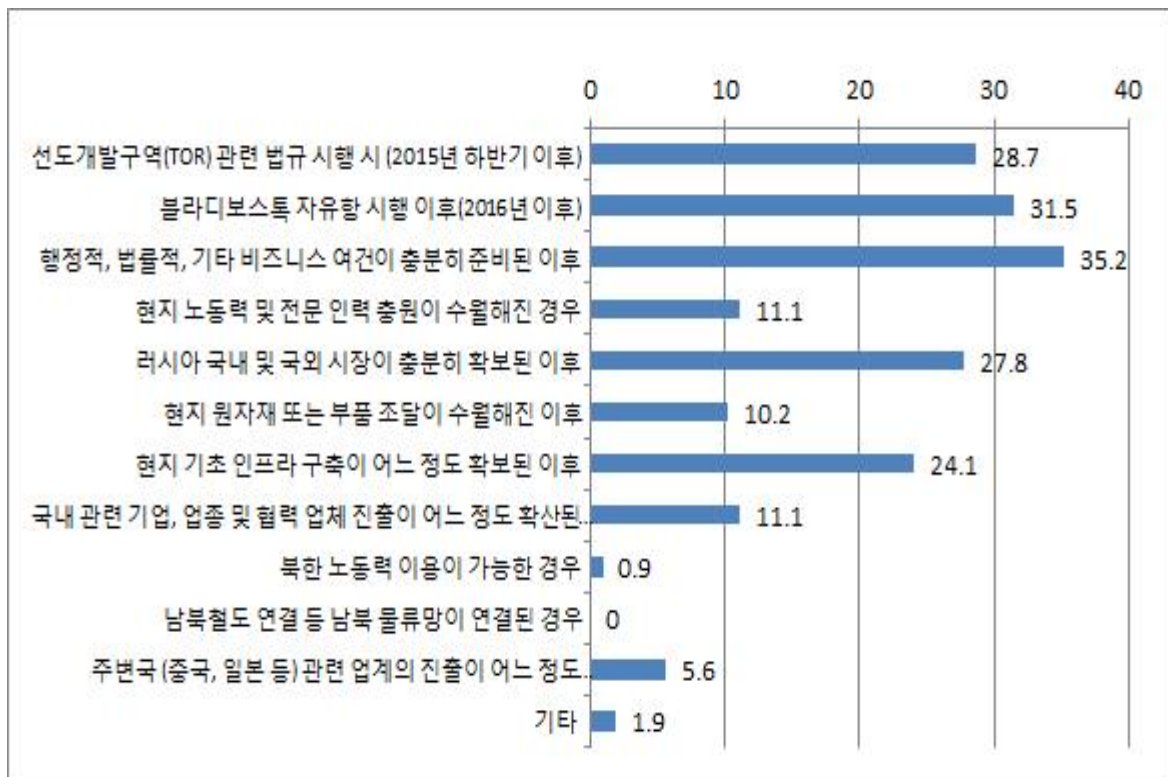


주: 2014년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1~2년 내 진출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남. 즉, '이미 늦은 감이 있다'는 응답 14.5%, '1~2년 이내'로 응답한 기업이 38.2%였음.

○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교류 시작 또는 확대 시점의 기준으로는 ‘행정적, 법률적 비즈니스 여건 조성’(35.2%)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시행’(31.5%)을 주요 기준으로 응답

- 기타 ‘선도개발구역 시행’(28.7%), ‘충분한 시장 확보’(27.8%), ‘인프라 구축’(24.1%) 등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
- 현지 인력 확보(11%), 원자재 조달(10%), 북한 인력 활용(1%)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음.

<그림 IV-13>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교류 시작·확대 시점으로 고려하는 요소
단위: 복수 선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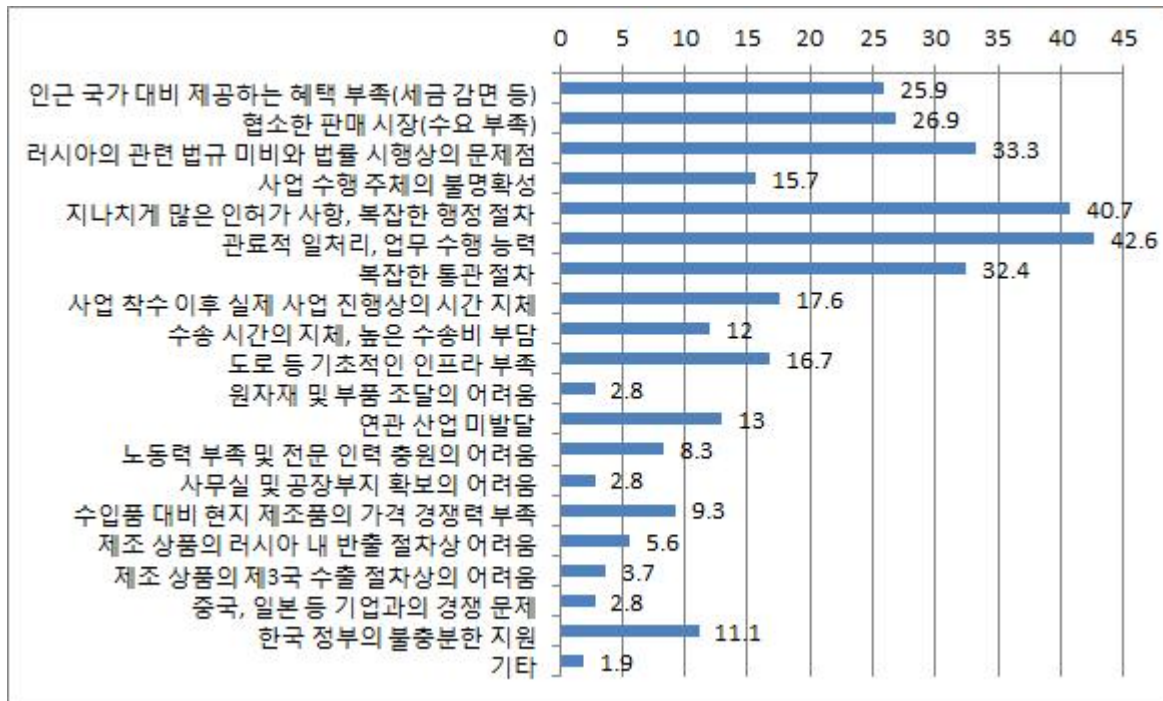
주: 2014년 조사에서는 ‘선도개발구역(TOR) 시행 이후’(41.8%)와 ‘시장이 확보된 이후’(36.4%), ‘인프라 구축 이후’(30.9%), ‘남북 물류망 연결 이후’(20.9%) 등을 주요 시점으로 꼽았고, ‘러시아의 비즈니스 환경 세계 20위 달성’, ‘현지 원자재 및 부품 조달’, ‘북한 노동력 이용’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5) 극동 투자 진출의 문제점

-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관련한 애로 사항으로 우리 기업들은 러시아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러시아의 일처리 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
 - ‘관료적 일처리’(42.6%), 복잡한 인허가 및 행정 절차(40.7%), ‘복잡한 통관 절차’(32.4%)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 2014년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법률문제 및 러시아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행정상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협소한 시장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그림 IV-14>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

단위: 복수 선택, %



- 이 같은 설문 결과는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의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정책 등으로 2015년 이후 극동지역

의 비즈니스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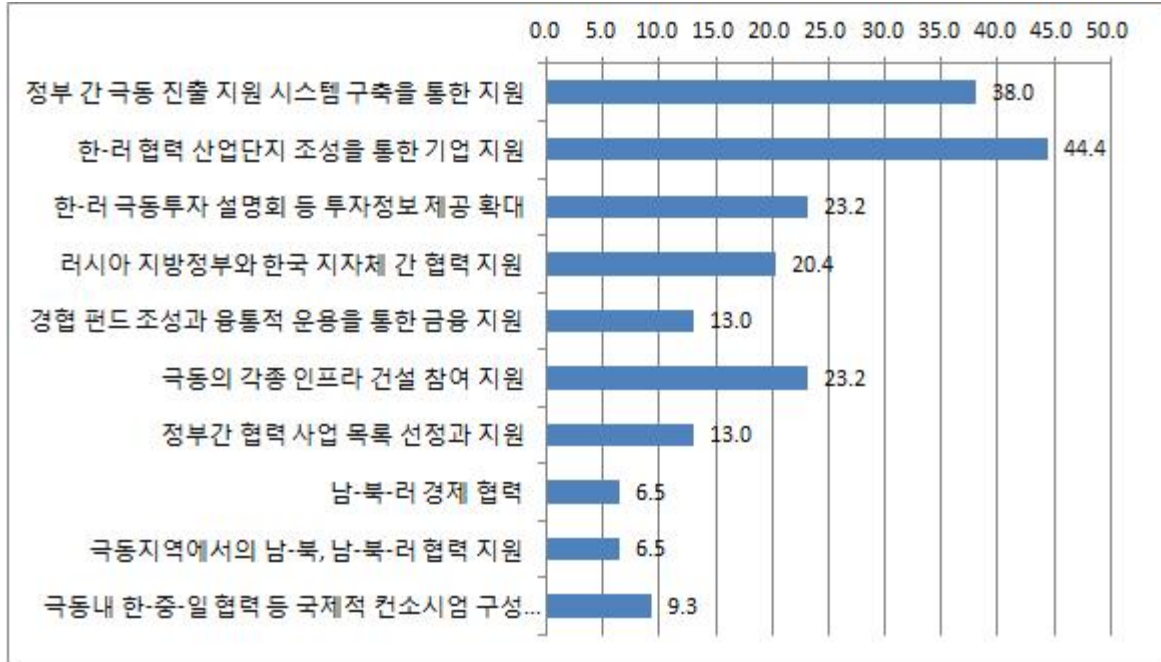
- 러시아 정부는 2018년까지 비즈니스 환경을 세계 20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매년 급속히 개선시키고 있음.
 - 러시아는 World Bank가 평가하는 비즈니스 환경 평가에서 2~3년 내로 일본을 앞설 것으로 보임.
- 원자재 및 부품 조달, 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 연관산업 미발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 극동지역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고 산업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기 문제점들이 투자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상기 문제점을 지적한 기업이 적다는 것은 응답 기업 대부분이 실제 투자를 검토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6) 극동 투자 진출 관련 정책 방향

- 극동 투자 진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극동 한-러 협력 산업단지’ 조성, ‘한-러 양국 정부의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지적
-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한-러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기업 진출 지원’(44.4%), ‘양국 정부 간 극동 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38%)을 많이 지적
 - 남-북-러 협력(6.5%), 금융 지원(13%)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낮았음.
 - 2014년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극동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꼽았고, ‘양국 정부 간 대 극동 진출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43.6%)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그림 IV-15>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 관련 우리 정부의 중점 정책 방향

단위: 복수 선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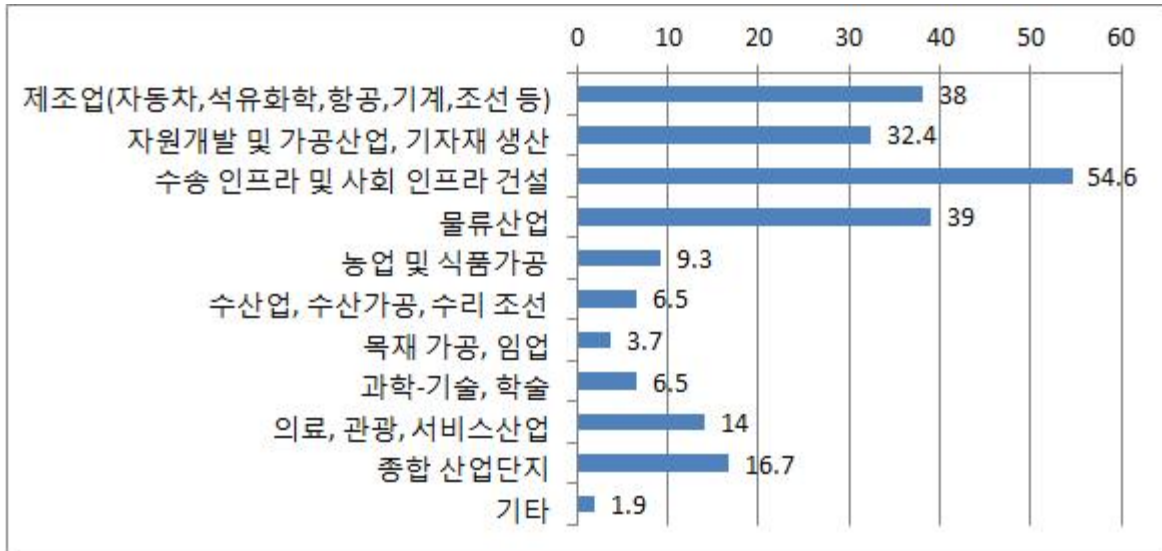


- 한-러 양국 정부 간 협력에 의한 시범적 ‘극동 한-러 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산업분야로 인프라 건설, 물류, 제조업 분야가 지적됨.
 - 인프라 건설(54.6%), 물류산업(39%), 주요 제조업(38%), 자원 개발 및 가공과 건설자재 생산(32.4%) 등의 분야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높았음.
 - ‘종합 산업 단지’,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14%) 분야도 일부 관심을 보임.
- 이 같은 설문 결과는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와는 거리가 있어 정책 추진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러시아 정부는 성공적인 극동지역 투자 유치 대상 분야로 농·수산 식품 가공, 관광, 의료, 서비스 등의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러시아의 공항이나 항만 등 수송 인프라 건설 분야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

고 복잡한 소유권 문제가 얽혀 있어 대기업이 투자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중소기업은 사실상 검토조차 어려운 분야임.

<그림 IV-16> 한-러 양국 정부 간 협력에 의한 극동지역 내 시범적 산업단지 조성 시 우선적 관심 대상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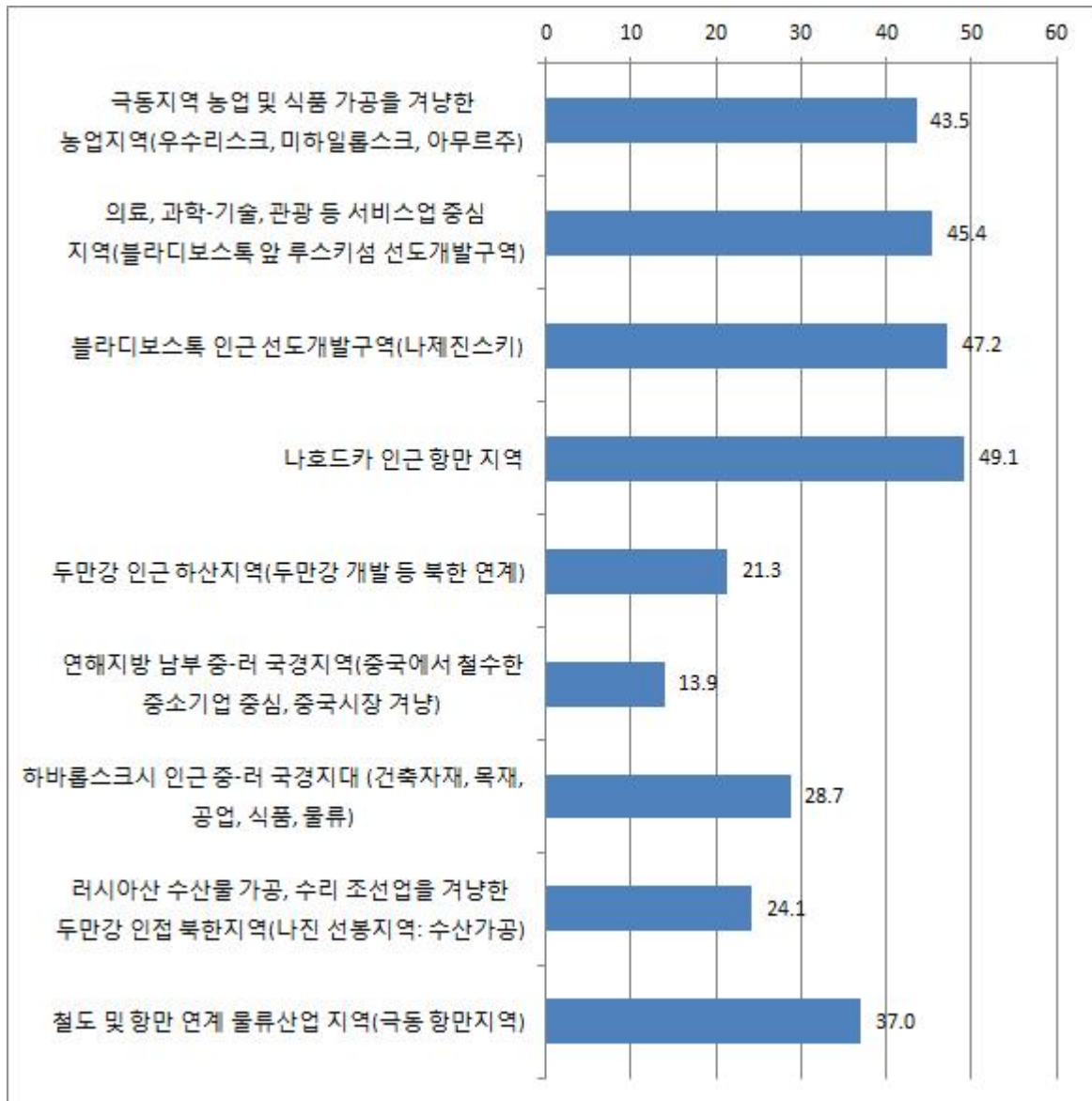
단위: 복수 선택 2개, %



- 한-러 양국 정부 간 협력으로 시범적인 소규모 ‘한국전용 산업 단지’ 또는 ‘한-러 협력 산업단지’를 극동지역에 조성할 경우의 대상 지역은 업종별로 선호지역이 다르게 나타남.
 - 러시아 정부가 연해지방 남부에 조성하고자 하는 ‘선도개발구역’과 나호드카 및 블라디보스톡 등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대상지 대부분을 대체로 선호
 - ‘나호드카’, ‘나제진스크’, ‘루스키섬’, ‘미하일롭스키’ 등 연해지방 남부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대상지에 인접한 선도개발구역에 대한 선호도 차이는 크지 않았음.
- 러시아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별로 선도개발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한 관계로 업종별 선호 지역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그림 IV-17> 한-러 양국 정부 간 협력에 의한 시범적인 소규모 ‘한국 전용 산업 단지’ 조성 선호 지역

단위: 복수 선택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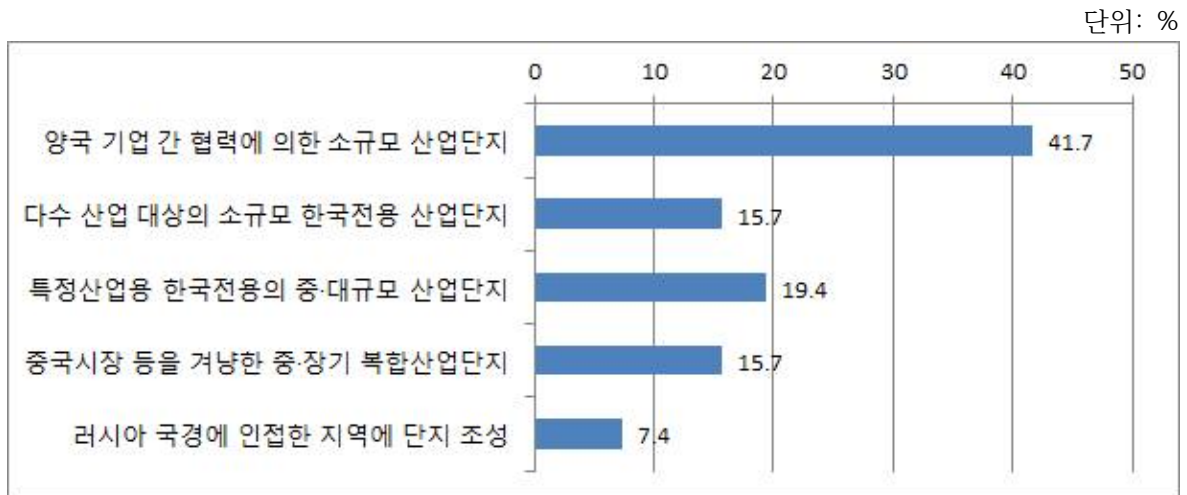
○ 기업들이 극동에 진출할 경우 업종별 투자 형태별로 선호 지역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시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업종에 따라 지역을 정해야 할 것이므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선정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극동 진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업종별로 복수의 지역을 선정하고,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규모와 기업 수를 감안하여 산업단

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극동지역에 중·장기적 시범적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기업들은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더 선호. 그러나 지역이나 협력 형식에 따라 단지 조성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그림 IV-18> 극동지역 내 중·장기적 ‘한-러 협력 산업단지’ 조성 형태



- 양국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소규모 산업단지(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관련 지역에 한-러 양국 기업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형식) 조성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응답기업 41.7%).
- 다수 산업 대상의 소규모 한국전용 산업단지(다수의 주요 개발 지역 및 거점 지역에 산업별로 적절한 지역에 10여 개 내외의 관련 기업이 공동 진출하는 방식) 선택은 15.7%
- 특정 산업용 한국전용의 중·대규모 산업단지(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관련 지역 등지에 한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진출하여 중·장기적으로 한국전용 산업단지 형성) 선택은 19.4%
- 중국 시장 등을 겨냥한 중·장기적 복합 산업단지(제조업, 가공산업, 물류,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여 러시아 시장은 물론 중국 시장 등을 겨냥

하여 특정 지역에 조성)는 15.7%

-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지역에 단지 조성(인력 문제를 고려하여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중국 등지에 러시아 자원을 가공·수출하는 형식의 한-러 산업 협력 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7.4%의 기업이 선택

2.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 기업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극동 진출과 관련한 의견 조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다양한 업종의 국내 기업들이 극동지역 투자 진출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을 선택할 정도의 구체적 계획은 대체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지식이 매우 낮음.
 - 극동지역 투자 진출의 지역 선정 기준으로는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이 수송과 관련한 지리적 위치 문제를 지적
- 극동지역에 대한 주요 투자 관심 분야는 식료품, 서비스, 건설, 농업 등임.
 - 관광, 의료, 의료관광, 의료장비, 금융, 건설자재, 식품가공, 도·소매 유통, 복합운송, 석탄운송, 화장품, 교육, 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출 의지를 표명함.³⁴⁾
- 투자 진출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인프라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임.

34) 취약한 의료시설 기반을 고려하여 의료분야 진출에 적극 검토가 필요함. 다만 러시아 정부의 인허가 문제를 감안하여 지방정부가 아닌 모스크바와 직접 협의할 필요가 있음. 연해주 주정부와 업무 시 몇 년이 걸릴지 기약을 할 수 없다고 언급.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과 근접성이 좋은 곳을 선정할 필요성도 제기함. 의료분야에 관심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 계획 수립 이전의 검토 단계임을 지적하기도 함.

- 한국에서 재배되는 많은 농산물(과일)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수출 및 투자 진출

- ‘생산협력’ 등 여타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음.
 - 그러나 러시아 로컬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단순 건설 진출 방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따라서 러시아 측이 육성하고자 하는 관광, 의료, IT 등과 연계한 건설 프로젝트, 금융 문제와도 결부시킨 특별한 대응책이 필요함.
- 극동 진출 시 러시아 및 CIS, 중국 시장 진출도 함께 고려함.
- 응답 기업의 절반 정도는 극동 진출과 관련한 시장 범위를 극동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체를 시장으로 보고 있고, 응답 기업의 약 20%는 중국 등 제3국으로의 시장 확대를 고려하고 있었음. 일부 기업은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임.
- 1~2년 이내에 극동에 진출하겠다는 기업이 많은 관계로 지원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임.
- 극동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약 1/3은 1~2년 이내에 진출을 희망
 - 우리 기업들은 ‘선도개발구역’이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시행을 극동 진출이나 협력 확대의 주요 시점으로 간주
 - 러시아 정부가 2015년에 극동의 새로운 경제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발효시켰고 2016년에는 관련 세척 정비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임.
-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는 극동 진출 애로 사항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양국 간 원스톱 지원 센터’ 설치나 러시아 정부 측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에 ‘선도개발구역’ 지정 요청 필요
- 러시아 정부도 한국 기업들이 특정 지역을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할 경우 검토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음.
-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변하였다는 점을 우리 기업들에게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들은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관련한 애로 사항으로 여전히 러시아의 행정적 절차 문제 등을 주요 걸림돌로 인식
 -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극동 주요 산업 분야를 선점하기 전에 체계적인 극동 지역 관련 정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극동 투자 세미나 개최 등으로는 한계가 있음. 극동지역별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된 원스톱 기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기업들은 극동 진출시 ‘한국 기업 전용 단지 조성’을 통한 집단 진출 방식을 선호함.
- ‘한국 전용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한국 기업들의 집단 진출이나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집단적 진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임.
 - 특히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등 경제특구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 방식을 선호
 - 일부 기업은 남-북-러 협력을 통한 진출에도 관심을 보임.
- 기업들의 극동 투자 진출과 관련한 정부 정책으로는 시범적 ‘극동 한-러 협력 산업단지’ 조성 과 기업의 집단 진출을 위한 ‘한-러 정부 간 지원 시스템 구축’인 것으로 지적됨.
- 러시아 극동지역에 시범적인 ‘한국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 지역 또한 업종별로 선호 지역이 다르게 나타남.
 - 따라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여 한국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기업의 호응도가 떨어질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시범적 ‘한국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업종별로 1개의 중견기업 또는 기관과 더불어 5~10여 개의 중소기업이 함께 진출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됨.
-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임.
- 러시아 정부가 식품가공 및 수산업 분야 투자 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및 식품 가공, 수산 가공, 양식업 등 역내 특정 업종 단체의 극동 진출을 지원하는 형식도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임.

제 V 장.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 유망 분야와 진출 전략

1.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 가능성과 유망 분야

- 러시아 극동 선도개발구역 등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을 통한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 시 성공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 산업단지 조성 가능성과 관련한 러시아 극동의 여건과 우리 기업들의 진출 의지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산업단지 조성 가능성과 관련한 러시아 측의 여건 개선
 - 러시아 정부는 각종 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양화 정책 추진
 - 지방정부 경제 정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경제특구 성과 평가 시스템 도입 등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특구 정책 개선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력한 수입대체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제조업 육성 기반 강화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혜택 확대 제공
 -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극동지역 내 경제특구 관련 인프라 및 수송망 건설
 - 세계 20위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 정책에 따른 러시아내 사업 환경 크게 개선
 - 각종 세제 혜택과 더불어 과거 러시아에서 볼 수 없었던 원스톱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 제공
 - 지역경제 발전 정책 일환으로 각각의 지방정부 역시 각종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정책 강력 추진

- 특히 극동지방에서는 선도개발구역 등 가공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각종 경제특구 지정과 클러스터 조성 등 강력한 제조업 육성 정책 추진

○ 러시아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 가능성과 관련한 한국 측 요인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등 우리 정부의 극동진출 의지와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간 협력 필요성 증대
-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
- 설문조사 결과 우리 기업들은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집단적 진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농식품, 수산가공, 조선, 건설 관련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중견기업들과 공동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을 희망
- 관할 지역 중소기업들의 극동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시키고자 노력하는 동해안 지방자치단체들의 존재

○ 상기와 같은 여건으로 볼 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경제단체 등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과 극동지역 투자진출에 대해 적극적 지원 역할을 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성공 가능성도 과거와 비교할 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극동지역에 대한 한국산업단지 조성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이미 중국 공단(우수리스크 중국공단)이 운영되고 있음.³⁵⁾

○ 러시아 극동 한국산업단지는 농업 및 식품가공과 수산가공 분야를 시작으로

35) 우수리스크 중국 공단에 관해서는 김학기(2013), 「APEC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대응 방안」, pp. 231~238 참조.

조성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정부가 수출 주도형 가공산업 육성을 극동지역 개발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 극동지역에서 일차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가공산업분야는 식품가공 및 수산물 가공 분야라는 점
 - 농식품 가공분야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극동지역에 이미 농업분야 투자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
 - 수산가공 분야는 한-러 수산분야 협력 동향과 최근 동북아 수산시장 동향으로 볼 때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냉동창고 건립이나 수산양식 분야 투자를 통한 협력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극동지역 투자 진출 유망 분야는 우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극동 한국산업단지 또한 이들 분야 중심으로 점차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수산업 및 수산가공 분야: 냉동 창고 건립 후 각종 가공 업체 집단 진출(중견기업 + 중소기업 공동 진출)
 - 농업 및 식품가공 분야: 러시아, CIS 및 중국, 아·태 시장을 겨냥한 농산물 생산 및 해당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 분야
 - 과학기술 분야: 해양 바이오산업 연구, 수산양식
 - 자원 개발 및 가공 분야: 비철금속, 희토류 가공 탐사, 광물자원 일차 가공
 - 인프라 건설 분야: 루스키섬 종합 개발 프로젝트, 수송망 및 각종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분야 진출
 - 관광, 의료, 각종 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

- 건축자재 생산, 자원 가공, 식품 및 수산식품 등의 가공산업 분야와 의료, 관광, 주택 수리 등의 서비스산업 분야가 유망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
- 우리의 대극동 경제협력 전략은 러시아 측의 극동개발 정책 방향 등을 감안하여 대응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임.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는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극동지역 진출 방안을 강구해야 됨.
-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 유망지역은 연해지방 남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및 극동 각 지방정부가 조성하는 선도개발구역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
 - 물류나 수산가공 분야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및 극동 각지의 항만 중심의 선도개발구역이 대상
 - IT, 과학·기술 분야, 서비스, 관광 등의 분야는 루스키섬을 중심으로 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이 대상
 - 식품가공 등 기타 제조업 분야는 러시아 내수는 물론 중국, 여타 CIS 시장 등을 고려하여 연해지방 남부 선도개발구역 또는 경제특구, 클러스터지역 등지가 유망
- 최종적으로는 한국기업들의 진출 정도와 시범사업 추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을 한국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함.

2.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의 기본 방향

가. 러시아의 극동개발 계획을 감안한 종합적 점진적 조성

- 극동 한국산업단지는 초기부터 산업단지를 염두에 두고 조성해 가는 방식보다는 기업들이 극동 주요 경제특구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진출한 지역을 중·장기적으로 한국산업단지로 형성해 가는 방

식으로 추진

- 경제특구 조성 초기단계에서는 특정 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소수에 불과할 것이므로 처음부터 전용 단지를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임.
 - 극동 진출 희망 기업들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공적인 산업 분야를 점차 확대하여 산업 단지로 조성
 - 러시아 측이 조성하는 주요 경제특구에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이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점차 한국기업들이 밀집된 산업단지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
- 우리 정부의 대러 협력 전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 러시아정부의 극동 개발 계획, 극동지역에 투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희망 및 진출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극동 한국산업단지는 러시아 중앙정부의 극동개발 전략과 지방정부의 분야별 세부 투자유치 전략을 감안한 종합적 진출 전략을 추진
 - 극동개발은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임과 동시에 해당 지방정부의 개발 전략이 기도 함. 사안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양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과 관련한 각종 경제특구 지역을 활용하여 추진
-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하는 극동의 특별경제지역은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기존의 경제특구, 산업별 클러스터 등 형식도 매우 다양함.
 - 러시아 극동지역의 특별 경제지역은 극동 전역의 매우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쳐 조성되고 있음.
- 러시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경제특구에 제공하는 기본적

혜택에 추가하여 행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함.

- 러시아 측의 특별 경제지역 관련 제도 완비 및 인프라 건설 진척 속도 등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업종별로 점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별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경제특구, 주요 클러스터 등지에 시범적으로 1~2개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선도개발구역 등 극동 경제특구 조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지방정부별로 한국기업의 1~2개 기업 유치에 목표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통일한국의 유라시아 진출 거점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 우리 기업들이 집중 진출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특정지역을 점진적으로 한국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체계적인 유라시아 진출 거점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유라시아 진출 거점지역으로 확보하고 남북관계 개선,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의 극동지역 진출에도 대응
- 러시아 극동지역 한국산업 단지를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동력원의 안정적인 공급 기지로 활용
-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자원 공급지로 활용
- 러시아 극동지역은 한국 경제의 추가 성장에 필요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지니고 있고 운영 중인 농토를 적절히 활용하여 가공산업단지와 연계시킬 경우 효율적인 식량 공급기지로 이용할 수도 있음.
- 러시아 극동의 산업단지는 유라시아 진출의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러시아 극동지역은 러시아는 물론,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 중동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음.

- 러시아 극동지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핵심 대상 지역이며 시발점이 되는 지역

다. 러시아 및 중국, CIS 시장 등을 겨냥한 가공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 중국 시장 진출 기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국과 인접한 선도개발구역 또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물류 및 온라인 판매 등 중-러 국경지대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러 양국 간 협력 관계와 중-러 국경무역 등을 활용
-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중점 육성 가공산업과 극동지역에서의 중-러 협력 동향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중국 시장 등을 겨냥한 농수산 식품 가공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이 성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극동지역 내 중-러 협력 관계가 크게 확대되고 있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극동지역의 중-러 수송망이 더욱 확대될 예정
 - 중국 국경과 접해 있는 연해지방 남서부 지역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포함시킨 것은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목적
- 중·장기적으로 러시아는 물론 중국 및 중앙아시아 시장을 겨냥하여 중-러 국경지역 등에 중·소규모의 제조업,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
 - 러시아가 극동지역에 추진하고 중-러 국경지역 개발 프로젝트 등을 활용하여 러시아 시장은 물론 중국 시장을 겨냥

라. 중소기업 중심의 시범적 산업단지 조성

-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는 분야는 가공품 생산 확대와 산업 및 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건설 부분 등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관심을 둘 만한 분야임.

- 특히, 가공품 생산의 경우 수산가공, 농업 및 식품 가공, 자원 가공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련 분야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정책을 시행
 - 인프라 건설 분야는 극동의 주요 수송망인 철도 및 항만 확장과 더불어 자원개발 및 각종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개발 지역과 관련한 도로 건설, 주민생활과 관련한 사회인프라(병원, 쓰레기 처리장, 유치원, 체육시설 등) 건설 등임.
-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과 우선적 투자 유치 분야, 성공 가능성 높은 분야 등을 감안할 때 일정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우선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과 관련하여 투자 진출을 요청하는 분야 역시 상당 부분은 중소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분야임.
 - 특히, 수산가공 및 식품가공, ICT,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이 우선적인 투자 요청 분야임.
 - 최근 지정된 극동 선도개발구역 역시 그러한 산업을 유치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러시아 극동 각 지방정부가 단기적으로 선도개발구역에 투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도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선도개발구역에 투자 진출을 약정한 러시아 기업들도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에 가까움.
- 중소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는 지역을 중·장기적으로 극동 한국산업단지로 확대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들은 러시아 측과 협력하여 행정적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
- 투자 진출에 성공한 중소·중견기업의 사례를 홍보하여 러시아 극동진출과 관련한 어려움이나 과거 투자 진출의 실패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
 - 과거 대기업들의 극동 투자 진출의 실패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음.
 - 러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극동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투자 진출을 주저
 - 중소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공동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극동진출의 성공 사례로 홍보하여 극동 진출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
- 적은 투자로도 성공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전개
 - 관련 중소기업들이 특정 산업분야 특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당 지역을 점차 한국산업단지로 육성

마. 중장기적으로 남-북-러 협력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

- 러시아 극동지역은 지리적 위치상 남북한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공적 남북협력사업 수행 시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음.
 - 러시아 극동지역은 남북한 협력에 의한 자원 확보, 생산 기지, 시장 확대 전초기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임.
-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성공적인 한국산업단지 운영 등을 위해서는 북한 노동

력 활용이 매우 중요함.

-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제조업 및 가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확보가 필수적임.

○ 극동 내 가공산업 육성은 북한 인력 활용 여부가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음.

- 러시아 측이 극동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각종 가공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나 극동지역은 인력이 극히 부족한 상황

○ 한국 기업들은 지리적 위치, 수송 등의 측면에서 극동지역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어려운 관계로 중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중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일대일로 정책 등에 따라 철도 연결 및 아무르강 다리 건설 등 극동지역으로의 수송망을 크게 확대해가고 있음.

- 중-러 간 국경지역에서는 국경무역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도 급증

- 중국은 헤이허 등 중-러 국경지역 인근 도시들에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러시아는 중국을 겨냥하여 중-러 국경지역 인근 개발 전략을 강구하고 있음.

- 한국은 북한을 통과하는 철로나 육상 운송 등으로 극동지역과 수송망을 연결하여 중국과 경쟁해 나가야 함.

-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 확대 및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의 진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도 북한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관계의 개선 정도를 감안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북한 노동력 활용이 절실한 분야는 건설, 농수산업, 수산물 가공, 식품 가공

등으로 러시아정부가 극동지역에 우선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 남-북 관계가 호전될 경우 극동 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할 만한 남-북-러 협력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음.

① 산업단지 및 주거지 등 각종 인프라 건설 분야에 남-북 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추진

- 극동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경제특구, 클러스터 등 각종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수송망 등 산업 인프라 건설과 주택, 병원, 유치원 등 사회 인프라 건설

- 일차적으로 극동지역의 각종 건설 사업에 북한 건설 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②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의 나진 선봉지역에 남-북-러 협력에 기반을 둔 수산 가공단지 건설. 러시아가 추진 중인 극동 수산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개발

- 국내 수산 가공 기술과 자본 + 러시아 수산물 + 북한 인력 활용

③ 두만강 횡단 자동차용 교량 건설

- 북-러 간에 거론되고 있는 두만강 횡단 자동차용 교량 건설에 한국 업체가 참여하는 문제를 러시아 측에 타진, 남-북-러 협력의 상징적 사업으로 진행

○ 극동지역에서 북한 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

- 극동 내 한국기업에서 소규모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러시아의 북한 인력 공급업체와 협의 또는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러시아 기업과 협력

- 한-러 정부 간 회의 등을 통해 극동지역에서 북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에 협조 요청

- 극동 펀드 등 관련 기금을 남-북-러 협력 사업에 활용
- 남-북-러 3자간 협의를 통해 북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안 또는 근거 마련
-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상징적인 남-북-러 협력 사업을 추진
 -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등 극동지역의 새로운 경제특구에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에 관계없이 북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적극 활용
- 철도 연결,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 등 기존에 추진되어 온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3.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의 단계별 정책

가. 1단계: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진행(1~2년 이내)

- 정부 간 협정을 통한 진출 협의와 특별경제지역 등지에서의 구체적인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제안
 - 공동연구로 러시아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공동연구 제안을 통해 한국 측의 적극적인 극동지역 진출 의지를 표명
 - 공동 연구 제안만으로도 양국 간 지속적 경제 협력에 대한 의향 표시로 외교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동연구 진행 시 러시아 측의 극동개발 정책 방향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

<표 V-1> 극동 한국산업단지 형성의 단계별 추진 전략

단계	추진 전략	목적 및 성과
1단계	- 공동연구 사업 제안과 진행 (러시아와의 KSP 사업을 공동연구 사업의 기반으로 활용)	-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에 대한 상세한 사전 정보 획득 및 러시아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극동개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참여로 외교적 효과 기대
2단계	- 시범적 선도기업 진출 지원 - 러시아와 협력하여 행정 지원	- 극동지역 우선적 육성 산업분야에 대한 진출 - 중국과 일본의 극동 진출에 대한 선도적 대응
3단계	- 선도적 진출 기업의 정착 - 관련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	- 한-러 양국이 함께 중소기업의 극동 진출 지원 - 극동 진출에 대한 부정적 의견 불식 -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산업협력 확대
4단계	- 기업 진출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극동 한국산업단지 형성 - 유라시아 진출 거점으로 확대 - 연해지방 남부, 중-러 국경지대에 상품 생산 및 서비스 산업 단지로 육성	- 러시아, 중국, CIS 등지로의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화 - 통일 한국의 자원 공급지 및 명실상부한 유라시아 진출 거점으로 활용

○ 러시아 극동 당국과 진행하고 있는 KSP 사업을 일부 응용하거나 산업별 공동 연구 사업 제안

- 2014년부터 시작한 러시아와의 산업 무역분야 KSP 사업은 공동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음.
- 극동지역 정책 당국자들로부터 러시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극동개발에 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창구 역할로도 활용 중
- 러시아 극동지역 당국과의 KSP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지방정부가 개발하고자 하는 상세한 개발 정보와 해당 주정부의 거의 모든 관련 기관(주정부, 경제 관련 단체, 대학 및 연구소, 관련 기업)들로부터 개발 계획과 현황 등에 대해 해당 정부 정책 당국자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상세한 정보도 입수함.

- 러시아 측의 수요를 감안하여 우리 측 기업들의 사업 제안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러시아 KSP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하여 추진
- 러시아 KSP 사업은 산업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러시아 측이 요청하는 사업 주제만 다를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수요를 감안한 사업 제안도 필요함.

나. 2단계: 시범적 선도기업 진출 지원(1~2년 이내)

-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장기적으로 극동 한국산업 단지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
- 선도개발구역 또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등 특별경제지역에 투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러시아와 협력하여 행정 지원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진출 지원
 - 실제 극동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중소기업 공동 진출을 양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간 협력을 통해 행정적 측면에서 지원
- 시범적으로 진출 가능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는 수산가공 및 어선 관련 수리 조선, 농업 및 식품 가공, 광물 1차 가공 등을 들 수 있음. 해당 업종별 진출 가능 지역은 다음과 같음.
 - 연해지방 나제드진스키 선도개발구역: 광물 1차 가공 기업
 - 연해지방 남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 수산가공 기업 진출이 적절한 곳을 러시아 측에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점진적으로 수산 전문 한국산업단지로 확대
 - 연해지방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 아무르주 등 농업 관련 지역: 농업 및 식품 가공, 축산 및 가공
 - 루스키섬: 의료분야, 연구 개발, 관광 분야 기업

- 하바롭스크지방, 사할린주, 캄차카지방: 수산업, 수산양식, 수산 가공, 어선 수리조선
- 시범적 기업 진출은 중국과 일본의 극동 진출에 앞서 극동 및 러시아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서의 의미도 있음.
- 시범적으로 진출한 산업 분야는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로 중국이나 일본 기업들의 진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다. 3단계: 시범적 선도 기업의 정착과 관련 중소기업 공동 진출(3~4년 이내)

- 시범적 선도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집단 진출 등을 통해 점차 한국기업 밀집지역 또는 산업단지로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러시아 측과 협력하여 지원
 - 수산 분야 냉동창고 기업이 특정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해당 지역 주변에 수산 가공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진출
 - 어선 수리조선 또는 소형 어선 제조 기업 진출 시 주변에 조선 및 관련 기자재 기업 진출
 - 농업 관련 중견기업이 연해지방 특정 지역에 진출할 경우 해당 지역 인근에 식품 가공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진출
- 극동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이 지원
 - 관련 세미나 개최, KOTRA 등에 극동 진출 지원 센터 운영
- 극동과의 산업협력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공동 진출에 적극적인 역할 담당

- 지역 간 자매결연 등을 활용. 문화 행사 위주의 교류에 그치지 말고 경제 분야 행사 공동 개최
 - 지방자치단체 내 중소기업의 극동 진출이나 산업협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핵심 산업별 투자 설명회, 전문가 세미나, 상품 전시회, 기업 미팅 주선 등
- 시범적 선도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극동 진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불식되고 관련 중소기업들의 공동 진출도 늘어나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산업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라. 4단계: 극동 한국산업단지 형성과 유라시아 진출 거점화

-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주요 지역을 극동 한국산업단지로 확대 발전시켜 나감.
- 러시아는 물론 중국, 중앙아 등지의 시장을 겨냥하여 러시아 연해지방 남부, 중-러 국경지대 등지에 러시아 자원과 북한 인력을 활용한 가공 상품 생산 및 서비스 산업 단지로 육성
- 극동 한국산업단지는 러시아는 물론 중국, CIS 시장 진출의 실질적인 거점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
- 보다 장기적으로는 통일 한국의 자원 공급지 및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거점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극동지역 내 한국 기업 밀집 지역들을 중심으로 통일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 및 식량 공급지, 북극항로 등을 염두에 둔 유통 기지, 유라시아 진출 거점 지역으로 이용
- 극동 한국산업단지 인력 진출을 지원하고 극동지역에 한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극동 진출 기지로 육성

- 학생, 청년 및 노년층의 극동 진출 지원
- 학생들의 극동지역 단기 연수 지원 등을 활용하여 극동 현지에서의 청년 창업 유도
- 중·장기적으로 극동지역에 한국산업단지가 형성되면 인근 지역에 한국 기업인 및 북한 인력, 중앙아시아 등지로부터 이주해 오는 고려인 집단 거주지 조성 문제도 검토

4.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1) 극동지역 산업별 한-러 공동연구 사업 시행

-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과 러시아의 극동지역개발 정책의 상호 성공을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산업협력에 대해 산업별 분야별 공동연구 사업 진행
 -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양국 협력 문제 전반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연구 사업 진행
 - 한국 기업의 극동지역 집단 진출 가능성, 문제점 검토, 구체적 진출 분야 및 진출 지역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관련 문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
 - 극동 각각의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중-러 국경지역 등지에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 가능성 검토
 - 북한 인력 활용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 투입 비용이나 인력 문제를 고려하여 농식품 가공, 수산 가공, 조선산업 분야

등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우선적인 연구사업 진행

- 점차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양국 간 전략적 산업분야(항공·우주,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산업) 협력에 관한 공동 연구로 연구 분야 확대

- 2013년 한·러 공동 협약 세부화 전략의 일환

- 경제제재에 따른 러시아 측의 국산화 및 현지화 제3국과의 협력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

- 기타 극동지역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 진행

- 북극항로 이용과 관련한 한-러 협력 가능 분야와 협력 방법에 대한 공동 연구³⁶⁾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연합 정책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공동 연구

- 대러 공동연구 사업 제안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는 외교적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중국 및 일본의 극동진출 전략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36) 당초 러시아 측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반대. 그러나 반대할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중국 측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방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 다른 한편 2015년 9월 제1차 '동방경제 포럼'에서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 일대일로와 CIS의 유라시아연합 간 협력 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에서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아이디어가 없는 상황.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북극 관련 연구 기관 방문을 통해 필자가 확인. 러시아 측은 북극항로와 러시아 시베리아횡단 철도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배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

(2) 극동 한국산업단지 기반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1) 한-러 극동 공동 연구소 건립 및 지원 센터 구축

- 러시아 루스키섬 개발 전략을 활용하여 ICT, 중소벤처, 의료, 관광, 과학기술, 건설,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진출하여 점차 한국산업단지로 육성
- 루스키섬에 한-러 극동 공동 연구소 건립을 통한 극동 진출 전초기지로 활용
 - 동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우선적 협력 가능분야인 한-러 수산분야 협력을 위해 루스키섬에 ‘한-러 극동 공동 수산연구소’ 설치
 - 우리나라 수산업에 필수적인 러시아 수역에 대한 정보 확보는 물론 러시아와 북한과의 수산업 협력을 활용하여 북한 수역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 사할린, 캄차카 등지에 한-러 공동 수산연구소 분소 설립
 - 극동지역 수산업 연구 발판 및 북한 지역 수산분야 연구
 - 공동 수산연구소를 기반으로 해양 바이오산업 공동 연구 제안
- 시범적 공동 연구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북극해 연구 등 분야별로 점차 연구 분야를 확대
 - 한-러 공동 과학·기술 협력 센터로 점진적 기능 확대
 - 루스키섬을 과학 기지화로 이용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정책을 활용
 - 푸틴 대통령의 국제적 공동 연구 제안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지지

- 북극권 수산 및 해양자원 연구, 북극해 및 북극권 공동연구, 온난화 문제 공동 연구 제안

<그림 V-1> 블라디보스톡 및 루스키섬



- 극동 공동연구소 건립과 더불어 루스키섬 종합 개발 프로젝트 제안을 통해 루스키섬을 한국의 전략적 극동 진출을 위한 극동 진출 지원 센터로 구축
 - 러시아 정부의 제한적인 인프라 건설비용을 감당한 건설 기업 자체 부담 방식으로 추진
 - 루스키섬 아무르만의 엘레나섬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건설 등과 연계한 종합 개발 계획안 제시
 - 한-러 공동 병원, 호텔, 골프장, 주택단지 건설과 연계한 순환도로 및 교량 건설 등을 검토

- 한국 건설업계 진출 발판으로 활용. 골프장 및 주택, 호텔 건설을 통한 분양 등의 방식으로 건설비용 충당
- 러시아 연방정부의 루스키섬 개발 계획과 방향을 감안한 적극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한국 기업들에 유리한 개발 방향 제시 및 한국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극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
 - 루스키섬은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만간 루스키섬 종합 개발 계획 발표와 더불어 선도개발구역(TOR)으로 지정될 예정
 - 러시아 정부는 루스키섬을 관광 및 연구 및 과학·기술 단지로 조성할 계획

□ 루스키섬 한국 의료 서비스 지원 센터 건립 검토

-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의 한국 방문(2015. 11. 18~22)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에 국제 의료 클러스터를 설립하고 한국의 의료 기관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협의³⁷⁾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에 외국인 진료 등을 위해 병원 진출을 허용할 예정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관련 법률로 자유항 입주 기업은 해당 국가에서 취득한 허가 서류 또는 해당국에 등록된 의약품 및 의료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

37) 러시아 측은 다음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

- 병원 건설과 의료기관 협력
- 면허와 의사 책임, 보험 문제
- 의약품 기준
- 외국인 직원 고용
- 위생·역학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 선도개발구역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짐.
- 극동 러시아 진출이 유망한 의료 분야로는 종합검진과 심혈관, 암, 성형, 치과 분야 등이 거론됨.
- 유라시아 연합 및 인근 중국 동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세부 진출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민 수와 확대되는 중국인의 교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극동지역 내에서는 블라디보스톡의 루스키섬, 하바롭스크의 대우수리섬 등이 한국의 병원 건립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

2) 수산 가공 및 수리 조선 분야 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

-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업과 관련한 최근의 큰 이슈는 수산 가공업 육성과 어선 건조 및 수리 조선소 건립 등임.
 - 선박 수리 및 어선 신규 건조 확대를 위해 어획 쿼터의 20%를 투자(국내 어선 건조 및 가공 공장 건설) 대가로 수산회사에 제공할 예정
 - 가공품 수출 장려, 그 대신 부가가치 낮은 냉동 원료를 수출하고 있는 연안어로 기업은 제재(입어료 약 7배 인상)
 - 극동지역에 2016년 3월 1일까지 수산 가공 클러스터 조성
- 러시아의 수산업 정책으로 볼 때 러시아 극동 현지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러시아 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 진출로 보다 유리한 협력 조건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함.
 - 명태 쿼터나 어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러시아 극동 현지 진출은 불가피한 상황

-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의지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수산가공 및 어선 건조 등과 연계한 수산 클러스터 구성에 대한 참여가 시범 사업으로 적절할 것으로 예상
 - 최근 러시아 수산업 정책을 감안할 때 수산업 분야 중소기업 집단 진출이 가능하며 한국산업단지 조성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임.
 - 극동지역 내 냉동창고 분야에 투자 진출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그 냉동창고를 활용하는 중소 수산가공 기업들이 냉동창고 인근에 집단 진출 가능
 - 러시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극동의 수산 관련 각 지역에 수산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책을 활용
 - 정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이 러시아 측과 협의하여 보다 유리한 진출 조건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
- 어선 수리를 위한 수리 조선소 건립 사업 또한 관련 중소기업들의 집단 진출 가능성 높음.
 - 어선 수리 및 건조, 수리 조선소 건립 등과 관련한 기업들이 진출하는 지역 또한 조선 및 수산 분야 한국산업단지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조선 기자재 업체, 수리 업체 등 분야별로 분리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이 단독으로 러시아에 진출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이 러시아 측과의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면 성공적인 집단 진출이 가능할 것임.
- 수산 가공 및 수리 조선 분야 산업단지 시범사업은 연해지방, 사할린주, 캄차카지방 등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극동 각 지역별로 주력 어종 등 수산업의 특징이 다소 상이하여 중점 육성 분야는 정책 방향에 차이가 있음.

- 지역별 차이점을 감안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의지 등을 검토하여 수산 가공 분야의 전략적 진출 지역을 선정
- 극동지역에서의 가공품 생산은 러시아 시장은 물론 중국, 일본 등지로의 수출에 초점을 두어야 함.
 - 러시아 극동 시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수산 가공품은 물론 농산물 가공품도 중국 등지로의 수출이 필수적
- 수산 가공 및 수리 조선 분야 중소기업 공동 진출 문제는 부산, 포항, 울산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미하일롭스키 농공단지 진출 시범사업 추진

- 러시아 연해지방의 미하일롭스키 농공단지 중심의 선도개발구역 정책을 활용한 농업 및 농식품 가공 분야 진출을 통한 한국산업단지 발판 마련
 - 농공단지 진출은 소액 투자로 경제적 실리는 물론 극동지역과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음.
- 연해지방의 미하일롭스키 농공단지는 인근에 이미 진출한 한국 농업관련 기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음.
 - 콩, 옥수수, 귀리, 메밀 등의 풍부한 농산물과 꿀, 버섯, 고사리 등 임산물 확보가 용이
 - 저렴한 토지 확보 가능
 - 선도개발구역법,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 비즈니스환경 개선 정책 등으로 공장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통관 문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한국, 중국, 일본 소비자를 위한 청정 식품 가공 기지로 활용 가능

- 인근 지역에 중국의 우수리스크 공단을 비롯하여 농업분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음.
- 농공단지 건설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은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항만까지의 장거리 물류 문제와 관련 인프라는 러시아 연방정부 지원에 의한 인프라 건설 계획으로 점차 개선될 예정
 - 자재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비싼 공장 건설비용은 건자재 산업 등 관련 산업 발달과 관련되어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
 - 인근지역인 연해지방의 나제드진스키 선도개발구역에서의 건자재 생산 분야 투자는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 농업 관련 숙련 노동자 부족 및 근로자 부족 문제는 선도개발구역 내 외국인 인력 활용 허용 정책에 의해 상당 부분 해소 가능. 북한 근로자도 노동자 쿼터에 관계없이 활용 가능
 - 높은 임금과 근로자 조달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근로자 활용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함.
- 기업 단독 진출보다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지원을 통해 러시아 당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음.
 - 도로, 전기, 농업용수, 수출입 관련 물류 인프라, 각종 인허가 관련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 인력 공급 문제 등
- 미하일롭스키 농공단지에서는 수산 가공품, 메밀 등 특화작물 가공품, 유기농 콩 식품 제조, 화장품 및 건강 보조 식품개발, 우유 및 육류 가공 등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미하일롭스키 농공단지에서의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제주도청의 연해지방 메밀 프로젝트 추진 제안

- 제주도청이 추진 중인 메밀 프로젝트를 러시아 연해지방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 제주도청의 메밀 6차 산업화 정책에 필요한 해외에서의 메밀 생산과 메밀 일차 가공품 수입 문제를 러시아 극동지역과 협의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동 분야는 러시아 극동 당국이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 및 농식품 가공분야 정책과 일치하여 러시아 측의 적극적인 협력 기대 가능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이 성공할 경우 기업들의 집단 진출 및 극동개발과 관련한 양국 정부 합의사항 이행이라는 외교적 성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

4) 투자 프로젝트와 연계한 인프라 건설 협력

- 투자 프로젝트와 연계한 건설 프로젝트 협력 제안
 - 투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건설사, 금융기관 등이 서로 협력하여 러시아 극동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 강구
 -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있는 루스키섬, 수산 클러스터, 수리 조선소 재건 사업, 농공단지 등과 관련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참여를 조건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건설 프로젝트 수주
 - 인프라 건설 사업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공동 조사나 간담회 개최 등의 방

법으로 체계적으로 추진

- 공동연구, KSP 사업 등을 활용하여 러시아 측과 정보 공유 및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 등을 타진
 - 이미 KSP 사업을 통해 러시아 측에서 산업단지 관련 인프라 건설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존 KSP 사업으로는 비용 문제 등으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 참여 기업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시설물 이용권 분양 등)을 강구하여 러시아 측에 제안하는 방식(국내 건설기업 대상 극동 진출 방안 간담회 개최 등)
- 러시아 극동의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회 인프라, 선도개발구역,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관련된 인프라 건설 등에 관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진행 예정
 - 극동 선도개발구역은 연방 및 지방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 등으로 관련 인프라를 건설할 예정이나 투입할 수 있는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음.
 - 재원 부족으로 러시아연방 및 주정부 주도의 인프라 건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특별한 예산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극동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수산 및 조선분야 등 시범 투자 프로젝트와 연계한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 시 러시아 측의 협력 도출이 보다 수월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중앙정부 예산이나 러시아 내부 기금에 의존하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
 - 러시아 건설기업들의 재정 압박, 기술 문제, 건설 산업 분야의 부패로 건설

속도 지체

- 루블화 환율 문제로 건설 분야 예산 투입은 더욱 어려워짐.

5.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타 지원 정책

(1)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

-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내 중소기업의 대극동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극동지역 한국산업단지 조성에 협력
 - 지방자치단체나 농수산협동조합 등 관련 기관이 중소기업의 극동 공동 진출 등에 대해 러시아 측과 협의
- 러시아 극동지역과 협력하고자 노력하는 동해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러시아 극동 각 지방정부 당국자들은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역개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협력을 통해 테크노파크 등의 기업 육성 시스템 및 운영 방식을 배우고자 함.
 - 연해지방, 하바롭스크지방, 캄차카지방 등 러시아 극동 지방 당국자들은 자매결연 체결 시 형식적 행사 개최보다는 기업 간 실질적 협력으로 확대되기를 희망
-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극동 지방 당국과의 협력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관련 행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자매결연 체결 후 문화행사 외에도 기업들의 참여로 양국 지방자치단체 간 산업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강구

- 지방자치단체 관할하의 지역발전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 기관들이 자매결연 도시와 공동으로 상품 전시회 개최,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세미나 개최, 협력 우수 사례 발표 등 추진
-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박람회에 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한-러 극동 산업협력 플랫폼' 구축과 운영

○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협력 확대와 극동 한국산업단지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한-러 극동 산업협력 플랫폼' 구축을 검토

- 상품 전시회, 투자 포럼, 기업 면담 행사 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축
-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고, 협력 대상 지역의 정책 당국자와 기업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역할 수행
- 일회성 참여로 그칠 가능성이 큰 상품 전시회, 투자 포럼 등 기존의 기업 간 교류 사업의 효과를 더욱 지속시켜 추가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한-러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도 기업 간 또는 정부와 기업 간 만남이 지속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 러시아 극동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투자 유치 포럼 등은 해당 지방의 개발 계획과 주요 사업 프로그램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 KOTRA 등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여 극동 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

- 연간 1~2회 플랫폼 관련 행사 개최

〈그림 V-2〉 한국-캄차카지방 중소기업 협력 플랫폼(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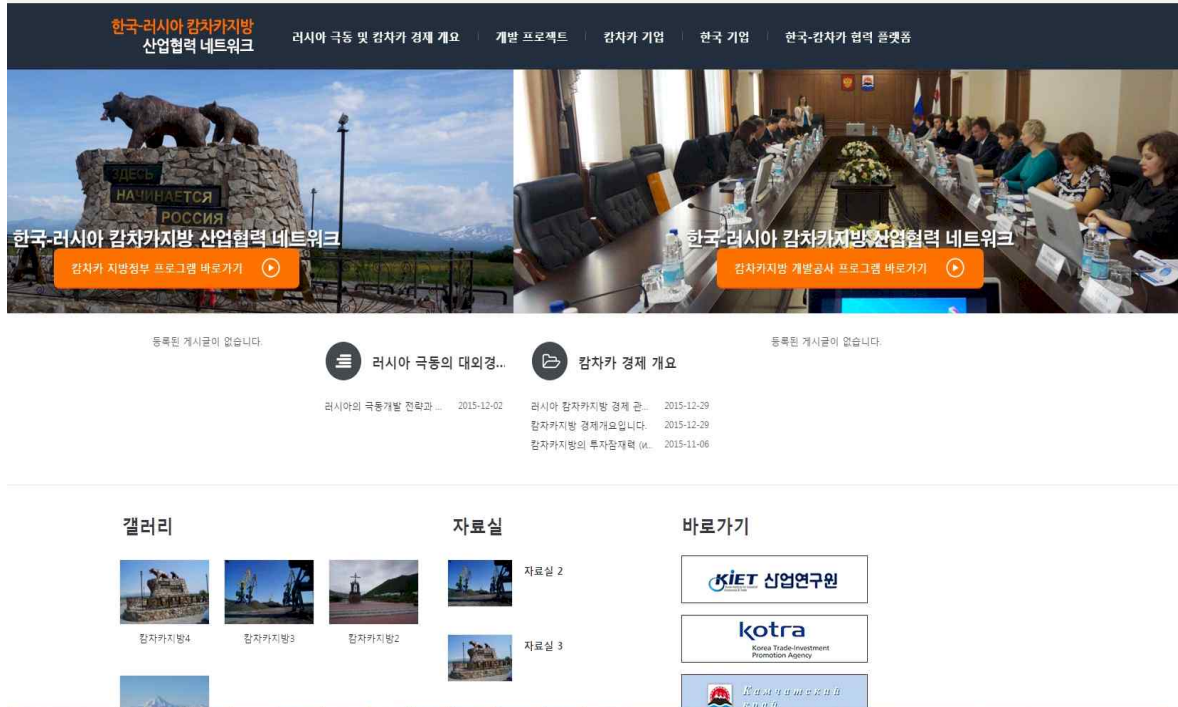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 러시아 KSP II - 캄차카지방, 중간보고 발표자료.

○ ‘한-러 극동 산업협력 플랫폼’의 정보 교류를 위해 관련 홈페이지 운영

- 극동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방 당국의 상세한 개발 프로그램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
 - 예를 들어, 러시아 KSP 사업 일환으로 시범 운영 중인 캄차카지방의 경우 해당 자료 제공에 해당 지방정부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동 홈페이지는 기업 간 교류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구축
 - 기업 간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참여 희망 기업 리스트, 협력 희망 분야 등을 정리하여 게재
- 기존에 운영 중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용 최소화
 - 예, ‘KIET 해외산업정보’ 시스템의 서버 활용

<그림 V -3> 한국-캄차카지방 산업협력 네트워크(사례)



자료: <http://kamchatka.russia.go.kr>

(3) 투자유치 포럼을 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

-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극동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관심 유도과 현지생산 체제 확대 등의 방식으로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을 지원
- 극동지역 인근 중-러 지방정부 간에 개최하는 박람회와 유사한 한-러 지방자치단체 간 박람회 개최
 - 극동 인접 중-러 양국 지방정부 간에 개최되는 박람회 사업을 활용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을 한-러 간에도 진행하여 기업들의 교역 및 투자 기회를 확대
 -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 지방정부는 대규모 박람회를 통해 상호 간 교류 확대 중

- 러시아 측은 극동개발과 상품 판매는 물론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측은 러시아 중소 상인 유치 방편으로 중-러 박람회 활용하기도 함.
- KIET와 KOTRA가 공동으로 러시아와의 KSP 사업으로 진행한 바 있는 극동 지방정부 초청 공동 투자 포럼을 중-러 간 극동 박람회와 유사한 형태로 한-러 간 박람회 사업으로 확대 진행
- 극동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한국에서 진행하는 투자 유치 포럼을 KSP 사업과 연계하는 형식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한-러 박람회 시범 사업과 함께 시행
-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극동 이외 지역으로 참여 기업 확대

(4) 학생, 조기 퇴직자, 창업자의 극동지역 진출 지원 확대

- 청년층 및 조기 퇴직자의 극동지역 진출 확대를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에 필요한 인력 공급은 물론 극동 한국산업단지 조성 및 한국의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차원에서 지원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하여 프로그램화
- 청년 취업 및 창업 정책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지원
 - 중소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정책에 극동지역을 특별 관심 지역으로 지정
- 특히 농업 및 수산업 등에 관심을 가진 조기 퇴직자 극동 진출 유도
 - 극동지역 농업 분야 계절적 시범적 파견 사업 시행
 - 극동지역 토지 무상 공급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러시아 측과 협력하여 강구

○ 학생들의 극동연방대학 유학 지원

- 극동지역 우선 육성 산업 분야, 과학기술, 항공 우주 분야 관련 학과 지원 유도
- ODA 사업으로 진행되는 학생들의 해외 파견, 자원봉사 사업 등을 활용하여 극동지역으로 단기 연수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부록>

<부록 1> 설문 조사 항목

러시아의 극동개발 확대 전략에 대비한 한국 기업들의 효율적 극동 진출 지원을 위한 기초 의견 조사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정부는 최근 들어 극동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극동개발과 관련한 최근의 주요 변화는 불과 1~2년 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극동지역의 완전한 개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여러 곳에 새로운 형식의 경제특구라 할 수 있는 '선도개발구역(TOR)'을 지정하여 투자 유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극동 주요 대도시 인근에 특구를 설치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와 자유로운 인력 활용, 각종 혜택 제공 등으로 투자 기업을 유치하여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생산된 제품을 러시아 국내시장 공급은 물론 아·태지역 등지에 수출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계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국한시키지 않고 사실상 연해지방 남·서부 전역의 13 개 도시·지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역에서는 수입 설비의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연중무휴 24 시간 통관업무 시행, 세관, 검역 등의 원스톱서비스, 비자 제도 완화 등 과거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획기적인 우대 조치들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금년 9월 3~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 포럼'을 통해 극동개발정책의 강화를 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 정부의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정책 등 극동 개발 정책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 기업들의 극동 진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극동지역에 대한 단독 진출의 어려움 때문에 공동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극동의 각종 개발지역에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도 효율적인 극동 진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의 어느 지역에, 어떤 분야에, 어떤 형식으로 진출하고자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극동 진출에 대한 의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경제협력 확대와 효율적 협력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귀사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 기본 사항

1-1. 귀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50인 이하)

1-2. 귀사의 주요 업종은 어떤 분야입니까? (복수 선택)

1) 제조업 중에서 선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식료품	섬유	목재 종이	화학	석유 화학	철강	비철 금속	금속 제품	기계	전기 기계	정보통신 기기	수송 기계	기타 제조업

2) 비제조업 중에서 선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농업	어업	임업	광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비제조업

II. 관심 분야와 관심 지역

2-1. 귀사는 러시아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중 투자 진출 관심 대상 지역이 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극동 전체	사하 공화국	연해 지방	하바롭스크 지방	사할린 주	아무르 주	캄차트카 지방	유대인자치주	이루크츠크 및 자바이칼 지역	지역 미정

<참조>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전략에서 중요한 정책인 '선도개발구역(TOR)' 정책이 본격 시행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푸틴 대통령의 서명 후 3개월이 지난 2015년 3월 30일자로 '러시아 연방의 선도 사회·경제 발전 구역'에 관한 연방법이 발효되었고, TOR에 관한 기타 하위 법령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지난해에 400여개의 선도개발구역 후보 지역 중 38개를 선정한 후, 대표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14개 지역을 예비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순차적으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TOR를 확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2월에 승인된 3개의 선도개발구역에 이어, 4월 13일에는 7개 지역이 추가로 신청되었습니다.

선도개발구역에 등록하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이익 발생 후 5년 간 연방소득세(2%) 공제, 지방소득세는 5년간 5% 미만 부과(기존 18%). 5년 경과 후에도 10% 미만으로 부과(총 수입의 90% 이상이 선도개발구역 내 영업 활동인 경우)
- 10년 동안 인하된 광물자원 채굴세율(0~1%) 혜택 적용
- 재산세 면제 (결과적으로 입주기업의 총 세금부담은 약 12.2%에 상당)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간소화
- 인하된 보험료율(기존 보험료율 총 30%에서 7.6%로 인하) 적용
- 외국인 직원 채용 및 활용 절차 간소화(허가 불필요, 외국인 쿼터제 미적용)
- 연방예산에 의한 선도개발구역 인프라 조성
- 연방 및 지방정부 관리 감독 절차 간소화
- 자유 관세지역과 동일한 관세 절차

기타, 러시아 정부는 극동 '선도개발구역'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극동발전공사'(현재 러시

아 특별경제구역을 관리하는 공개형 주식회사 '특별경제구역' 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설립 과 인력 공급을 위한 '인재 관리국'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극동지역내 부패 단속과 더불어 극동지역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선도개발구역' 입주 기업의 권리를 적극 보호 해 나가도록 연방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극동의 각 지방정부 역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투자 유치에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 귀사는 러시아 정부가 확정 또는 추가 지정 검토 중인 다음의 극동지역 선도개발 구역(TOR) 중 진출을 고려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한-러 정부 간 협의로 중점 지 원이 가능한 지역을 감안, 관심 사업별, 관심 분야별 복수 체크 가능)

	소속연방주체	선도개발구역	위치	관련 산업 및 중점 유치 분야	투자 예정액 (10억 루블)		예상 일자리수	면적 (ha)	확정 여부	진출 고려할 경우 협력 형태								
					입주기업	정부예산				투자	생산협력	인프라 건설	연구 개발	교육, 인력양성	컨설팅	기타		
1	하바롭스크 지방	하바롭스크	라키토노에	공업생산, 물 류, 식품	285	1.8		263	○									
2		콤포스몰스크	콤포스몰스크	기계(항공기 제조, 조선)	-			298	○									
3			마니노-소비에트가반	공업생산, 물 류	22			1,103										
4	연해지방	나제진스키	나제진스키	물류, 경공업, 식품	6.7	3.2		782	○									
5		미하일롭스카야	미하일롭스키, 스파스키, 체르비콤포스키	농업	39.03	4.44	2401	3151	△									
6			루스키섬	과학기술, 관 광	-			252.5										
7			자루비노	공업생산, 물 류	-			453										
8			보스토치노 석유화학 콤포플렉스	공업생산	1,281			2,933.5										
9	아무르주	프레드모스토 마야	블라고베첸스키	공업, 물류	128.9	0	1503	857.3	△									
10		벨로고르스크	벨로고르스크	농업, 식품 및 목재가공	1.45	0.086	275	702.3	△									
11	캄차카 지방	캄차트카	페트로파블롭스키 캄차트카항	항만, 공업-물류, 관광	28.1	8.3	2918	1276	△									
12	추코트차치주	베린콤포스키	베린콤포스키	광업	8	0	450	5960000	△									
13	사하공화국	공업파크 '갈라스'	야쿠츠크시	공업	1.11	0.2	350	16.9	△									
14			바자리트·뉴 테크놀	현무암 섬유, 현무암 복합	7.200			614.3										

		로지	재료 생산												
15		세베르노이 미르	공업생산, 관 광	5,0 95			5,9 10								
16	유태 인자 치주	스미드비치 스키	농업				4,2 61								

비고: ○ 2015년 2월 지정 확정, △ 2015년 4월에 2차로 추가 지정 검토 중. 나머지는 2014년 6월에 예비 지역으로 선정

〈참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은 블라디보스톡 항구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연해지방 남부 해안지역과 남서부 중국 국경 인접 지역 전역을 포괄하는 13개 도시 및 지구에 70년 동안 설치하는 새로운 개방 정책입니다. 2014년 말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2015년 6월 4일에 자유항 관련 3개 법안(자유항 관련 설치 요구사항, 세 금 감면, 규제 완화)이 정부 결정을 거쳤고 이어 의회 심의 후 2016년부터 발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인세 10% 적용(새로운 생산 및 인프라를 건설할 경우, 러시아 표준은 34%)과 관세 면제 등 각종 세금 및 임대료 우대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대상 지역내 기업들도 법안에 따른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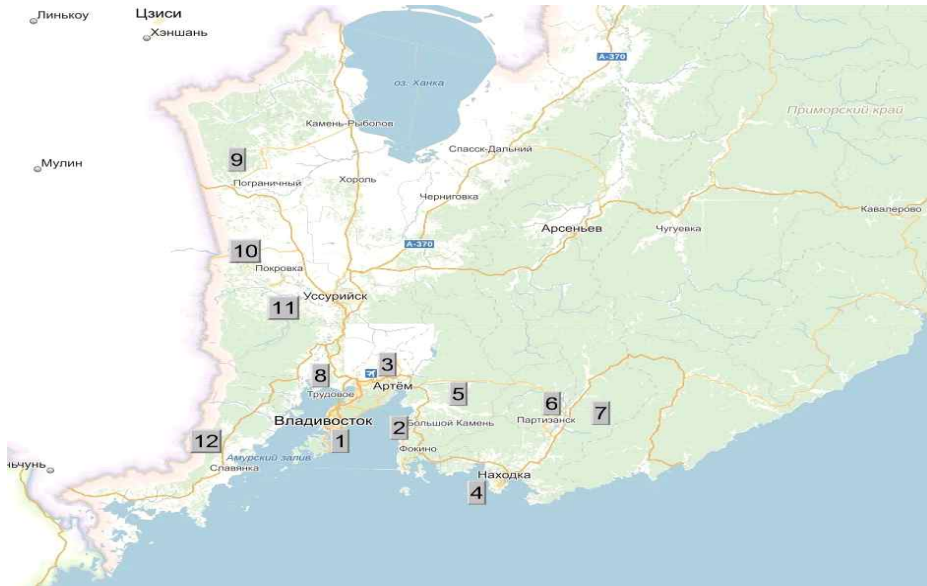
예정된 주요 우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재산세와 토지세 감면
- 비자 제도 완화 (외국인에게 국경 통과 지점에서 8일 간 비자 취득을 가능하게하고, 통 관 업무를 연중무휴 24시간 시행) 및 국경 통관, 세관, 검역 등의 원스톱 서비스
- 규제완화 (외국 기업에 대해 교육, 의료 분야 등으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하며, 기업에 대한 감사 등 제재 조치는 극동개발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시행)
- 자유항 지역내 입주기업 대상 보험료 인하 폭, 자유항 감독위원회의 권한 범위, 인센티 브 적용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 군 관할구역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추가 검토

2-3. 귀사는 추진 중인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대상 지역 중 진출을 고려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블라 디보 스톡 도시 관구	발쇼 이카 멘 도시 관구	아르 툼 도시 관구 (공 항)	나호 드카 도시 관구 (항 만)	스코 톱스 키 지구	파르 티잔 스크 도시 관구	파르 티잔 스크 지구	나드 체진 스키 지구	빠그 라니 츠니 지구	악따 브리 스키 지구	우수 리스 크 도시 관구	하산 지구	지역 미정	관심 없음

<참조 그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예정 지역(범위 미정)



2-4. 귀사는 어떤 분야 진출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수 선택)

1) 제조업 중에서 선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식료품	섬유	목재 종이	화학	석유 화학	철강	비철 금속	금속 제품	기계	전기 기계	정보 통신 기기	수송 기계	기타 제조업

2) 비제조업 중에서 선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농업	어업	임업	광고	건설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비제조업

- 3) 교육, 과학 기술 연구, 의료, 관광 등 기타 특별히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면 기재해 주십시오.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대상 지역에 교육, 의료 분야 진출에 대해서도 외국기업에게 허용할 예정입니다.)

2-5.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주요 대상 분야 중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수 선택)

①	제조업(자동차, 석유화학, 항공, 기계, 조선 등) 분야 투자
②	자원 개발 및 가공
③	도로, 철도, 항만 등 수송 물류 인프라 건설
④	주택, 공공분야 등 사회 인프라 건설
⑤	플랜트 건설
⑥	농업 및 식품가공
⑦	수산업, 수산가공

⑧	목재 가공, 임업
⑨	관광 분야
⑩	과학·기술, 학술 분야
⑪	기타 ()

2-6. 귀사와 동반 진출 시 도움 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

2-7. 귀사의 러시아 극동 진출 대상 지역 선정의 주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3개)

①	러시아 정부 및 해당 주정부의 사업 수행 의지
②	관련 법규 및 행정 시스템, 공무원 사무 처리 속도와 능력
③	수송 문제를 감안한 지리적 위치
④	해당 지역의 인프라 발전 정도
⑤	인력(전문가, 근로자) 충원 가능성
⑥	연관 산업의 발전 정도
⑦	부품 조달의 용이성
⑧	원자재 조달의 용이성
⑨	필요 자본 조달 가능성 및 금융 지원
⑩	정보 접근성(홍보 사무실 개설, 한국어 설명 담당자 배치)
⑪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업무 책임성, 보유 재원 등)

2-8.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시 경제교류(시장) 범위는 어디까지로 고려하십니까?
(복수 선택)

①	러시아 극동 내
②	러시아 전체
③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관세동맹국 및 CIS 전체
④	중국 등 제3국으로의 시장 확대 가능성
⑤	CIS 및 중동
⑥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

2-9.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은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①	극동지역 내 별도의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가칭 ‘한-러 혁신 클러스터’ 등) 조성
②	러시아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기타 경제특구 범위 이내에 한국 기업 전용단지 조성
③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경제특구 등 지역에 상관없이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③ 선택시 2-10 이동)
④	중국, 일본 기업 등 제3국과 협력하여 진출
⑤	남-북-러 협력을 통한 진출
⑥	당분간 무역에 집중하고 투자 진출은 좀 더 시간을 기다림
⑦	기타 ()

2-10. 2-9에서 ③번을 선호할 경우 어떤 분야 지원이 시급하다 보십니까?

①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데 더욱 유리한 새로운 지역을 ‘선도개발구역’ 등 경제 특구 형식으로 지정해 줄 것을 러시아 정부에 요청
②	현지 투자자금 저리융자 등 금융지원
③	낮은 인건비의 노동력 활용 지원(쿼터 등)
④	진출 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 간 원스톱 지원 센터 설치
⑤	기타()

Ⅲ. 진출 여건과 시기

〈참조〉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World Bank 평가 기준 세계 15위의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 189개 국가 중 이미 62위(2012년 123위)로 BRICs 국가 중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최근의 개선 속도(3년 만에 61개 국가 앞지름)를 감안하면 러시아는 이미 과거의 러시아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3-1. 귀사가 러시아 극동지역에 투자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가능한 빠른 시기
②	1~2년 내
③	3~4년 후
④	5년 이후
⑤	10년 이후
⑥	비즈니스 환경이 약속대로 개선된 이후
⑦	검토하지 않음

3-2. 귀사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교류 시작 또는 확대 시점으로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복수 선택)

①	경제특구보다 많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제공이 예상되는 ‘선도개발구역’ (TOR) 관련 법규 시행 시 (2015년 하반기 이후)
②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시행 이후(2016년 이후)
③	행정적, 법률적, 기타 비즈니스 여건이 충분히 준비된 이후
④	현지 노동력 및 전문 인력 충원이 수월해진 경우
⑤	러시아 국내 및 국외 시장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⑥	현지 원자재 또는 부품 조달이 수월해진 이후
⑦	현지 기초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확보된 이후
⑧	국내 관련 기업, 업종 및 협력 업체 진출이 어느 정도 확산된 이후
⑨	북한 노동력 이용이 가능한 경우
⑩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 물류망이 연결된 경우
⑪	주변국 (중국, 일본 등) 관련 업계의 진출이 어느 정도 확산된 경우
⑫	기타 ()

IV. 극동 투자 진출의 문제점과 정책 제안

4-1. 귀사의 러시아 극동지역의 투자 진출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①	인근 국가 대비 제공하는 혜택 부족(세금 감면 등)
②	협소한 판매 시장(수요 부족)
③	러시아의 관련 법규 미비와 법률 시행상의 문제점
④	사업 수행 주체의 불명확성
⑤	지나치게 많은 인허가 사항, 복잡한 행정 절차
⑥	관료적 일처리, 업무 수행 능력
⑦	복잡한 통관 절차
⑧	사업 착수 이후 실제 사업 진행상의 시간 지체
⑨	수송 시간의 지체, 높은 수송비 부담
⑩	도로 등 기초적인 인프라 부족
⑪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의 어려움
⑫	연관 산업 미발달
⑬	노동력 부족 및 전문 인력 충원의 어려움
⑭	사무실 및 공장부지 확보의 어려움
⑮	수입품 대비 현지 제조품의 가격 경쟁력 부족
⑯	제조 상품의 러시아 내 반출 절차상 어려움
⑰	제조 상품의 제3국 수출 절차상의 어려움
⑱	중국, 일본 등 기업과의 경쟁 문제
⑲	한국 정부의 불충분한 지원
⑳	기타 ()

4-2.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진출이나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①	양국 정부 간 대 극동 진출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원
②	극동지역 내 한-러 협력 산업단지(또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기업 진출 지원
③	러시아와 협력을 통한 러시아 극동 투자 설명회, 투자 정보 입수 및 관련 정보 제공 확대
④	러시아 지방정부와 한국 지자체 간 협력 지원
⑤	대러 경험 펀드 조성 및 융통성 있는 운용을 통한 실질적 금융 지원
⑥	러시아 극동 각종 인프라 건설 참여 지원
⑦	한-러 정부 간 협력 사업 목록 선정과 지원(중-러 정부 간 추진 방식)
⑧	북한을 통과하는 철도, 가스관 사업 등 남-북-러 경제 협력
⑨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남-북 또는 남-북-러 협력 지원
⑩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한국-중국-일본 등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과 국제적 컨소시엄 구성 지원
⑪	기타 ()

V. 한-러 협력 시범 산업 단지 조성 대상 분야 및 지역

5-1. 한-러 양국 정부 간 협력으로 극동지역에 시범적 한-러 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귀사는 어떤 분야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2개)

①	주요 제조업(자동차, 석유화학, 항공, 기계, 조선 등)
②	자원 개발 및 가공 산업, 건설 자재 등 각종 기자재 생산
③	각종 인프라 건설 분야(도로, 철도, 항만 등 수송 물류 인프라 및 주택, 공공 분야 등 사회 인프라 건설)
④	물류산업
⑤	농업 및 식품가공
⑥	수산업, 수산가공, 수리 조선
⑦	목재 가공, 임업
⑧	과학·기술, 학술
⑨	의료, 관광 등 각종 서비스산업
⑩	종합 산업단지(분야에 관계없이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업종을 포괄)
⑪	기타 ()

5-2. 한-러 양국 정부 간 협력으로 극동지역 등지에 시범적인 소규모 '한국전용 산업 단지' 또는 '한-러 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어떤 지역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선택, 3개)

①	극동지역 농업 및 식품 가공을 겨냥한 농업지역(연해지방 우수리스크, 미하일롭스크 선도개발구역, 아무르주 콩 클러스터 관련 지역 : 농업, 식품가공)
②	의료, 과학·기술, 관광 등 서비스업 중심 지역(블라디보스톡 앞 루스키섬 선도개발구역)
③	블라디보스톡 인근 TOR 지역 (나제진스키 선도개발구역 : 기계공업)
④	나호드카 인근 항만 지역 (1990년대 한국전용 공단 추진 : 항만 물류)
⑤	두만강 인근 하산 지역 (두만강 개발 계획 및 북한 연계)
⑥	연해지방 남부 중-러 국경 지역(중국에서 철수한 중소기업 중심, 중국 시장 겨냥 :)
⑦	하바롭스크시 인근 중-러 국경지대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 건축자재, 목재 등 각종 공업, 식품, 물류)
⑧	러시아 수산물 활용을 목표로 한 수산물 가공 및 수리 조선업을 겨냥한 두만강 인접 북한 지역(러시아와 연계된 나진 선봉지역 : 수산가공)
⑨	철도 및 항만 연계 물류 산업 중심 지역(극동 항만지역)
⑩	기타 지역별 선도개발 구역 ()

5-3. 한-러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중·장기적으로 극동지역에 시범적인 소규모 '한국전용 산업 단지' 또는 '한-러 협력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어떤 형식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실현 가능성, 효율성 및 귀사의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

①	한-러 양국 기업 협력에 의한 소규모 산업 단지 (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관련 지역에 한-러 양국 기업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②	다수 산업 분야 대상 소규모 한국 기업 전용 산업 단지 다수의 주요 개발 지역 및 거점 지역에 산업 분야별 소규모 한국 산업 단지

	조성 (산업별로 적절한 지역에 5개 내외의 관련 기업들이 공동 진출)
③	특정 산업 중심의 한국 기업 전용의 중·대규모 산업 단지 (러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관련 지역 등지에 한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진출하여 중·장기적으로 한국 전용 산업단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④	복합 산업 단지 (제조업, 가공산업, 물류,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 포함) 러시아 시장은 물론 중국 시장 등을 겨냥하여 중·장기적으로 특정 지역을 중심의 복합 산업 단지 조성
⑤	인력 문제를 고려하여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중국 등지에서 러시아 자원을 가공 및 수출하는 형식의 한-러 산업 협력 단지 조성

5-4.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많을 경우 시범적 ‘한-러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기타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5-5. 극동지역 및 기타 러시아 지역 투자 진출이나 협력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나 러시아 정부에 바라는 부분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서술형 질문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질문(2-4-3)

교육, 과학 기술 연구, 의료, 관광 등 기타 특별히 진출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면 기재해 주십시오.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대상 지역에 교육, 의료 분야 진출에 대해서도 외국기업에게 허용할 예정입니다)

- 관광분야
- 취약한 의료시설 기반을 고려한 의료분야 진출 적극 검토 필요, 단 러시아 정부의 인허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임. 이에 연해주 지방 정부가 아닌, 모스크바와 핫라인 등의 개설이 필요함. 연해주 주정부와 업무 시 몇 년이 걸릴지 기약을 할 수 없음.
- 관광, 금융
- 건설자재
- 유통업
- 의료서비스업
- 의료관광, 관광
- 운송 서비스업
- 러시아에 열대 과일(바나나, 파인애플)과 일등 식료품을 수출하고자 하고, 투자 계획도 생각
- 한국에서 재배되는 많은 농산물(과일)을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출 진출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과 근접성이 좋은 곳을 선호
- 화장품
- 교육
- 의료분야에도 관심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 계획 수립 전 단계 검토 단계입니다
- 의료 및 관광
- 의료. 의료관광유치
- 운송업
- 의류분야(쇼핑타운ex) 동대문
- 의료장비
- 당사는 러시아계 물류회사로 해외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 개발 진행 시, 수출입 물류 운송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극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 저급품에 관심.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저가의 식품 등을 국내에서 가공 후 원하는 공급업자에게 공급 원함.
- 의료
- 교육
- 석탄운송
- 식품가공업을 동반한 도/소매 유통사업.
- 의료관광
- 복합운송
- 기업 컨설팅 관광산업

질문(2-5)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주요 대상 분야 중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 시멘트
- 공공소비재 및 자동차 수출 관련
- 물류운영
- 문화
- 금융업
- 의료, 병원건설
- 해운, 항만
- 의류

질문(2-6)

귀사와 동반 진출 시 도움 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 관광사업/엔터테인먼트
- 페인트, 접착제, 윤활유 등 석유화학 원료 소비 분야
- 노후화된 인프라 건설분야 진출 필요
- 건설사
- 금융
- 통신 및 건설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통신과 건설분야가 함께 진출한다면 도움이 될 것
- 유통업
- 의료 프랜차이즈
- 의료, 과학기술 학술분야
- 제조업 비철금속류
- 열대과일 등, 2차 식품산업
- 이미 구축되어있는 농산물 구매 네트워크를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 및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진출 가능성 있음.
- 도시철도 항만 등 인프라 건설
- 화장품
- 화학
- 천연가스 및 석유채취에 필요한 해양플랜트 사업
-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범위가 필요. 단편적인 정보제공이라면 기업 스스로도 충분히 가능
- 선진 제조기술 도입
- 도로 철도 항만
- 서비스업
- 블라디보스톡 항만시설
- 해상운송업

- 병원수출
- 무역업 및 운송업, 러시아 현지 사정에 정통한 에이전트T가 필요할 듯, 또한 이를 국내로 들어오게 도와줄 수 있는 포워더가 필요
- 글로벌 포워딩 업체
- 선박중개업
- 자원
- 물류
- 러시아 운송에 대한 다년간의 노하우로 여러 문제 해결 가능 및 안전한 운송
- 항만 인프라 건설
- 농업 및 식품가공.
- 의료관광 서비스
- 복합운송부분
- 제조 건설분야도 중요하지만 기타 서비스분야의 진출이 필요
- 서비스업
- 화학, 섬유제조
- 원목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 등
- 서비스업, 과학기술연구
- 원유·가스, 벌크선 화물 관련 업체
- 의류 및 물류회사

질문(5-4)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많을 경우 시범적 ‘한-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기타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사업지원
- 극동시장은 작기 때문에, 러시아 중앙·모스크바 또는 타국에서 수요가 받쳐주어야 함. (의료분야 제외) 이 지역만 보고 진출할 경우 성공하기 힘들며 모스크바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못함.
- 대규모 시설투자나 고비용이 발생하는 인프라 건설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극동 지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등에 지원과 혜택이 필요
- 규제 및 지원을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확인시킬 수 있는 회사
- 모스크바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어떠한 이유로 시범적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지 의문과 함께 무슨 일을 할 것인지가 더 궁금
- 현지 수요가 많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면 좋을 듯
- 개성공단처럼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
-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세금감면 각종 인프라 개선 치안 유지
- 철로 연결

- 일부 산업에 한정된 산업단지는 전시 행정일 뿐 입주사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며 좌초 확률이 높음. 세금감면 등의 일차원적인 혜택은 기업측면에선 그리 매력적이지 않음. CIS 어느 경제특구나 다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가기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
- 우리기업들의 세금 혜택과 많은 홍보
- 각 분야별 1~2개 대표업체 선정하여 시범 운영 후, 사업성이 확보되는 산업에 러시아 정부의 육성 지원책 마련 필요
-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중심의 한-러 산업단지보다는 초기의 시범적 단계에서는 1차 가공산업 중심의 한-러 산업단지가 더욱 바람직할 것. 그러한 산업단지가 단순히 1차 가공산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는 더 복합적인 산업단지로 변화해 가기를 희망
- 한국 비즈니스 상황은 현재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함. 러시아는 이미 한국의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연해주지역에 조선소 클러스터를 설립하는 공동계획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함. 대우조선해양은 유조선을 비롯해 쇠빙선, 유조에 필요한 해양 과학 기술 등을 공급하게 될 것. 그러나 프로젝트는 지체되고 있음. 이 계약서에는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한국으로부터 유조선을 구입하는 조항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이 의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음. 일본처럼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취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오랜 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감출 수가 없음.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러시아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음.
- '시범적'이라는 것은 곧 '제한적' 지원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먼저 기준을 명확히 세운 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임.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투자·진출 희망기업의 자격·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최소한의 제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각각 지원 및 입주 요건을 달리해야함.
- 현재 극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의 러시아 법인이나 출장소 혹은 지사의 경우 대부분이 시내지역에 있는 상태로 시내의 사무실 임대료는 상당히 높은 편임. 산업단지 조성 후 낮은 임대료 정책이나 임대료 지원부분에 메리트가 있다면 현재 진출해 있는 업체들과 신규업체들로 대규모 단지로 발전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양한 분야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 대기업 등은 풍부한 자금을 통해 자력 진출이 가능하나 소규모 업체는 사실상 어려움.
- 산업단지 조성 시 참여 기업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부각되어야 할 것
-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주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산업단지 조성 관련 연관산업 그룹핑 위치 설계를 통한 전문 특성화 지역조성
- 대부분의 국가 진행 사업들이 대규모 또는 고비용의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 큰 장벽들이 많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지원이 있었으면 함.

질문(5-5)

극동지역 및 기타 러시아 지역 투자 진출이나 협력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나 러시아 정부에 바라는 부분에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 모스크바 중앙정부에서 총괄해서 지휘해야 하며, 연해주 정부의 권한 등을 최소화 시켜야 조기 사업 실현할 수 있음. (모스크바는 미래를 보고 결정한 것이나, 연해주 정부 관련 인원은 자기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보고 접근하기 때문)
-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 계획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함. 단순 지역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해당 정보의 부재로 투자 진출에 어려움을 있음.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에 이해 제고와 긍정적 인식 확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봄.
- 통관 및 금융 분야에 힘써주면 좋을 듯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수의 현지 통역지원, 한국 직원이 상주했으면 좋을 듯
- 관세 등의 문턱을 낮추고 진행하고 규제를 완해했으면 좋을 듯
- 러시아 정부의 예측 가능한 정책구사. 담당자 변동으로 인하여 수년간 검토 투자한 사업의 원점 검토 또는 예측 불가한 법률 변경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불안은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를 막는 가장 큰 요인
- 한-러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위해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함. 예를 들어, 치안문제부터 복잡한 통관절차 및 TSR 개선을 통한 철도물류의 활성화 방안 대책 수립
- 러시아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부족
- 세제혜택
- 환율로 인한 대비책을 마련, 원자재 및 세율 혜택 등
- 대부분 투자진출에 있어 정부기관에 선 특구 지정 또는 컨퍼런스 개최 등 전시형 행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음. 이미 러시아 및 CIS 지역 내 특구는 충분하고 사업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자금 지원책 등 실제 추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자금지원 즉, 전대자금 활성화나 기금 마련 등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매력을 느낄만한 현실적인 활성화 정책이 아닌가 함.
-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경제적 지원 필요
- 투자에 맞는 교육과 많은 지원
- 복잡한 통관 절차 완화 및 분명한 비즈니스 마인드 교육, 교역 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 규제완화, 복잡한 통관 및 서류절차의 간소화
-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극동지역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았음. 많은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지리적 이점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음. 러시아의 투자 진출이나 협력 문제에는 물론 물리적인 재화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한국과 러시아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공감대 형성

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최근 북한·러시아·중국 3국 접경지역에 제3국의 국제 인공 도시가 가미된 국제 항만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아이디어로 제시돼 주목됨.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혁 추진은 필연적으로 해운 항만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며, 또한 그 변화를 선도하게 됨. 사실 해상운송과 항만은 러시아의 주요한 운송수단 중의 하나. 전통적으로 북극해 연안, 캄차카 지역, 오토츠크해 연안, 연해주, 사할린 등은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의 상당부분을 해상운송에 의존해 왔으며,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발트해와 흑해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는 비 CIS 국가와의 교역 증가 및 제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항만 물동량,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게 됨.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물류비용의 절감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연일 항만개발의 중요성과 해운산업 육성의 필요가 있음.
- 진출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세제혜택 또는 친기업 정책 장려
- 통관 과정에 있어 불투명한 부분을 한국-러시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해야 할 것. 여전히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정부지원 및 투자 지원 확대
- 러시아의 경우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법이나 규정이 모든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예외는 인정하려 들지 않음. 예외가 되는 경우, 그 예외의 경우를 인정하고 예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가이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춰 다시 만들어 오게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다 보니 현지인들도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고 업무의 진척이 늦어지거나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음.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닌 예외의 경우, 판례나 조례를 활성화하여 부득이 하게 예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함.
- 러시아 내 제도적 문제점과 투명성 확보가 관건
-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기업이 많지만 그에 적절한 정보는 절대적으로 부족
-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함.
- 세금감면 및 규제완화에 대한 정확한 정량적 정보 전달
- 중소기업들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함.

<부록 3> 러시아의 산업단지 현황

<부표 1> 러시아 산업단지 협회가 승인한 산업단지

(2015년 3월 30일 기준, 32개사)

	법인명	산업단지 이름	운영 여부 및 조성 형태	소재지 (연방주체)
1	Открыт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Идея Капитал»	Технополис «Химград»	운영중 Brownfield	타타르스탄공화국
2	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ФЛАГМАН»	공업파크 «Озеры»	운영중 Brownfield	모스크바주
3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Ульяновской области	공업파크 «Заволжье»	운영중 Greenfield	울리야놉스크주
4	Открыт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Корпорация «Нордтекс»	공업파크 «Родники»	운영중 Brownfield	Ивановская область
5	О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Калужской области	공업파크 «Ворсино»	운영중 Greenfield	칼루가주
6	О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Калужской области	공업파크 «Росва»	운영중 Greenfield	칼루가주
7	О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Калужской области	공업파크 «Грабцево»	운영중 Greenfield	칼루가주
8	ОАО «Северсталь-метиз»	공업파크 «Орел»	운영중 Brownfield	Орловская область
9	ООО «Лемминкяйнен инвест»	공업파크 «И-Парк»	운영중 Greenfield	칼루가주
10	ЗАО «ЮИТ Лентек»	공업파크 «Greenstate»	운영중 Greenfield	레닌그라드주
11	ОАО «Камский 공업파크 «Мастер»	공업파크 «Мастер»	운영중 Brownfield	타타르스탄공화국
12	БУ Вологодской области «Дирекция индустриального парка»	공업파크 «Шексна»	운영중 Greenfield	Вологодская область
13	ЗАО «УК «Химпарк Тагил»	Химический парк «Тагил»	운영중 Brownfield	Свердловская область
14	ГУ СК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и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края»	Региональный 공업파크 «Невинномысск»	운영중 Greenfield	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край
15	ОАО «Северсталь-метиз»	공업파크 «Волгоград»	운영중 Brownfield	Волго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
16	ООО «Капитал-Энерго»	공업파크 «Марьино»	운영중 Greenfield	г.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7	ООО «БалтТехПром»	Балтийский промышленный парк	운영중 Greenfield	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
18	ООО «МАКСиМАКС»	공업파크 «МАКСиМАКС»	운영중 Brownfield	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19	ОАО развития области	Корпорация Калужской	공업파크 «Обнинск»	운영중 Greenfield	칼루가주
20	ОАО развития области	Корпорация Калужской	공업파크 «Калуга Юг»	운영중 Greenfield	칼루가주
21	ООО компания слобода"	"Управляющая Кузнецкая	공업파크 "Кузнецкая слобода"	운영중 Brownfield	Л и п е ц к а я область
22	ЗАО "Красный Яр АО"		공업파크 "Красный Яр"	운영중 Brownfield	Красноярский край
23	ООО сервисная компания"	"Киришская	공업파크 "Левобережный"	운영중 Brownfield	레닌그라드주
24	ОАО «Ярославский 공업파크»		공업파크 «Новосёлки»	운영중 Greenfield	Ярославская область
25	ООО «ДжиДиПи Квадрат»		공업파크 «Ступино Квадрат»	운영중 Greenfield	모스크바주
26	ОАО «195 ЦЗПУО»		공업파크 «Бронницы»	운영중 Brownfield	모스크바주
27	ООО "Донтехком"	"공업파크 "Донтехком"	공업파크 "Донтехком"	운영중 Brownfield	Р о с т о в с к а я область
28	ООО "Нарпромразвитие"		공업파크 «Котово»	운영중 Greenfield	모스크바주
29	ООО "Станкомаш"	"공업파크 "Станкомаш"	공업파크 « Станкомаш»	운영중 Brownfield	Ч е л я б и н с к а я область
30	ООО "ПромЦентр"		공업파크 «ПромЦентр»	운영중 Brownfield	Р е с п у б л и к а Башкортостан
31	ООО "Авангард"	"공업파크 "Авангард"	공업파크 «Авангард»	운영중 Greenfield	하바롭스크주
32	ООО "ВМК Капитал"		공업파크 «Дальэнергомаш»	운영중 Brownfield	하바롭스크주

자료: <http://www.indparks.ru/certification/indparks/>

<부표 2> 러시아 산업단지 협회에 가입 예정인 산업 단지

	법인명	산업단지 이름	운영 여부 및 조성 형태	소재지 (연방주체)
1	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Ступино-Технопарк»	공업파크 «Ступино»	Проектируемый Greenfield	모스크바주
2	ООО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Приневский Технопарк»	공업파크 «Приневский»	Проектируемый Greenfield	레닌그라드주
3	ООО «Онега»	공업파크 «Перспектива»	Проектируемый Greenfield	В о р о н е ж с к а я область
4	ГУ СК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и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Ставропольского края»	공업파크 «Фармацевтика»	Проектируемый Greenfield	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край
5	ОА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Башкортостан»	공업파크 «Уфимский»	Проектируемый Greenfield	Р е с п у б л и к а Башкортостан
6	ООО «НИКОХИМ»	공업파크 «НИКОХИМ»	Проектируемый Brownfield	Волго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
7	О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Калужской области	공업파크 «Сосенский»	Проектируемый Greenfield	칼루가주

8	ОАО "Иннов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Ле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공업파크 "Пикалёво"	Проектируемый Greenfield	레닌그라드주
9	ОАО "Иннов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Ленинградской области"	공업파크 Северо-западного на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роектируемый Greenfield	레닌그라드주
10	ООО "Теллус-Консалтинг"	공업파크 "Кола"	Проектируемый Greenfield	레닌그라드주

자료: <http://www.indparks.ru/certification/indparks/>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김학기·김석환, Tagir D. Khuziyatov(2014),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 관점에서 -」, 산업연구원.
- 김학기(2013), 「APEC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과 대응 방안 - 혁신적 지역 클러스터 정책을 활용한 산업협력 -」, 산업연구원.
- 김학기, '러시아 극동개발 전략과 한-러 산업협력 방향', 러시아 극동 투자진출 세미나 발표 자료, 2015. 12. 4.
- 김학기, '러시아 극동개발 전략과 한-러 산업협력 방향', 러시아 극동 4개주 공동 투자 포럼 발표 자료, 2014. 11. 18.
- 김학기, “최근 러시아 극동 개발 정책의 변화 움직임과 대응 전략”, 「KIET 산업경제」, 2014. 1.

<국문 인터넷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대외경제장관회의 관련 보도자료.
- 산업연구원, 「KIET 해외산업정보」(<http://www.kiet.go.kr>).
- KOTIS 무역통계.

□ 논문 자료

- 러시아연방대통령, 대통령령, “장기 국가 경제정책에 대하여”, 2012. 5. 7.
- 러시아연방 대통령 홈페이지. 2013. 9. 30.
- 러시아연방정부, “2025년까지의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전략”, 2009. 12. 28.
- 러시아연방 관세청, 「대외무역 관세통계」, ‘ТСВТ документы’.

<http://stat.customs.ru/apex/f?p=201:1:3453840399101496>

- 러시아연방 국가 프로그램 “2020년까지의 광공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
- 러시아연방법 제116호, “특별 경제구역에 대한 연방법”, 2005. 7. 22.
- 러시아연방정부, 연방정부령 제466호,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국가 프로그램, 2013. 3. 29.

<논문 인터넷 자료>

-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부(<http://www.dfo.gov.ru/>).
-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http://www.economy.gov.ru>).
- 극동개발공사(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erdc.ru>).
- 극동개발펀드(Фонд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http://fondvostok.ru>).

- 러시아연방 극동개발부(<http://minvostokrazvitia.ru>).
- 러시아연방 대통령, ‘러시아-한국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회의’ 연설문. (<http://kremlin.ru/news/19610>), 2013. 11. 13.
-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Росстат), <http://www.gks.ru>, 각종 통계.
- 러시아연방정부, “극동·바이칼 지역 사회-경제 발전”, 러시아연방 국가 프로그램, (<http://www.gosprogrammy.gov.ru/Main/Start>).
- 리아노보스티 통신(<http://ria.ru/vl/20130828/959103620.html>).
- 코메르산트(<http://www.kommersant.ru>), 2014. 12. 18.
<http://www.kommersant.ru/doc/2883688>(2015. 12. 23)
- 콘크렌트, 2014. 10. 28.
- Expert Online(<http://expert.ru/about/online>), 2013. 8. 5; 2013. 10. 24.
- Vedomosti(<http://www.vedomosti.ru>), 2012. 11. 26.
- РИА Новости(<http://ria.ru>).
- РосБизнесКонсалтинг(<http://www.rbc.ru>).
-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http://www.rg.ru>).

□ 영문 자료

- UN Comtrade.

□ 일문 자료

- 러시아NIS경제속보, 각 호.
-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 JSN, 「週刊 ボストーク通信」, 각 호.
- 齋藤 大輔, “ロシア極東の新しい発展モデル”, 「ロシアNIS調査月報」, 2014. 1.

